

#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Vol. 19, No. 4

## Contents

Editorial  
Jae-Young Lee

## Papers

**Jeong-Ae Park**  
Art, Is It a Local Language? or, Is It a Universal Language?

**Min-Jung Lee**  
An Aesthetic Approach through Storytelling about Beauty in Art Education

**Sung-Hee Choi**  
A Study on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Art Education

**Mi-Jeong Lee**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 Focus on the Analysis of Artwork by Korean Contemporary Artists -

**In-Kee Ahn**  
A Study on Improving Craft in Elementary School with the Aspect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Chae-Young Jung · Hye-Won Shin**  
Developing Art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rough  
Appreciation of Korean Painting

**Jung-Ae Lee · Young-In Chu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Bird's Nest Drawing” between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KoSEA  
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ISSN 1229-747X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미술과 교육

제 19 집 4 호 2018

KoSEA  
Korean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 미술과 교육

제19집 4호 2018

# ART EDUCATION

## 미술, 지역적 언어인가? 보편적 언어인가?

박정애

공주교육대학교 정교수

---

### 요 약

---

이 글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 시대 미술의 정의를 도출하면서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해석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특별히 연구자가 현장연구한 미술가들의 미술에 대한 견해들을 서술한 다음 이를 문헌으로 해석하였다. 보편성으로서의 미술, 지역 언어로서의 미술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내려진 미술의 정의이다. 세계화 시대 미술가들의 미술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른 이질적인 특수성으로서의 지역 언어가 보편성을 얻는 것이다. 소통을 전제로 한 이러한 보편성은 각기 다른 감상자들에게 복수적 해석을 유발하면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술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 해석적 상상을 요구하는 지평의 융합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

### 주제어

보편성(universality), 복수적 해석(multiple interpretations), 해석적 상상(interpretative imagination), 지평 융합(fusion of horizon), 미술 교육(art education)

### 서언

과거 모더니즘 시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언어는 달라도 미술은 시대와 공간을 떠나 함께 감상이 가능한 보편적 시각 언어로 주장되었다. 20세기 초반과 중반을 거쳐 성행하였던 형식주의는 미술이란 선, 색, 명도, 질감 등의 조형적 요소와 균형, 강조, 대비, 변화 등의 조형 원리에 의해 작품 만들기가 가능하며 또한 이에 의해 감상이 가능한 “자율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국제 양식”을 탄생시켰다. 1990년대 이후 국적과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술가들은 추상이라는 양식을 통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그 결과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전통적이고 민족적이며 향토색 짙은 양식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무시되었다. 그러자 198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획일화 경향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다. 미술은 전 세계가 일률적으로 같은 하나의 목소리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미술은 수많은 지역 문화가 가지는

특수성에 근거한 각기 이질적인 다양성의 시각 언어로 주장되었다. 이 세계는 결코 통일성으로 말해질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이질적인 다름의 문화와 미술이 존재하는 세계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보편성으로서의 미술,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미술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두 패러다임에 내재한 각기 다른 미술의 두 가지 정의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의 문화적 요소들이 혼효되고 있는 이른바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미술가들에게 있어 보편성의 미술이라는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박정애, 2018a; 2018b). 지극히 당연하게도 세계의 미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단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감상자를 마음에 그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박정애, 2018a).

이 글에서는 과거 모더니즘 시대 보편성으로서의 미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무수히 다른 지역 언어로서의 미술이 어떠한 미술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초래하였는지를 알아본다. 그런 다음, 세계화 시대, 다시 담론을 만들고 있는 보편성으로서의 미술이 함의하는 미술교육의 개념에 대해 파악하기로 한다.

##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술의 두 정의: 보편적 언어와 지역 언어

과학, 이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철학은 보편성과 절대성을 근간으로 한다. 뉴턴의 절대성의 법칙은 결국 환원주의에 입각한다. 이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성의 추구가 그 핵심이다. 뉴턴의 절대성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대체되면서 인문학과 문화에서 강조되는 것 또한 문화의 상대주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가 그 단위가 되었다. 그 결과 강조되는 이념이 바로 다양성과 차이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서 미술은 보편적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술교육에 특별한 방법을 제공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렌즈로 본 각기 다른 이질성의 시각 언어의 미술은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특별한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보편적 언어로서의 미술: 형식주의와 펠드만의 미술 감상

소통과 해석의 관점에서 과거 모더니즘 체계에서 미술은 보편적 언어였다(Lowenfeld, 1947). 세계의 언어는 달라도 미술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선, 모양, 형태, 색 등은 모든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미술의 요소와 원리 즉 조형 요소와 원리로 작업한다는 것은 미술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더니스트 미술가들이 추상 작업을 해나간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형태 너머 보편적 실체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미술이 보편적 언어일 때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보편적으로 감상이 가능한 것이다. 미술작품 감상에는 국경이

없는 것이다! 바로 형식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이다.

형식주의는 20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구체화된 미술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예술의 다른 특성들보다 예술작품을 만든 “형식”이 중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술작품인 경우, 그것이 만들어진 “외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술 이론이 바로 형식주의이다. 시각 예술에서 형식주의는 일반적으로 20세기의 중반 영국의 클라이브 벨(Clive Bell: 1881~1964), 로저 프라이(Roger Fry: 1866~1934), 그리고 미국의 클리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 등이 언급한 특별한 논점과 관련된다. 클라이브 벨은 “시각예술”이라는 표제 아래 다양한 시대와 문화들에서 유래한 다양한 대상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냈다. 그는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미적 감정을 일으키는 선과 색채의 결합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를 “중요한 형식(significant form)”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 전 세계의 미술 작품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바로 그 미술 작품이 만들어진 외형적 형식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그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요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더니즘 시대 미술사는 내내 바로 형식주의에 의한 감상의 중요성을 고취시켰다(박정애, 2016). 서양 기원의 학문인 미술사는 원래 고고학 및 고전 탐구와 관련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술사는 한 작품을 중심으로 그 작품의 양식적 특색, 시대 추정, 그 작품의 진품 여부, 원래 외형으로의 복원, 위작 여부 판단 등을 주로 “형식”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사는 주로 “양식사”로 특징된다. 즉, 그 작품의 외형적 특색이 무엇인지에 전적으로 중요성을 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 동시대의 미술과 후대의 미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양식(style)”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다른 이질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진 인도 미술과 중국 미술, 그리고 미국 미술 등이 단지 그 작품에 묘사된 선, 형, 색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되는 것이다. W. H.詹슨(Janson, 1963)의 “세계 미술의 역사”는 바로 형식주의에 의한 미술 감상의 전형이다.詹슨이든 고틀리치이든 모더니즘 시대 미술사가들에게 있어, 미술작품의 형태와 내용은 서로 상호보완적이기보다는 독립적인 것처럼 여겨진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가 만연해지자, 미국의 미술교육학자는 펠드만은 4단계에 거치는 미술 감상법을 만들어냈다. 미술작품은 첫 째로 그 작품의 외형과 그 작품에 관한 한 사실들을 설명하는 묘사 단계와 그 작품의 부분과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논하는 분석 단계가 있다. 그리고 한 작가가 왜 그런 작품을 만들어졌는지를 논하는 해석 단계를 거쳐 그 작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펠드만의 미술작품 감상은 외형을 감상하고 그 외형적 형태 또는 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논하는 형식주의에 전적으로 입각해 있다. 또한 미술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해석은 한 미술가의 독창성의 구현이라는 입장의 휴머니즘 시각이 작용한다(박

정애, 2015). 이렇듯 좁은 의미의 미술작품의 “형식”은 그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적 이해와 관계없이 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작용은 그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켄슨이나 고프리치의 미술사 방법과 마찬가지로 펠드만의 감상법 또한 모든 시대의 미술작품 감상을 외형에 중요성을 두고 분석한 것이다. 이는 결국 환언주의라는 모더니즘 시대의 이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정애, 2001). 추상이라는 정신작용은 실제로 사물을 분석적으로 보면서 그 대상으로부터 특정한 속성, 성질 또는 관계를 추상화하거나 뽑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Bourriaud, 2013). 그리고 이를 통한 형식주의 또한 그러한 뻔셈의 매커니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 지역 언어로서의 미술: 사회학적·인류학적 배경을 통한 미술 감상

모더니즘이 탄생한 보편성과 형식주의는 많은 후기구조주의자들과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에 의해 부정되었다. 잘 알려진 바대로 포스트모던 담론에서는 지역주의, 차이, 그리고 공동체의 특성 등이 포스트모던 시대 담론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담론은 미술을 한 사회적, 문화적 생산으로 정의되었다. 롤랑 바르트(Barthes, 1975)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생산을 특별히 “텍스트(text)”로 불렀다.

세계는 결코 통일성으로 말해질 수 없는 각기 다른 이질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술 또한 그러한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코 동질화될 수 없는 비주류 문화들을 고려하는 차원의 “다문화주의”가 부상하였다. 과거 모더니즘이 백인의 유럽, 아메리칸 문화로 전 세계의 문화를 획일화한 것이라면 이제는 여성과 소수 문화 그룹의 문화와 미술이 인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미술작품들은 어떻게 감상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한 각기 다른 미술들은 앞서 언급한 외형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술작품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통해 결국 주류에 동화될 수 없는 차이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미술교육학자인 준 킹 맥피, 그리고 캐나다의 그래엄 찰머스 등은 미술작품에 대한 “사회학적, 인류학적 방법의 미술 감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찰머스(Chalmers, 1981)에게 있어 미술교육은 민족학(ethnology)이라는 담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이 만든 사회학적, 인류학적 접근은 “문화적으로 응답하는 교수법”(Chalmers, 1986)이 제시되어야 하는 차원의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맥피(McFee, 1986)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 유형을 고안하였다.

이 그룹의 미술에 나타난 문화적 영향은 무엇인가?

문화가 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졌나?

이 작품은 문화적 가치, 특성, 태도, 믿음, 역할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 작품을 평가하는 그 그룹의 기준은 어떠한 것인가?

이 작품에는 전통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그 문화권에서 예술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문화권에서 예술가는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

그 문화권에서 이 예술가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p. 14)

준 킹 맥피와 그래엄 찰머스의 학문의 전통을 잇는 맥락에서 미국의 미술교육학자 팻 스테어, 페트로비치-므와니키, 그리고 와슨(Stuhr, Petrovich-Mwaniki, & Wasson, 1992)에게 있어 사회학적, 인류학적 미술감상은 1)그 지역의 역사, 2)이와 관련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요소들, 3)인구학적 요소들, 4) 지역의 가치와 믿음, 5)사회적, 문화적/인종적 집단(분류, 주 집단 등), 6) 개인적 차이점들(연령, 성, 성적 취향 등)을 고려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말하자면, 이 방법은 과거 형식주의에 입각한 펠드만의 미술 감상을 대신하여 미술 작품을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에서 분석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혼화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 이러한 미술 감상 방법이 아직도 유효할까? 과연 한국 미술가들이 단지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과거로부터 전수된 것을 수직적으로 위계적으로 따르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 미술가들을 이렇게 하나의 “문화”라는 울타리로 가두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한가? 이 시대 미술가들은 하나의 문화에 뿌리박힌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전 세계를 이동하고 있는 이동성의 주체가 아닌가?

### 미술가들의 미술의 정의: 지역성이 보편성을 얻는 것

필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적 상호교환과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뉴욕, 런던, 파리 등의 국제도시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적인 디아스포라 미술가들과의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박정애, 2018a; 박정애, 2018b). 그런데 현장연구 중 부상한 이슈가 바로 “보편성”으로서의 미술이었다.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들의 임무이자 담론이 보편성으로서의 미술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필자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세계적인 도시에서 전시를 하고 작품을 팔고 있는 몇몇 한국 미술가들과의 현장연구도 함께 병행하였다. 지극히 당연스럽게도 이들 미술가들의 임무 또한 자신들의 작품이 전 세계의 감상자들로부터 “보편성”을 얻는 것에 있었다. 요약하자면, 세계화 배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미술가들에게 있어 미술은 보편성의 미술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미술가들이 과거 모더니즘 시대로

회귀한 것인가? 물론 세계화 시대 미술가들이 추구하는 보편성은 과거 모더니즘 시대의 보편성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이들 미술가들게 있어 미술에 대한 견해는 다소 복합적이며 경우에 따라서 상반되는 것이었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 광선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거는 어떤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를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visual한 거니깐 그것에 특별하게 어떤 비주얼에 한국이면 한국 영문이면 영문 그걸 공부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작품에 대한 그런 정보는 자기네 언어로 주어질 수 있는 거니깐 그것은 사실 굉장히 글로벌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일단은 즉각적으로 제 작품 같은 것은 시각적으로 확 와 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해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런던에 기반을 둔 배찬효에 의하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나 면요. 텍스트가 소리 언어보다 약속 구조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이 페인팅보다 약속 구조가 더 강해요. 만약에 텍스트를 90%로 두고 언어를 80%로 두고 사진을 50%로 두고 미술을 30%로 만약에 둘게요. 그러면은 이게 약속 구조가 다른 거지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경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서 활동하는 김정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술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미술은 어떤 부분은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base는. 그 베이스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core 그 base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편적이고, 그 답에 나머지는, 지역적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신형섭에게 있어 미술은 지역적인 언어에 가까운 것이다.

미술이란 제한적인 랭귀지입니다. 나무뿌리까진 좋은데요. 근데 거기서 좀더 이제 깊이 있는…… 나무뿌리가 사실은 단순한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수평적이고 인간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와 대비한 대조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읽어주는 힘들겠죠. 그런 것은 내가 텍스트로서 보충설명을 해야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주얼한 것으로는 다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달라서.

그러나 신형섭의 견해와는 달리, 감상자들의 해석이 각기 다른 것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김신일은 다시 미술이 보편적 언어임을 다시 주장한다.

미술은 universal한 language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면 그 language는, language나 뭐 책을 통해서 읽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너의 활동이잖아요. 너만의 활동? 근데 이 작품은 너와 모든 몸이 다 관여 되어서 사람들이 감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language를 몰라도, text를 몰라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베르그손이 말하는 직관적인 걸로 느끼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만들어 낸 language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universal한 languag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해석해보면, 미술은 차이가 관여하는 한에서 지역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미술은 그 지역 특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의 시각에서는 지역적인 것이다. 하지만, 미술의 감각적 요소들에 대해 감정이 관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작품에 반응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술은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순철에게 있어 미술은 지역문화에 기반한 한 개인 특이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권순철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미술은 지역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만들어야죠. 미술이라는 것은 인류공통으로, 예를 들면 서술이나 이런 문학 같은 건 좀 독특한 게 있고 말[언어] 같은 건 달라서 사실 번역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악하고 미술은, 미술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미적 요소가 있으면 눈하고 같이 느끼는, 음악도 왜 우리 좋은 음악은 쇼팽이니 이런 거……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뭔가. 미술도 뭔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그런데 각 나라마다 각 지방이나 토속적인 문화, 그런 요소들은 일단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보편적으로 나가야죠. 그 방법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 미술 같은 것도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잘.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고호가 좋다, 고호를 잘 몰라도 보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우리 것도 그림, 불상 이런 것, 옛날 그런 것, 추사 글씨 같은 것도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서예 같은 것도, 그래도 그런 데에서 문화소양이 쌓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거든요? 일본 그림을 좋아하듯



이…… 그런 식으로 한국 것도 좋은 것은 도자기 같은 것도 우리 한국도자기를 참 좋아한다고요. 그 안의 무늬 같은 거나, 우리 청자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뭔가 좋은 게 있는 거면 좋아한다고요. 뭔가 자세한, 세부적인 디테일이라고 그럴까 담긴 역사가 있고 이게 뭐다, 언제 것이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다 이런 것은 공부하면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고. 일단은 아름다운 요소가 있으면 확 [가슴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공통적이라는 거죠. 보편적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작가는 또 자기 소속된 나라나 민족이나, 토양이나 그런데서 어떤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죠, 작업을. 안 그러면 너무 작가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비슷하게 해버리면 별로, 찝뽕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깊이도 없고, 철저하지도 못하고. 한국작가는 한국에서 있을 땐 그렇게 하고, 여기 오면 여긴 재료도 많고 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용해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는 것도? 좀 보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해서 독특한 것을 보여줘야지 애들하고 똑같은 것을 하면 애들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으면서,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요소를 나타내야 되고.

세계화 시대 미술가들에게 있어, 미술은 지역적인 것을 전 세계의 감상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모더니즘에서의 추상이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세계의 많은 작가들이 함께 작업하였던 보편성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미술가들에게 있어, 각각의 지역문화가 차이가 있지만 미술은 또한 감각에 호소할 수 있을 때 점에서 보편성을 띤다는 논조이다. 개인 특유의 차이가 보편성을 가진다는 미술가들의 주장은 들뢰즈(Deleuze, 1994)의 이론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그에 의하면 “보편성(universality)”이란 다름 아닌 한 개인 특유의 “독창성(singularity)”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 이러한 독특성과 보편성은 “일반성(generality)”과 “특수성(particularity)”과 구별되는 것이다. 일반성은 등가성에 의존한다. 이는 모더니즘 미술가들이 추구한 것이 바로 미술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일반성”을 추구한 것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모더니즘에 반대한 한 지역 특유의 문화가 단위가 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문화주의는 바로 “특수성”의 추구인 것이다(박정애, 2018b). 이렇듯 미술가들은 과거 모더니즘에서 보편성으로 오해한 일반성의 개념과는 다른 보편성의 미학을 전개시키고자 한다. 즉, 각기 다른 양식으로 자신들의 독창성을 드러내면서도 보편성의 고원에 올라 세계인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 소통으로서의 미술

미술이 보편성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타자와의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미술은 언어와 달리 미술의 외형적 요소들에 의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국경 없이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는 일반성으로서의 미술과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생산이기 때문에 국경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특수성의 지역 언어라는 각기 다른 명제들 또한 결국 소통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이미 파악한 바와 같이 모더니즘에서는 외형적 분석에 의한 형식주의가 소통의 단위였다. 이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소통은 특수성의 미술은 그 미술작품이 만들어진 문화가 단위가 되어 각기 다른 이질적인 특수성의 미술을 이해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에서는 중요한 형태가 “감정” 또는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형식적 분석이 중요한 것이었다. 실로 미술가들은 특별한 방향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한다. 들뢰즈(Deleuze, 1991)는 예술 작품이 재료를 감각으로 옮겨간 “감각들의 블록”이라고 불렀다. 미술은 잠재된 힘들을 감각을 통해 드러낸다. 그러므로 들뢰즈(Deleuze, 1991)에게 있어 예술은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감각들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은 즉자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보존되는 존재물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미술은 한 개인의 생산으로 축약된다. 이를 과거 모더니즘에서는 “자아 표현”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자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모더니즘에서 타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체로서의 자아를 내세운 것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에서 논하는 자아는 항상 타자와 상호간의 영향에 의한 존재이다. 따라서 미술은 한 개인이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 미술가들은—소비의 관점에서—늘 감상자, 즉 타자를 의식하면서 타자들의 요소를 덧셈한다.

미술이 자기 보존의 지각체와 감각들의 블록이라는 들뢰즈(Deleuze, 1991)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단지 객체와 주관에 제한되지 않고 이 양자를 뛰어넘어 우주적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술가 개인이 한 문화권에서 배우고 익힌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미술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때 예술적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미술작품에 대해 들뢰즈와 과타리(Deleuze, 1991)는 “작품은 작품으로 말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와 다소 다르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적 이해, 즉 사회학적, 인류학적 감상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감각을 통해서만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설명(logos)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을 함의한다(김재인, 2013). 따라서 김재인은 색, 형태, 소리, 양식 등은 오직 감각에 와 닿기 때문에 설명과 작품 체험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네데토 크로체에 의하면 좋은 미술은 성공적인 정서의 표현이고 표현은 감상에 결정적인 정서를 구체화하고 이미지의 발견 안에 있다(Osborne, 1968). 이 과정을 크로체는 “직관”

이라고 불렀다(Osborne, 1968). 그런데 들뢰즈와 파타리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생각(thought)”이라고 설명한다. 기쁨, 슬픔, 감정, 감각도 생각이고 인지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지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서는 감정, 직관 등이 모두 인지 행위에 포함된다(Parsons, 1987). 지각은 가장 기초적인 인식 행위이다. 무언가를 가까이 혹은 먼 곳에서 포착하고 그것의 형태나 크기, 색, 소리, 맛, 냄새와 같이 감각적인 동시에 지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지각과 감각의 차이는 감각이 단지 느낌의 차원에 머무르는 데 비해 지각은 그것의 인지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황수영, 2006). 베르그손은 지각은 감각을 통해 대상이 가진 인지적 특성을 파악한다고 설명한다(황수영, 2006). 베르그손에 의하면, 지성은 분석 능력이며 “사물의 주의를 도는 것”인 반면, 직관은 사물과 “공감”하는 능력으로서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직관은 나 자신의 직접적 인식을 의미한다(황수영, 2014). 분석이 상대적 인식에 머무르는 반면, 직관은 확대된 의식으로서 나 자신의 무의식을 포함하고 타인의 의식, 다시 말해 의식 일반에 도달할 가능성 및 약동 자체인 생명 전체와 공감할 가능성이다(황수영, 2014). 베르그손은 지성과 시각적인 요소들만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여 느끼게 되는 “직관(intuition)”에 의해 세계는 파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직관의 실질적 근거는 의식의 자기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은 감각적 특성은 분명 지각적 인지 행위를 돕는다. 같은 근거로 미술은 지각과 감각의 창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근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통을 위한 해석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 미술가들의 작품이 개인 특유의 지역적인 문화적 생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미술가가 만든 지역문화의 코드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가? 그것이 해석을 의미하는가?

### 복수적 해석

지역 언어로서의 미술이 소통되는 것은 그 작품의 해석과 관련된다. 많은 미술가들은 미술작품이 감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직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글자 언어와 비교할 때 보다 보편성을 띤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미술가들이 해석이 문화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 언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을 요하는 것인가? 미술가가 만든 지역적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미술가가 만든 지역문화의 코드를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들뢰즈(Deleuze, 2000)는 그러한 코드 해독이 근본적으로 기호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 들뢰즈(Deleuze, 2000)는 미술의 기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술의 세계는 기호들의 궁극적 세계이다. 탈물질화된 것으로서의 이 기호들은 관념적 본질 안에서 자신들의 의미를 발견한다. 미술에 의해 드러난 세계는 모든 타자들에게, 특히 감각에 호소하는 기호들에 반응한다. 미술은 기호들을 통합한다. 예술적 의미로 채색하고, 그 기호들에 아직 불투명한 것을 물들인다. 그 다음, 우리는 그 물질적 의미에 새겨진 관념적 본질에 이미 관련된 감각적인 기호를 이해한다.(pp. 13-14)

모든 배움의 행위는 기호의 해석이다. 들뢰즈에게 있어 “기호(sign)”는 생각 또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호는 해독하고 해석하고 배우면서 알아가야 할 사태를 유발하는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서 활동하는 미술가 윤준구는 미술작품 감상이 기호 찾기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술은 유니버설한 랭귀지죠. 왜냐하면 여기 관객들이 한국 작품을 보면 그걸 한국으로 이해해 버려요. 그런데 미술은 지역적 특성 두 가지 측면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문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산물이기도 해요.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언어이죠. 두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죠. 이성적인 이해가 있고, 감성적인 이해가 있어요. 이성적인 이해에서는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가 아닐 수 있는데,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작품 보면 알겠지만 오래된 영국 작품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취미로 모으는 작품들인데. 이거 사실 우리랑 다른 거잖아요. 원작이에요…… 거의 이 작품 18C 작품이에요. 18C 작품이고, 이 건 19C 작품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 태양신이 많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네덜란드풍의 태양신인데. 제가 사실 수집을 하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근데 지금 한 질문(미술이 보편적 언어인가? 지역언어인가?)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전혀 다른 문화고, 다른 시기고. 근데 제가 모으는 부분이 있다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매료시키고 내게 attractive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빅토리아 시대 그림이에요. 미니어쳐라고. 이건 브로치고. 굉장히 우리한테 이질적이죠.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날 매료시키냐 하면.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수집을 하거든요. 초상화에요. 그 시대에는 중매할 때 이렇게 부모들이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인데……”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예요. 18C, 19C 그 무렵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작품이에요. 천팔백 몇 년. 1837년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공감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감대를 느끼는

건 인간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거?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에 때문에. 삶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문화는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서구의 소설을 읽어도 감동이 오잖아요. 다른 문화에[의] 글을 썼지만 내 이야기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잘 표현 했을 때 그게 세기의 역작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아닌가? 서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동양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 할 수 있는 거면 더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 더 많은 어떤 관심을 끌 수 있겠죠.

들뢰즈는 가장 깊은 층위에서, 본질적인 것은 미술의 기호들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배움은 이미 미술 자체의 무의식적 배움이다. 들뢰즈(Deleuze, 2000)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간다. 말하자면, 미술작품의 이해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식의 배움인 것이다. 배움 또는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식이 아니다. 미술작품은 “시간” 자체의 탄생인 존재 생성의 본질을 계시한다(Deleuze, 2000). 기호는 특별하고 한 세계 또는 또 다른 세계의 실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탐구는 서클 안에 조직되고, 일정한 시점에서 교차하는 기호들의 다른 세계의 탐험이다(Deleuze, 2000).

한 개인 특유의 독창성 또는 차이로서의 미술이 타자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때 그것은 보편성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편성을 주장하는 근거로서의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들뢰즈는 미술작품을 “감각들의 블록”이라 정의하였다. 들뢰즈(Deleuze, 1991)에 의하면 블록은 감각들이 함께 모아져 있기 때문에 “복수성”을 띤다. 그리고 복수성은 “힘(force)”를 가리키며 힘들의 관계 맺음인 “생성”을 함의한다(Deleuze, 1991). 따라서 들뢰즈에게 있어 예술작품은 “감각의 존재”이며 우주의 비인간적인 힘들의 관계맺음이며 생성이다(김재인, 2013). 들뢰즈는 부연하길, 미술의 기호들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멀리까지 자신의 능력의 극한까지 이르게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은 인간을 넘어서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우주적인 비인간적인 힘들에 도달하여 그 힘들을 포획하는 기능을 한다(김재인, 2013). 그러므로 메를로 폰티(Merleau-Ponty, 1964)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포기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타자들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만들면서, 상황들이 생생한 긴장 상태 속에서 서로 이해되게 하는 저 신비한 친화성 덕분에 보편적인 것에 도달한다”(p. 113). 메를로 폰티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일종의 형이상학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술이 보편성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작품의 원전과 언어, 문체, 내용의 상호관계가 각기 다른 복수적 해석을 유도하는 현상은 들뢰즈(Deleuze, 2000)가 인용한 신플라톤주의자들의 “복합(complication)”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들뢰즈에 의하면,

복합, 그것은 일자(the One) 안에 다자(the many)를 싸고 있으며, 복수의 단일성(unity)을 긍정한다. 그들[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 영원은 변화의 부재도, 심지어 제한 없는 실존의 연장도 아닌, 시간 그 자체의 복합된 상태로 보였다. 모든 본질들을 포함한 세계는 최고의 복합, 모순들의 복합, 불안정한 저항의 복합으로 정의된다.(p. 45)

들뢰즈와 과타리(Deleuze & Guattari, 1987)에 의하면,

유비와 반대되는 내재성 또는 일의성의 판. 일자는 모든 다자와 단일한 의미로 말해진다. 존재는 모든 차이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체의 통일성이 아니라 삶이라는 이같이 유일한 판 위에서 서로로서 부분이 되는 변양들의 무한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p. 254)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은 본질적으로 차이를 만들면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복합”인 것이다. 미술가 권순학의 다음의 주장은 결국 복합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미술은 지역적인 것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인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것도 같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딱 이분법적으로 그것을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지역적인 언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현대적인 언어에 미술…… 그러니까 현대미술을 공부한 사람만이 아는 언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는 언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이라고 해서…… 로컬하면서도 유니버설한 것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혐오스럽게 느낀다거나 뭐 보편적인 아름다운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나 틀린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문화적인…… 지역문화라는 걸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그거를 현대미술의 언어라 할게요. 현대 미술의 언어의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자기 언어라고 할게요. 작가로서 자기 언어를 아주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사실 그게 보편성을 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좀 풀어내기가 힘든데…… 그게 보편적인 언어로서 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생각해보면 아주 지역적인 언어는 보편적인 언어와 또 닮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보편적 언어와 지역적인 언어든 간에 이것을 언어라고 부르는 것은 보편

성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현대 미술이 자기 작가 혼자 안에서 끝나지 않고 한 사람 이상과의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어떤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것은 일단 언어로서 보편적인 언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고, 근데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어는 없죠. 언어를 어떻게 해석했나면 언어를 이제 그 작품에서 내가 작품에서 풀어내는 나만의 언어의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그 언어 자체가 보편적이지는 않고 다 개인적인…… 천주희씨 작품도 제가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성이 있는 거죠. 제가 “아!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했구나!” “아! 이러한 손맛을 통해서 아! 이런 생각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한 작품에서 어떤 것을 내가 인지한다는 것은 일단은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게 뭐 당연히 100% 소통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100% 공감 이런 것은 없죠.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서도 우리가 100% 공유할 수 없죠. 근데 어쨌거나 보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한단 말이죠? 같은 언어로서 한국어로서 그렇게 본다면 미술도 한 사람 이상과의 어떤 한 부분에서 있어서라도 어…… 같은 걸 그게 감정이든 조형성이든, 분명히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것들로 사람들은 해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술가로서 우리는 보편적인 언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특이하고 남들에게 찾지 못하는 특이한 그 특이한 감성을 다뤘을 때 그때 진정한 아트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미술은 독창성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자극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감은 각자가 다르게 의미를 만드는 복수적인 해석을 유발시킨다.

### 해석적 상상의 요구: 지평 융합의 감상

데뢰즈(Deleuze, 2000)는 배움, 즉 감상을 유발시키는 기호는 동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복수성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러한 기호들이 한 종류가 아니며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것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해독하게 허락하지도 않으며 그것들의 의미가 동일한 관계를 가지지도 않는다. 모든 해석은 그 작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원작을 나름대로 변형시킨 즉 감상자 나름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학자 아서 단토(Danto, 1986)에 의하면, 해석은 “변형”이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비평가 존 버거(Berger, 1972)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p. 8)고 하였다. 즉 복수적 해석을 지지하는 선언이다. 실로 미술은 상징과 은유의 시각적 서술이기 때문에 복수적 해석은 그만큼 예술적인 성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관성을 담보하는 현대 미술에서 예술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감상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감상자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현대 미술가들은 아예 감상자 편에서의 복수적 해석을 의도한다. 바로 한 개인의 독특성이 감상자 나름의 독특한 해석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인간의 해석 행위 또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은 상호작용 또는 관계의 형성에 의해 늘 달리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의 의미가 늘 달리 읽히는 살아있는 글이 되는 것이다. 미술가들이 다른 관계 맺음으로써 반복과 지속을 통해 작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존재를 달리 드러내는 것이다(박남희, 2009).

미술이 개인적 또는 지역적인 문제로 보편성을 찾는 맥락에서 해석은 우리가 각자 지엽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질적인 것을 뒤섞으면서 각자의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한계성을 지시하는 것임과 더불어 현존재, 즉 세계-내-존재로서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을 받는 우리의 유한성을 말해주는 것이다(Heidegger, 1996). 그래서 우리는 늘 달리 이해하며 해석해가는 가운데 복수적 해석을 하게 된다. 독특성이 보편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다의미성에 의한 것이다. 일자가 다자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다머(Gadamer, 2004)는 한 저자가 탐구하는 것에서 독립하여 정확한 방법의 탐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다머의 핵심적 텍스트 *진실과 방법*이 융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상자에게 요구되는 “해석적 상상”은 사람들과 전통 사이의 대화를 만들면서 국가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가다머의 “지평 융합(fusion of horizon)”은 바로 텍스트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감상자 편에서의 의미 만들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해석적 주장은 “세계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넓혀준다. 그런데 해석학적으로 우리는 항상 나의 언어와 경험으로 타자를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타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의 중요성의 하나는 모든 의미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참조적이고 관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타자들과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해석적 탐구는 바로 감상자의 내재적 창의성을 뜻한다. 실로 미술의 복수적 해석을 목적으로 한 미술교육의 교수학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인 (2013). 들뢰즈의 미학에서 “감각들의 블록”으로서의 예술작품. *미학*, 76, 39-72.  
 박남희 (2009). 현상학과 해석학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한국교육인류학회 2009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68-273.

- 박정애 (2001).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서울: 시공사
- 박정애 (2015). 펠트만 법칙 미술 감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미술과 교육*, 16(3), 19-38.
- 박정애 (2016). 미술사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감상자 중심 교육, *미술사학*, 31, 211-237.
- 박정애 (2018a). *보편성의 미학: 세계화와 한국 미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박정애 (2018b). 세계화와 한국 미술가들의 문화 생산. *미술과 교육*, 19(2), 1-18.
- 황수영 (2006). *물질과 기억*. 서울: 그린비.
- 황수영 (2014). *베르그손, 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 서울: 갈무리.
- Barthes, R. (1975). *The pleasure of text*. (R. Miller, Trans.). New York: Hill and Wang.
- Berger, J. (1972). *Ways of seeing*. London: BBC and Penguin Books.
- Bourriaud, N. (2013). *레디컨트*. (박정애 옮김). 서울: 미진사.
- Chalmers, F. G. (1981). Art education as ethnology. *Studies in Art Education*, 22(3), 6-24.
- Chalmers, F. G. (1986). Enquiry in cultural identity and realisation through the arts: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5(1-2), 187-193.
- Danto, A. (1986). *The philosophical disenfranchisement of 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leuze, G. (1990). *The Logic of sense*. (M. Lester & C. Stivale, Trans.). (C.V. Boundas,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leuze, G. (1991). *Qu'est-ce que la philosophie?* Paris: Minuit.
- Deleuze, G. (1994). *Repetition and difference*. (P. Patton,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leuze, G. (2000). *Proust and signs*. (R. Howard,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leuze, G. &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 Masumi,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Janson, W. H. (1963). *History of ar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Gadamer, H-G. (2004). *Truth and method*.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Heidegger, M. (1996). *Being and time*. J. Stambaugh (Tran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owenfeld, V. (1947).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Macmillan.
- Osborne, H. (1968). *Aesthetics and art theory*. London: Longmans.
- McFee J. K. (1986). Cross-cultural inquiry into the social meaning of art: Implications for art educa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and Cross-cultural Research*

*in Art Education*, 4(1), 6-15.

Merleau-Ponty, M. (1964). *Sense and non-sense*. (H. L. Dreyfus & P. A. Dreyfus, Trans.) Evanston, IL: Northern University Press.

Parsons, M. (1987). *How we understand ar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uhr, P. L., Petrovich-Mwaniki, L., & Wasson, R. (1992). Curriculum guidelines for the multicultural art education, *Art Education*, 45(1), 16-24.

## Abstract

### Art, Is It a Local Language? or, Is It a Universal Language?

**Jeong-Ae Park**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by defining art in the 21<sup>st</sup> century in which culture is rapidly globalizing. For this, the views of relevant artists are explored in order to interpret them through literature. Art as a universal language, and art as a local language represent two definitions of art under paradigms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For artis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rt gains universality through its particularity in different local languages, and it gains universality to be communicated with diverse audiences. The universality that premises communication implies multiple interpretations to different audiences. In other words, the universality of art induces different interpretations to different audiences. The pedagogy that generates multiple interpretations requires an imaginative interpretation to reach to the fusion of horizon.

|                   |                   |                   |
|-------------------|-------------------|-------------------|
| 논문접수 2018. 10. 17 | 심사수정 2018. 11. 02 | 게재확정 2018. 11. 05 |
|-------------------|-------------------|-------------------|

## 미술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에 대한 미학적 접근방법

이민정

공주교육대학교 조교수

---

### 요 약

---

본 논문은 미학 영역의 주된 주제이자 미술교육의 기초개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탐구방법을 통해 시도함으로써 미술교육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미학적 접근 방법을 마련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 방법은 철학적인 사유를 촉진시키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미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내고 되새기게 하며 나아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의 함양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적 지식을 통한 삶의 방식과는 다른, 예술에서의 감성적 통로를 통한 삶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인식론적인 가치도 함께 배울 수 있게 한다.

---

### 주제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미학적 접근방법(aesthetic approaches), 아름다움(beauty), 인성교육(holistic education)

### 서론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미(美)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모두가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美)” 즉 “아름다움”은 특히 예술의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왔다. 미술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미술교육에서도 미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에서 “미(美)”라는 용어는 “미술교육(美術教育)”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자연미(自然美)”나 “조형미(造形美)”와 같은 용어에서도 발견되며(NCIC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1997), 미(美)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미적

체험(美的體驗)”이나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미적 감수성(美的 感受性)”과 같이 “미적(美的)”이라는 용어에서도 발견된다(NCIC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07; 2015). 따라서 미(美)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이자 미술교육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 자체에 대한 의미의 해석 내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미술교육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자체에 대한 의미의 해석 내지 그 정의에 대한 탐구는 미학에서 주로 다루어져왔으며 미술교육에서는 부재한 상태이다. 미에 대한 논의는 미학과 철학에서도 중요하지만 미술교육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미술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미학 영역의 주된 주제였던 미의 문제를 미술교육에서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미의 양상을 통하여 의미를 읽어내고 논의하는 미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아울러 취한다. 본고에서 전개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방식은 철학적인 사유를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접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술교육에서의 미(美)의 접근에 대한 용례를 살펴본 뒤 고대로부터 취해온 미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고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방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기로 한다.

### 미술교육에서 미(美)의 접근에 관한 고찰

미술교육에서 미에 대한 접근이나 용례를 살펴보면 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미를 전제로 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미(美)라는 것에 대한 공통의 개념규정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가령 과거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자연미”나 “조형미”의 발견과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게 하거나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혹은 “미”라는 개념은 “미적”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함께 정의되어지기도 한다. 가령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까지 그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미적체험”, 혹은 “미적 감수성”과 같이 “미적”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내용과 활동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NCIC 국가 교육과정 정

보센터, 2007; 2015). “미적 체험”, “미적 태도”, “미적 감수성”에서의 “미적(美的)”이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aesthetic”으로 영어의 “beautiful”이 아니며 “beautiful”의 명사형인 “beauty”에 해당하는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미(美)”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의 “aesthetic”에 해당하는 “미적”이라는 용어가 미술교육에서 사용이 될 때 “미적”이라는 것을 “아름다운”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지 않고, “미학”에 해당하는 “aesthetics”와의 연관 속에서 “미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방법론적인 측면이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미적이라는 것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美)”와 “미적(美的)”이라는 말에 둘 다 공통적으로 “미(美)”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둘 다 미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미학”이라는 용어와의 연관 속에서 “미적”이라는 의미에 접근하는 것이 곧 “미” 그 자체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술교육에서 미와 관련된 접근방법들은 미 자체의 의미에 대한 탐구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아름다움과 관련된 활동들이 전개되었거나 혹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미적이라는 용어와 관련되어 해석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다움”, 곧 “Beauty”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용어로 당연시되어 간과되었던 것에 비해 “미적”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aesthetic”이라는 용어는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여겨진 까닭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술교육에서 미 자체에 대한 탐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미술교육의 기초개념의 하나이자 오랜 철학적 역사적 전통을 가진 문제인 미에 대한 탐구는 미술교육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의 정의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고찰<sup>1)</sup>

미에 대한 철학적 뿌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 영어에서 미는 그리스어의 칼론(κλόν)<sup>2)</sup>, 라틴어의 풀크룸(pulchrum)으로 라틴어의 명칭은 중세까지 사용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벨룸(bellum)으로 지칭되었는데 이 명칭은 선이라는 뜻을 가진 보눔(bonum)이 벨룸으로 변천한 것이다(Tatarkiewicz, 1998). 따라서 벨룸은 선과 미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벨룸은 다시 스페인어의 벨로(bello), 프랑스어의 보(beau), 영어의 뷰티풀(beautiful)로 파생되었으며

1) 본 논문에서 미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고찰은 서양 철학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에코(Umberto Eco, 2006)는 “적절하지 않지만 <아름다운>이라는 용어로 번역할 수 밖에 없는 <칼론Kalón>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39)고 하면서 “칼론은 마음에 드는 것, 감탄을 자아내고 시선을 사로잡는 모든 것”(p. 41)이라고 하여 “미는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법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단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p. 41)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단어는 칼로스와 칼론, 풀크리투도(pulchritudo)와 풀케르(pulcher), 뷰티(beauty)와 뷰티풀(beautiful), 명사와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데 명사의 경우는 “추상적인 미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미적 사물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형용사도 비슷하게 사용되었다(Tatarkiewicz, 1998, p. 145). 이러한 미의 명칭의 역사를 요약하자면 미는 아름다운 사물, 색, 형태, 소리, 등을 나타낼 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과 관습까지 포함하고 있었다(Tatarkiewicz, 1998; Eco, 2006). 이렇게 미는 선과 연합하여 정의되어지고 사용되어졌고 현재에까지 그러한 미의 개념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선한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라고 하거나 선한 마음씨를 “아름다운 마음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정의는 후대에 미를 정의하는데 애매성을 초래하였다(Tatarkiewicz, 1998).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미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데 현재에까지 어려움을 남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좁은 의미에서 미의 개념을 사용하기 전에 그리스인들은 눈에 보이는 미를 심메트리아로 귀로 듣는 것을 하르모니아로 구분하여 칭하였지만 점점 협의의 미의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후대에는 두 가지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Tatarkiewicz, 1998). 이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귀로 듣는 아름다움을 구분하여 따로 각각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중세에 와서 미는 정신과 본질과 관련하여 논하여졌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시각예술에 적합한 개념으로 더욱 축소되었다(Tatarkiewicz, 1998). 이것은 현재에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시각에 편중되어 이해되는 것과 같다. 타타르키비츠(Władysław Tatarkiewicz)는 미에 대하여 이렇게 역사적, 철학적 흐름을 개괄하면서 미의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의 미로 도덕적인 미, 윤리적인 측면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는 미를 완전성과 동일선상에 놓는 경우이다(Tatarkiewicz, 1998). 둘째, 순미학적인 측면에서의 미를 말하는 것으로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색, 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되며 이것은 유럽 문화에서 미의 기초가 되었다(Tatarkiewicz, 1998). 셋째, 시각적인 측면에 국한된 미로서, 이것은 오직 형상과 색채에 국한되며 일상어에서만 쓰이게 되었다(Tatarkiewicz, 1998).

그리스에서 정식화되었던 미의 일반론은 비례, 배열, 부분들의 크기와 질, 수량 및 그 상호관계 속에 있었고 “미는 부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치로 표현되어진다”는 양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이 이론은 유럽에서 대이론을 낳았다(Tatarkiewicz, 1998). 이것은 시각예술에서 캐논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법칙, 규범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미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들이 제시<sup>3)</sup>되었으며 그 이후 미

3) 18세기가 되기 전까지 미는 이렇듯 예술과 무관한 상태의 자연의 성질로 간주되었다. 근래에 와서 예술미에 대한 지위는 강화되었고 18세기 미이론은 취미와 함께 상상력이 이상의 지위를 대신하였다. 취미는 미를 인식하고 상상력이 그것을 창조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9세기에 와서는 자연미와 예술미가 존재하며 더 후대에 와서는 미는 예술에만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클라이브 벨은 이 입장을 고수하여 미는 유의

개념 자체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것만 아니라 그 외의 범주도 논하게 되었다(Tatarkiewicz, 1998). 이것은 미에 대한 정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미는 정의할 수 없고 범주를 논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 미의 다양성과 정의 불가능성

앞서 전개된 미의 정의에 관한 철학사적 역사적 고찰은 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는 성격상 다양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행동과 같은 미적 대상뿐만 아니라 자연미, 조형미, 예술미와 같이 미 그 자체도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가 미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 의미는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되어질 수밖에 없다. 미학사를 살펴보면 미의 구분은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미가 발견되는데, 가령 섬세, 우아, 우미 등이 그 다양성의 한 예가 될 수 있다(Tatarkiewicz, 1998). 혹은 감각적인 미와 정신적인 미 등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미의 성질, 혹은 특질로서 심오, 조형성, 숭고, 개성, 영성, 고상함, 매력, 우아, 매력, 등과 같이 방대한 목록으로 열거하기도 하였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Tatarkiewicz, 1998). 계속해서 미의 변형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고 미의 다양성을 열거하는 노력들은 계속되었지만 미의 성질을 완전히 다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미의 다양성은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범주로 칭해져서 19세기 미학자들에게 사용되었고 20세기 미학자들은 미적 범주를 완벽하게 정리하여 미의 전 영역에 걸쳐 망라하고자 하였다.(Tatarkiewicz, 1998). 이러한 노력은 고대부터 있었다. 예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균형에 해당하는 심메트리아, 혹은 기하학적 형식미, 음의 조화에 해당하는 하르모니아 혹은 음악적인 미, 에우리드미아라는 주관적으로 규정된 미가 있었다(Tatarkiewicz, 1998).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의 범주들을 나타내는 명칭들이 엄청나게 열거만 될 뿐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정리할 수 없었으며 범주라고 명칭을 적용하지도 못하였다.

18세기에 와서 범주의 목록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더 많은 범주의 목록들이 등장하였고 어떤 범주들은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었지만 학술용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였다(Tatarkiewicz, 1998).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미를 일관된 하나의 원리를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눔으로써 범주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노력이 있었다(Tatarkiewicz, 1998). 안나 수리오(Anne Souriau)는 새로운 영역은 계속해서 창안될 수 있을 뿐 “미적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도표로 정식화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Tatarkiewicz, 1998, p. 186).

미한 형식이며 의미는 예술가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Tatarkiewicz, 1998).



이렇게 결국 미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고 그 범주도 다양하며 새로운 영역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창안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닿았다.

###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

앞서 미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고찰과 함께 미적 범주의 다양성, 그리고 그 정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그 결과 미는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어질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미에 대한 보편적이고 고정 불변하는 추상적인 성질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미학자들이 미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여 얻은 결론은 그에 대한 정의 불가능성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학생들이 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염두 해야 될 것은 미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에 대해 정해진 개념이나 정의를 미리 상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고정불변한 보편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접근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미리 상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아름다운 것으로 지각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일로부터 출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단순한 경험을 나열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인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미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다가가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였다. 미술교육에서 미학의 이러한 의미와 역할, 성질에 대해서는 앤더슨과 밀브란트(Tom Anderson & Melody Milbrandt), 파슨즈와 블로커(Micvhael J. Parsons & H. Gene Blocker), 그린(Maxine Greene), 듀이(John Dewey)와 같은 미술교육학자들이 논의해왔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술교육에서 미학은 메타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앎, 나아가 깨달음, 깨어있음의 방식이며 방법적인 측면에서 미학은 미술교육에서 미학적 탐구방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Anderson & Milbrandt, 2005; Dewey, 1934; Greene, 1995; 2001; Parsons & Blocker, 1998; Lee, 2011; 2014; 이민정, 2013). 미학의 메타 학문적인 성격은 기존의 미술교육에서 “예술미”나 “조형미”와 같이 미가 접목되어 있는 것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과는 달리 미 그 자체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는 감성적 앎의 측면과 더불어 깨어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앎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앎에 도달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성적인 측면에까지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감성적 앎, 깨어있음, 미학적 탐구 방식, 메타 학문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미학적 접근을 하되, 여기에 개개인이 실제적

으로 겪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논의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접목하였다<sup>4)</sup>.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로서 서사, 허구, 소설을 포함한다(류수열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제한하였다. 개인의 실제적인 경험을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은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목소리에 주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하는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받는 것과 달리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삶과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최예정, 김성룡, 2005, p. 16).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정해진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전수하는 방식에 도전하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해주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이민정,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취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 방법은 학생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들로부터 출발하여 미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케논, 규범, 정의와 같은 절대적인 원리에 도전하게 하고 다름과 차이성의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세계에 참여하게 해 준다.

###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기와 미학적 접근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이나 정의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개인의 경험 속에서 아름답다고 느낀 장면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그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정의하고 의미화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정의해보고 자신이 아름답다고 의미한 것을 반성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가치를 파악하였다. <표 1>은 학생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의미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학

4) 본 연구자의 주된 연구,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 방식”은 연구의 초점에 따라 미학적 접근 방식의 내용을 달리한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자의 기 연구인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광고/상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삶 속의 미학적 접근방법”(이민정, 2015)과는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광고/상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삶 속의 미학적 접근방법”(이민정, 2015)이 기존의 상식에 도전하고 비판적인 깨어남의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학적 접근방식이라면 본 연구는 상식에 대한 도전과 비판보다는 “메타적인 측면”에서의 미학의 성격에 좀 더 집중한 미학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자의 기 논문,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광고/상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삶 속의 미학적 접근방법”(이민정, 2015)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생 JY는 “아름다움이란 다시 보고 싶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이유를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이므로 다시 보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름다움에 대해 메타적인 입장에 서서 생각함으로써 정의를 내려 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는 일은 미학적 접근의 방법의 하나이다.

<표 1> 학생 JY가 선택한 아름다운 대상 및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와 그 이유

| 학생이 찍은 아름다운 장면 이미지                                                                                  | 학생의 스토리                                                                                                                                                                                                                                                                                                                                                                                                                                                           |
|-----------------------------------------------------------------------------------------------------|-------------------------------------------------------------------------------------------------------------------------------------------------------------------------------------------------------------------------------------------------------------------------------------------------------------------------------------------------------------------------------------------------------------------------------------------------------------------|
|                   | <p>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는데 외할머니는 꽃을 사랑하셨다. 그런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언니와 나도 꽃을 매우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나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색소를 이용하여 색을 만들어내고 온갖 장식으로 꾸며낸 꽃집의 꽃들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알리는 길거리의 작지만 강한 생명체인 꽃들이 참 좋다. 내가 찍은 저 꽃은 마지막 남은 꽃이었다. 질어져가는 녹음 속에서 홀로 남은 붉은 영산홍 한 송이는 나의 발걸음을 쉽사리 움직이지 않게 했다. 다시 또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봄날의 끝자락의 마지막 봄 꽃 한 송이는 나에게 지난 봄을 추억하고 다음 봄을 기약하는 것이기에.....가장 적합한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마지막 봄 꽃은 내게 다시 보고 싶은 것 곧 아름다움이기에 마지막 꽃 한 송이를 담아왔다.</p> |
|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와 그 이유                                                                                   |                                                                                                                                                                                                                                                                                                                                                                                                                                                                   |
| <p>아름다움이란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곧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p> |                                                                                                                                                                                                                                                                                                                                                                                                                                                                   |

이렇게 개인이 내린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정되거나 확장되며 더욱 견고해지기도 한다. <표 2>는 JY학생이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가 동의하는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의미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lt;표 2&gt; 그룹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JY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화 과정

| 그룹원들이 아름다움에 대하여<br>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                                                                                                                                                      | 그룹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에 대한<br>나의 생각                                                                                                                                                               |
|---------------------------------------------------------------------------------------------------------------------------------------------------------------------------------------|--------------------------------------------------------------------------------------------------------------------------------------------------------------------------------------------|
| 아름다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의한 첫 번째 내용은 아름다움은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내용은 아름다움은 그룹원 각자 소유의 대상, 감탄이 나오는 대상,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대상, 다시 보고 싶은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 나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의 아름다움에 대한 공통점을 합의하였는데 나는 그 두 가지가 내가 생각한 아름다움에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보고 싶기 때문에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나의 생각과 그룹원들의 의견이 잘 맞았던 것 같다. |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있게 한다. 학생들 개개인이 풀어놓는 자신의 이야기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이나 일방적인 문답방식과 달리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이민정, 2015). 교사가 일방적으로 묻고 학생이 답하는 선적인 대화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대화는 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하여 보다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Thompson & Bales, 1991). 이것은 주제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한다(이민정, 2015). <표 3>은 우연히 같은 장면(<그림 1> 참조)을 아름다움 장면이라고 선택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풀어놓은 다양한 스토리의 예이다. 같은 장면을 아름답다고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그 의미도 제각각 다르다. 학생들은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확인하고 나아가 깊이 있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한다. 데니스톤-트로츠타(Deniston-Trochta, 2003)는 “우리 학생들이 겪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미적 경험은 확인되어야 한다”(p. 105)고 하여 개인이 겪는 미적 경험을 의미화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림 1> 우연히 공통적으로 선택한 아름다운 대상

<표 3> 공통된 대상(<그림 1>참조)에 대한 “미”에 대한 학생들 개인의 스토리텔링

| 학생        | 학생의 스토리                                                                                                                                                                                                                                                                                                                                                                                                                                                                                             |
|-----------|-----------------------------------------------------------------------------------------------------------------------------------------------------------------------------------------------------------------------------------------------------------------------------------------------------------------------------------------------------------------------------------------------------------------------------------------------------------------------------------------------------|
| 학생<br>KS  | 사제 동상은 공주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기념물이다. 인자한 표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책을 보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사,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사제지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사제 동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옆의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가 보였다. 사제 동상과 함께 있으니 서로가 더 돋보였다.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사제 동상에서 떠올린 느낌과 비슷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차별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나무 같이 넓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결같이 우직하게 서있는 저 나무처럼 학생들 뒤에서 우직하게 서서 버팀목이되어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무언가 두드림을 느꼈고 사제 동상과 웅장한 나무의 함께 있는 모습이 그 자체로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다. |
| 학생<br>JCh | 이 나무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크고 정말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이다. 이 나무를 볼 때는 다양한 생각이 든다. 사제동상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뒤에 있는 나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 여름 같은 날에는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한다. 실제로 이 사진을 찍은 후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좋았고, 이렇게 큰 나무가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잠시 과제나 다른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편안함을 느꼈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이 나무를 보면서 내 마음도 움직임을 느꼈다. 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양한 생각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인 것 같다.                                                                                  |

| 학생       | 학생의 스토리                                                                                                                                                                                                                                                                                                                                                                                                                                                                                                                |
|----------|------------------------------------------------------------------------------------------------------------------------------------------------------------------------------------------------------------------------------------------------------------------------------------------------------------------------------------------------------------------------------------------------------------------------------------------------------------------------------------------------------------------------|
| 학생<br>AJ | 주변에 예쁜 것, 멋있는 것은 많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속에서 감탄이 일어나고, 눈길을 계속 잡아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 . . . .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나무였다. 이 나무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있다. 축제기간이면 이 나무 밑에 모여서 먹기도 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면 그늘에 앉아 가만히 사색하기도 했다. 또 이 나무는 면접 때부터 우리학교 정문으로 들어서서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이었다. 이 오래되고 거대한 나무 덕에 공주교대에 대한 첫 인상이 좋았다. 여름에는 우리에게 그늘이었고 시원했다. 가을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는 했다. 사실 이 나무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이지만 오랜 시간, 공주 교대의 역사를 함께해 온 나무이다 . . . . . 사진 속 이 나무는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함께 하면 눈길이 가고, 감탄을 부르는 우리학교의 숨겨진 아름다움이다. |
| 학생<br>PJ |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다보면 이 나무가 항상 눈에 들어왔다. 단순히 나무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이 나무 아래에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 . . . . 이를 보고 나는 나무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른다.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나무가 참 한심해 보였다. 자신에게 득은커녕 항상 빼앗기지만 하는 모습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 특히 교사의 길에 들어선 지금은 나무가 진정 교사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나무의 모습이 나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었다. 항상 주지만 하는 나무 같은 이 직업이 처음엔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언젠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활짝 피울 미래를 생각하며 꽃과 열매를 맺고 의자가 될 준비를 해야겠다.                                                      |
| 학생<br>KM |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우리학교에서 가장 큰 나무인 은행나무에 푸른 잎이 무성하게 돌아났다. 이 나무 밑은 훌륭한 그늘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닥거리는 장소가 된다. 심지어 은행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라서, 냄새도 나지 않는다. 미술시간에 각자 사진을 찍고 시간이 남자, 자연스럽게 모두 이곳으로 모여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자신이 찍은 사진이 무엇인지 이야기도 나누었다. 바람도 적당하고, 너무 덥지도 않았고, 햇빛도 예쁜 날이었다. 아이들과 이 날을 즐기며 나무 아래 앉아 있다 보니, 문득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아름다움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스토리를 주고받음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촉진시키고 그것을 의미화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공통 대상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와 함께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표 4> 참조). 이 과정 속에서 얻는 의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lt;표 4&gt; 공통된 대상에 대한 “미”에 대한 제 각각의 정의들

| 학생        |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                             | 아름다움에 대해 자신이 내린 정의에 대한 근거와 이유                                                                                                          |
|-----------|-----------------------------------------|----------------------------------------------------------------------------------------------------------------------------------------|
| 학생<br>KS  | “관찰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              | 사람들은 보통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거나 어떤 현상이 아름답다고 느끼면 감탄을 하거나 기쁨을 느낀다. 단지 외관상 미적인 것 뿐 아니라 이렇게 관찰자의 마음을 두드리며 마음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라 생각한다. |
| 학생<br>JCh |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양한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것” | 보았을 때 여러 생각이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사람들마다 이 나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학생<br>AJ  | “감탄을 자아내고 눈길을 끄는 것”                     |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쁘거나 멋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던, 풍경이던 아름다움을 볼 때면 우리는 겉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속으로 감탄을 하며, 눈길을 떼지 못한다.                                |
| 학생<br>PJ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 아름답다는 말은 예술작품을 볼 때뿐만 아니라 보고나서도 오랜 여운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거나 마음을 변화를 일으켜 쉽게 잊지 못 하게하기 때문인 것 같다.                  |
| 학생<br>KM  | “감상자가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는 것”                   | 아름다움은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상자 개인이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때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표 5>는 학생들 간의 스토리텔링의 통하여 자신이 내린 아름다움에 대한 생 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장면을 찍은 학생들은 함께 모여 그룹을 이루고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장면이지만 제각각의 다른 스토리를 주고받는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각각의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하여 공통점을 찾아보며 의미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표 5> 학생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생KS의 “미”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의미화의 과정

| 학생들 간의 스토리텔링                                                                                                                                                                                                                                                                                                                                                                                                                                                                                                                                                                                                                                                                                                                                                                                                                                                         |
|----------------------------------------------------------------------------------------------------------------------------------------------------------------------------------------------------------------------------------------------------------------------------------------------------------------------------------------------------------------------------------------------------------------------------------------------------------------------------------------------------------------------------------------------------------------------------------------------------------------------------------------------------------------------------------------------------------------------------------------------------------------------------------------------------------------------------------------------------------------------|
| <p>학생 KM: (나무 밑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진) 바람도 적당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햇빛도 예쁜 날에 아이들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 보니, 문득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찍었다고 한다.</p> <p>학생 J: 이 나무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사제 동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뒤에 있는 나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 여름날에는 그들이 되어 주기도 하는 이 나무가 좋았고, 이렇게 큰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잠시 과제나 다른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p> <p>학생 A: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고 느끼긴 쉽지 않은데 이 사진 자체는 아름답다고 하기 힘들지만 지금까지 학교 생활 중 이 나무는 봄과 여름에는 푸른 그들이 되어주고 가을이 되면 웅장하고 거대한 노란빛을 띤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 나무는 우리 학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긴 역사를 함께한 나무이고 사진에 담기 힘든 진가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했다.</p> <p>학생 P: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 이 나무가 항상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 나무가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이 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 쉬고 있었기 때문이며 볼 때마다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올랐다고 한다.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가 진정한 교사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항상 주기만 하는 이 직업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나무를 보며 학생들에게 희생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p> |
| 학생들 간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의미화 과정                                                                                                                                                                                                                                                                                                                                                                                                                                                                                                                                                                                                                                                                                                                                                                                                                    |
| <p>학생 KM: 아름다움이란 감상자가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 아름다움은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상자 개인이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때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학생 J: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양한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 보았을 때 여러 생각이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사람들마다 이 나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학생 A: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눈길이 가는 것 / 단순히 예쁘고 멋진 것을 넘어서 아름다운 것은 걸로 드러나든 속으로든 감탄을 하게 되고 눈길이 그곳으로 자꾸 향하기 때문이다</p> <p>학생 P: 아름다움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 아름답다는 말은 예술작품을 볼 때 뿐만 아니라 보고나서도 오랜 여운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거나 마음을 변화를 일으켜 쉽게 잊지 못 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p>                                                                                                                                                                                                                                                                               |
| 대화를 통하여 도출한 공통점                                                                                                                                                                                                                                                                                                                                                                                                                                                                                                                                                                                                                                                                                                                                                                                                                                                      |
| <p>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았다. 감상자가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거나 편안함을 느끼거나 감탄을 하는 등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동의했다.</p>                                                                                                                                                                                                                                                                                                                                                                                                                                                                                                                                                                                                                                                                                                                                                                    |
| 대화를 통한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 변화                                                                                                                                                                                                                                                                                                                                                                                                                                                                                                                                                                                                                                                                                                                                                                                                                                                |
| <p>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다양해졌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조원들이 모두 같게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즐거움, 쾌감, 편안함,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상상, 감탄등 여러 가지 형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아름다움이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다.</p>                                                                                                                                                                                                                                                                                                                                                                                                                                                                                                                                                                                                                                                                                  |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아름다움이라는 정의를 획일화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양한 생각들이 어떻게 소통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상호존중, 배려와 같은 인성적인 측면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표 6>은 이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존중”, “배려”, “인정”과 같은 인성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6> “아름다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알게 된 점과 인성적 측면

| 학생   |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 인성적인 측면                 |
|------|-----------------------------------------------------------------------------------------------------------------------------------------------------------------------------------------------------------------------------------------------------------------------------------|-------------------------|
| 학생KM | 시각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가 모두 아름다움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다름의 인정                  |
| 학생KS | 아름다움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의 생각에 의미가 있고 맞다고 느끼며 동의했다.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 다름의 인정                  |
| 학생YS |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르고 다양하므로 그것을 인정해야한다.                                                                                                                                                                                                                                          | 다름의 인정,<br>존중           |
| 학생OE | 활동을 통해 개인마다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다양하다고 느꼈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 공감할 수는 없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 또한 아름다움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존중<br>자아성찰              |
| 학생KK |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분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어떤 공통된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진리인 냥 다른 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다름의 인정,<br>존중,<br>배려    |
| 학생PE | 정해진 공간 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장면이 각각 다르고, 비슷한 장면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해도 사람마다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 이유가 다르다고 해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의견을 공유하여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편향된 관점이 아닌 다양한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다름의 인정,<br>상호 존중,<br>배려 |

##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의 기초개념 중의 하나이자 오랜 미학적 전통에서의 주된 주제였던 “미”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미의 양상을 통하여 의미를 읽어내고 논의하는 미학적 접근방식을 취하여 다루어보았다. 미술교육에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활동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미, 자연미, 조형미 등 미적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 전개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접근 방법은 아름다움에 대한 확실적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며 메타적인 위치에서 미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가운데 철학적인 사유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상호존중, 인정, 배려와 같은 인성교육의 함양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많은 미학자들이 연구해왔듯이 그것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그것의 완성된 범주를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의 범주는 개별적인 경험이나 시대와 장소 등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형될 뿐이다. 미학적 방법을 통하여 정의 불가능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은 개개인이 정의할 수 있는 미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된다. 이러한 미학적 접근 방식은 메타적인 위치에서 미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자가 생각하는 미가 다른 사람이 정의내린 미와 같을 순 없지만 모두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의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아름다움에 대하여 각자가 다르게 정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소통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아름다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느끼면서 그것이 바로 예술교육에서 지향하는 감성과 닿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실천적인 접근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미학적 접근 방식은 얕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론적 지식을 통한 통로를 거쳐야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서 지향하는 지점과 그 실천적 지점이 지식 이론적 접근과는 다르다는 인식론적 가치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류수열, 유지은, 이수라, 이용욱, 장미영, 주경미 (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 이민정 (2013). 지각의 변증법적 이미지 사유를 통한 미학적 접근 방안. *미술교육논총*, 27(1), 1-24.
- 이민정 (2015).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광고/상업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삶 속의 미학적 접근방법.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6(3), 19-39.
- 최예정, 김성룡 (2005).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서울: 글누림.
- Anderson, T., & Milbrandt, M. K. (2005).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 Boston: McGraw-Hill.
- Deniston-Trochta, M. G. (2003). The meaning of storytelling as pedagogy. *Visual Arts Research*, 29(57), 103-108.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NY: Perigee Books.
- Eco, U. (2006). *미의 역사*. (이현경 역). 경기도 파주: 열린책들. (원저출판, 2004)
- Greene, M. (1995). *Releasing the imagination: Essay on education, the arts and social chan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reene, M. (2001). *Variations on a blue guitar: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lectures on aesthetic education*.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Lee, M. (2011). *Aesthetic education for children in public/in-between space: happiness and identity*(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 Lee, M. (2014). The Meaning of Paulo Feirie's Common Sense in aesthetic education.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5(3), 61-78.
- Parsons, M. J. & Blocker, H. G. (1998). *미학과 예술교육*. (김광명 역). 서울: 현대미학사. (원저출판, 1993)
- Tatarkiewicz, W. (1998).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용대 역). 서울: 이론과 실천. (원저출판, 1975)
- Thompson, C. M., & Bales, S. (1991). Michael doesn't like my dinosaurs: Conversations in a preschool art class. *Studies in Art Education*, 33(1), 43.
- NCIC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1997).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 <http://ncic.re.kr/>에서 2018. 09. 09에 인출.
- NCIC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07).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http://ncic.re.kr/>에서 2018. 09. 09에 인출.
- NCIC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15).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http://ncic.re.kr/>에서 2018. 09. 09에 인출.

## Abstract

### An Aesthetic Approach through Storytelling about Beauty in Art Education

**Min-Jung Lee**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esthetic approaches in art education to access the idea of “what is beauty?” through storytelling as beauty has long been the main subject of aesthetics and a fundamental concept of art education. Aesthetic approaches put us in the position of meta, which means being awakened by investigating the main themes of aesthetics. The aesthetic approaches to beauty through storytelling promote our philosophical thinking and rumin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the beauty that has spread out variously in our concrete lives. Furthermore it makes us expect holistic education in the process, where we enjoy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and then respect and accept the differences of one another. This approach enables us to learn epistemological values in aesthetics that differ from those in theoretical approaches.

## 학교 미술교육과 지역연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sup>1)</sup>

최성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 요 약

---

본 연구는 초·중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미술 교육의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문헌조사와 면담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학교 미술교육 관련 지역연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 미술 교육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지역연계는 마을 공동체와 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에, 학교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연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미술과 관련된 지역연계를 실행하고 있는 초 중학교의 교사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역연계 담당 장학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학교미술교육 관련 지역연계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연계의 시작은 시스템보다는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왔고, 대부분의 초등교사, 중등 미술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해당 교과내용과 지역을 연계하고 있었고, 지원받는 예산의 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부터의 지원은 공문, 마을 자원지도 및 책자를 통한 정보 연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버스이용을 통한 물적 연계, 예술 강사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적 연계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술 교육 협력 체제 개발을 위해 두 가지 모델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 협력 모델과 교육지원청·문화재단 중심 협력 모델을 제안하였고, 둘째, 효과적인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을 제시, 셋째, 학생 참여 모델 및 학생 주도 모델로 운영되는 지역축제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

### 주제어

지역연계(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art education), 교육과정 재구성(curriculum reconstruction)

---

1) 본 연구는 이승미 외 3인 (2017)이 저술한 연구보고서 “학교 체육·예술교육의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초·중학교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초·중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미술 교육의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학교 미술교육 관련 지역연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 미술 교육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예술 교육에서 지역은 교육적 변화가 실행되기 위한 장으로서 지리적 경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공통적인 유대와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특히, 미술교육에 있어서 지역은, 삶의 현장으로서의 지역, 지역에 바탕을 둔 지역예술가들과의 협업, 지역에 기반한 문화재단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염두에 두었을 때, 지역이 공간적 지리적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과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지역은 지역중심 미술(community-based art)운동의 토대가 되는 지점으로 인식·연구되어져 오거나,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있는 문화적 예술적 자산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져 왔다(김형숙, 2009; 노병일, 전영신, 2004; 박신자, 2010; 이미정, 2017; 안인기, 2013; 정병흠, 2016; 진은정, 2015). 이러한 접근에서 지역과 학교 예술 교육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탐색되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지역은 대안 공간으로서 학교 예술교육에서 실행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교육을 새로운 방법으로 탐색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지역예술교육이 학교예술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 인식된 후,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도 행해졌는데, 한국문예진흥원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행해지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정문선 모경환, 석문주, 김해경, 박새롬, 2012; 정문선, 유지은, 전영은, 박새롬, 2014; 진은정, 2015).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자가 제한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 수업의 주체로써 교사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예술 교육과정의 질적인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지역연계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지역연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실질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지역연계를 실행하고 있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는 것이 연구 시작의 어려움이였다(노정길, 2015; 이현정, 김선아, 2018).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교육과정을 만

들고 학교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는 시점에서 (김성훈, 김사훈, 2017; 조윤정, 2018), 학교 미술 교육이 지역과 연계해 나가는데 어떠한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 또한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미술과 관련된 지역연계를 실행하고 있는 초 중학교의 교사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역연계 담당 장학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학교미술교육 관련 지역연계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면담 교사의 경우 시·도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추천을 받아 지역, 학교급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장학사의 경우 면담 대상 교사의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을 일부 포함하여 지역의 위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학교 미술 교육을 실천적으로 지역과 연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3명, 중등 교사 2명,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과 면담을 수행하였다(<표 1> 참고).

<표 1> 면담조사 연구 참여자

|     |         |       |                          |
|-----|---------|-------|--------------------------|
| 교사  | E 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일회성 체험이 아닌 현장학습의 가능성     |
|     | F 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박물관 미술관 방문을 교육과정안에서 운영   |
|     | G 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 드림학교 운영                  |
|     | H 중학교   | 광주광역시 | 학교를 마을로                  |
|     | I 중학교   | 충청북도  | 사진수업을 중심으로 한 드림학교 운영     |
| 장학사 | L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 | 교육지원청이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 체계 구축 |
|     | M 교육지원청 | 충청북도  | 교육지원청은 교육청과 학교를 매개하는 역할임 |

면담은 다음의 <표 2>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60분-15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음성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를 옮기는 형태로 전사되었으며, 귀납적 범주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lt;표 2&gt; 학교 미술교육에서 지역 연계 관련 면담 내용

| 구분                     | 면담 내용                                                                                                                                                                                                                 |
|------------------------|-----------------------------------------------------------------------------------------------------------------------------------------------------------------------------------------------------------------------|
| 학교 예술교육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 및 지원</li> <li>-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li> <li>- 학부모와 학생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li> </ul> </li> </ul> |
| 지역 연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실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인식 정도 및 활용</li> <li>• 지역 자원(물적, 인적, 정보)의 활용 정도 및 방법</li> </ul>                                                                                             |
| 지역 연계에 대한 지원 실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지원 정도 및 방법, 협조 과정</li> <li>• 학교 관리자 및 동료 교사의 지원 정도 및 방법</li> <li>•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 획득 방법</li> </ul>                                                            |
| 지역 연계 운영에서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연계 운영에서의 어려움</li> <li>•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지원 주체별, 지원 유형별)</li> </ul>                                                                                                    |

### Ⅲ. 학교 미술교육에서 지역연계 실행의 실태 및 어려움 탐색

초 중학교 교사의 면담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 연계의 시작’, ‘지역 연계의 현황 및 특징’, ‘지역 연계실천의 어려움’이라는 총 세 가지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 1. 지역 연계의 시작

지역 연계의 시작은 교사와 교장 등의 관리자 그룹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 본인이 지역 연계 활동의 주도적 인물이었음을 말하기도 하였고, 지역 연계를 실천하게 된 계기로 교장과 같은 관리자의 요청에 지역 연계와 관련된 사항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이어 해당 활동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지역 연계의 시작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 가. 교사주도: “지역에서 놀자”

미술관련 지역 연계의 시작은 적극적인 교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 경력 15년의 김○○교사는 지역 연계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적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가 느꼈던 비참함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입시미술에 치중되어 있는 예술고의 현실이 어떤 전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많이 부딪힘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 또한 저도 이제 교사가 된 것이지 입시미술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미술교사가 애네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던 계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들하고 ‘야 우리 미술 전공자인데 미술전공으로서 우리가 뭔가 지역 사회에 뭔가 환원할 수 있는 우리 의의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 지역사회 낙후시설을 찾아다니면서 하게 된 벽화 봉사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2017. 8. 2. 전문가 협의회 김○○ 교사 (H 중학교)

진정한 미술 수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 미술전공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풀어내 보고자 한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지역 벽화활동은 첫 번째 부임지였던 예술고를 떠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옮겨서도 지속된다. 미술전공자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지역 연계활동을 지속한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이유를 말해준다.

그 당연히 인문계는 공부가 목표이고, 비전이고 공부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아이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수업시간 절반은 잠을 자고 있고 수학 시험을 볼 때, 5분 만에 찍고 80프로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처음에 이 인문계 아이들이 어 ... 수업태도,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삶의 의지력 이런 것들이 정말 미약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이 아이들한테 그림 미술이 뭘 깨우쳐줘야할까 ...

2017. 8. 2. 전문가 협의회 김○○ 교사 (H 중학교)

김○○교사가 주도한 지역 연계의 모습은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끌어 내어 주고 싶은 열망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교사 주도 + 관리자의 의지: 문화소의 극복에의 의지

김○○교사의 경우, 학교의 관리자들이 학교 밖 지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안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학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단체가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과 대내외적 성과와 평가들에 의해 학교가 김○○교사의 지역 연계 활동에 우호적으로 돌아선 반면, 이○○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지역 연

계 활동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전 학교의 관리자에게 비난을 들었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로 초빙되어 체험활동 부장을 맡고 현재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역 연계활동을 주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교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리자의 후원의 의지가 같이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교사는 왜 지역 연계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복지비용이 17.1%로서 문화소외가 극심한 지역에 부임한 이○○교사는 학생들의 문화소외 현상을 지역 연계를 통하여 극복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가 첫 부임지가 ○○초등학교예요. 애들은 참 곱게 커서 착한데 ... 이기적으로 착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리로 넘어오면서 착한데 거칠어요. 거친데 문화적 소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데려간 적도 없고 ... 그럼 내가 애네들이랑 다니면 참 좋아하겠네 라는 걸로 시작했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 좋아지기도 하고 그걸 기다리니까 그 기대를 통해서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 문화소외를 제가 어느 정도 부분이 해소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점? 그것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거 같아요.

2017. 7. 20. 전문가 협의회 이○○ 교사 (E 초등학교)

한편, 전교생이 ○○에 불과한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송○○교사는 예술드림학교 공모신청으로 미술과 관련한 지역 연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송○○교사 역시 문화적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의 상황을 타개한 보고자 학교 주도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혜택을 학생들의 문화 예술적 삶의 질 향상으로 이끌어 보고자 한 경우로, 교사가 주도했지만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하여 지역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사실 예술 드림학교의 성격에 대해서 공문 그것만 딱 보고 모르거든요. 몰랐었어요. 사실은 ... 뭐 단순한 생각에 거기가 벽지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문화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전무하다고 봐야죠. (전무가 맞겠죠.)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려면 못해도 한 20-30분씩 이동을 해야 되고 버스도 하루에 3번 와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술드림학교라든가 사업을 끌어오지 않으면 또 학교의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예산규모도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 그래서 우리학교에는 아이들에게 뭐 좀 해 주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교사 (I 중학교)

이 두 경우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교사 개인의 관심, 특기, 취미, 대학원 전공 등과 관련된 활동들에서 지역 연계 활동을 시작한 공통점을 볼 수 있었다. 이○○교사는 대학원에서 박물관 교육을 전공하면서, 전공지식을 발휘하여 지역 연계활동과정을 조직하였고, 송○○ 교사는 미술교사가 아닌 과학교사로서 취미로 사진을 배우면서 습득하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연계 지역 연계 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관리자 주도: 학교주도의 문화 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위의 두 경우와는 다르게, 교장과 같은 관리자 그룹이 교사들에게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펀딩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교사가 이에 수긍하면서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

[시작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지도자의 의지겠죠. 저희 교장선생님이 작년 9월에 오셨거든요. 그게 되게 강하셔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인성교육이나 이런 예술이나 이쪽으로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라서. [아주 조용한 학교였는데] 그냥 그랬는데 이제 학교 인원수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 학교는 막 ... 교육청에 계셨었어요. 교육청에 계시고 그 전에는 교감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그런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학교로 오시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도자 의지가 정말. 어른의, 관리자의 의지가 되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2017. 8. 3. 전문가 협의회 강○○ 교사 (G 초등학교)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이때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음악 그거 이제 보조금 따오셔서 음악을 하겠다 바이올린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되게 반대가 많았거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 저는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몇 년 일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거 같더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때도 교육과정 부장을 ... 이때 한 몇 년 하던 때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미술관 같은 거. 조그만 것들 항상 보니까 학교 주변에도 조그만 게 많으니까 좀 이것을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선생님께,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꺼려하시는데, 흔쾌히 또 한번 추진해보라고 말씀해 주셔서가지고 추진하게 됐어요.

2017. 8. 11. 전문가 협의회 박○○ 교사 (F 초등학교)

학교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관리자의 요청으로 여러 사업들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드림학교나 거점학교의

공모를 통하여 지역 연계를 시도하기도 하였고,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던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학교의 특색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교 주변 지역의 작은 박물관 미술관들의 존재를 눈여겨 본 해당 교사가 박물관 방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2. 지역 연계의 현황 및 특징

가. 시스템보다는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짐

미술과의 지역 연계는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때, 개인은 관리자, 교사, 학부모 등을 의미한다. 지역 연계가 개인적 영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개인이 관련 정보를 찾고, 활동을 구축하며, 필요 인력을 모집하고, 실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교장, 교사, 학부모와 같은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차후 두 가지 방향을 의미한다. 추진의 주체가 사라지면 활동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진의 주체가 사라진다 해도, 추진의 주체였던 개인이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시도했던 경우라면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교사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지역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교육부, 해당구청으로부터의 조직적인 도움이나 체계 없이, 관심이 있는 교사가 편당을 위한 공모, 정보의 서치,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실행 등의 모든 과정을 개인적인 인력의 동원이나 개인적인 정보의 축적, 노하우 등에 의지해 개인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에 제가 담당하기 전에 이제 부장님이 있어요. 그 부장님이 아마 ○○여대를 직접 찾아가신 거 같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도와주시면 안되냐고 ... 아예 그냥 무작정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저희 학교랑은 4, 5년째 계속 맡아주고 계세요. 교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건 ○○여대 안에 놀이치료방이 있데요. 근데 몇몇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위센터 그 좁은데서 이런 기구들도 활용하면서 해주고 싶는데 이 놀이치료반까지 갈 수가 없더라구요. 이유는 안전문제. 누군가 책임져줄 수 없는 문제.

2017. 7. 20. 전문가 협의회 이○○ 교사 (E 초등학교)

또는 개인에게 오랜 시간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분야의 활동 노하우가 쌓여 있어, 그 노하우를 다른 교사 또는 초임교사에게 전수하는 형태로 개인이 주도하는 지역 연계가 지속성을 띠게 되기도 하였다.

전 그전에도 어차피 [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들] 다 봤던 거라서 ... 교장쌤은 그걸 안내하라는 거고 결국은, 이 교육과정은 되다 말아가지고 지금 ...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됐습니다. 가능하면 질문이 있는 교실 뭐 그런 것처럼, 계속 만들어보기를 하고 있어서 힘들어해요 애들은 사실은 ... 적어야 되니까.

2017. 7. 20. 전문가 협의회 이○○ 교사 (E 초등학교)

#### 나. 교육과정 재구성인 것과 아닌 것

지역 연계활동은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교과 재구성의 측면에서 교과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면담을 했던 5개 학교 중, 이미 지역 연계를 실시하고 있던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재구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역 연계 예산 편성이 늦게 결정되어 교과안으로 활동을 재구성할 수 없었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 연계 활동은 방과후학교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담당 교사 개인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교과를 재구성하기 어려운 중등학교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교과의 내용 안에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 한 예로,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지역 시장의 문화운동과 연계하여 갤러리에 전시하거나 지역의 문화회관에 한 학년의 수업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역 연계의 담당이 미술교과가 아닌 중등교사의 경우, 자신의 과목과 미술과의 내용을 재구성하기는 어려웠고, 그로 인해 정규수업과 특별활동 수업 사이에서 갭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행사를 계속하다보면 그러다가 이제 수업시간에 와서 수업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수업을 할려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거를 예전엔 당연히 해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행사를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하기를 이제 싫어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구요. 저도 놀랐어요. 그냥 노력활동하고 뛰어놀고 같이 활동하고 만들면서 그 다음에 가서 구경하고하는 그러한 교육과 그 다음에 딱 앉아서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설명할 때 그걸 가만히 듣고 싶겠냐 이거죠. 지금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재밌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카페 같은 거 이거를 한단 말이죠. 책을 읽고 발표하는 그것도 사실은 수업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어떤 저녁에 북카페 한다, 뭐 행사 한다 그러면 선생님 수업 안 해요 이렇게 얘길해요. 왜, 애들의 수업이라는 개념은 ... 선생님이 와서 짜악 설명하고 이론에 대해서 저기하고 수학공식 풀고 하는 게 공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활동 위주의 공부는 사실은 공부라 생각하질 않고 있다는 거죠.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교사 (I 중학교)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서 송○○ 교사는 교수학습방법의 문제의 맞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서의 평가의 문제가 중학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체험 위주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학교가, 사실은 이거는 우리학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현재에 그 ...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장체험학습. 프로젝트형 수업. 그런 부분들과의 괴리감이 ... 있는 거예요. 어떤 괴리감이냐면 평가에서의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정관념이 고3담임만 8년 이상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수업의 초점은 애들 좋은 대학이예요. 제 관점은. 그러다보니까 애들 이렇게 수업을 해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에 대한 정의라던가, 문제풀이라던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교사들도 현실적인 아이들이 부딪쳐야 될 고등학교 또 대학진학이란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합교과적인 현장체험학습적인 그러한 수업의 방식과 과연 맞겠느냐 이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직 안 맞거든요. 평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가서 봐야 되는 게 대학진학인데.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 교사 (I 중학교)

사진 수업을 통한 지역 연계를 통해, 벽지 학교의 문화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했던 송○○ 교사에게 지역 연계 수업을 교과에 접목하는 것은 전체 교사들에게 너무 큰 업무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기에, 현장에서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중등학교이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수업 손실의 염려 때문에, 정규 수업과 분리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원과 같은 다른 대안 학습이 존재하지 않는 벽지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식의 전달 방식보다 내용에 우선권을 두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 다. 예산의 형태가 다양함

지역 연계를 가능케 하는 예산의 형태는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은 특별한 사업 예산 없이 해당 교육청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예산을 사용하였다. 즉, ○○지구 교육청에 배당된 교육혁신지구 예산에서 여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공모해 지원받았고, ○○구청의 ‘창의버스’ 지원과 마을결합형 ○○구 혁신지구 예산에서 지원받았다. 2017년에 선정된 드림학교 예산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에서 지원 받고 있다. 특별한 사업의 지원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 대학교, 지역 아동단체와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예산의 집행은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에 체류할 동안 점심식대 지불과 초임 교사들을

위한 박물관 입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교육 길라잡이 같은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 연계를 위한 예산의 책정과 집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라. 구청,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지원

#### ① 공문

이러한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지원으로 가장 먼저 공문을 통한 정보의 제공을 들 수 있었다. 지역 연계 담당 교사들은 주로 시·도 교육청과 구청이 보내는 공문을 통하여 프로그램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서를 쓸 때 그러면 이제 어디 언제 날짜를 잡고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쪽 보거든요. 보다 보면은 아 무슨 공문에서 그런 안내가 있지 어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어떤 프로그가 있는지 들어가 보면 책자 찾아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적당한 날짜, 아 이거 우리학교에 넣으면 좋겠다 하면 집어놓고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니면 교육부에서 오는 것도 예를 들어 두드림이라는 과학재단에서 어떤 공문 같은 거 오면 대전과학관. 공짜네, 애들 활동하면 좋겠다 그거 보면 거기에 이제 협의회 ... 계획서에 넣어서 실행을 하고, 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공문에 의해서 많이 ...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 교사 (I 중학교)

#### ② 버스

서울 ○○구에서 운영하는 창의버스는 학교가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으로 학생들을 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는 이러한 창의버스의 도움이 실질적인 기획의 큰 도움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음 ... 이게 처음 콜럼버스는 이제 처음 시작이나 지금이나 운영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전학년 다 1~6학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2013년에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예산이 따로 없고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따로 수익자부담을 안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 그 정말 1,2학년은 그냥 근처에 있는 저희 동네 백사실이라고 있거든요. 계곡 같은 데인데 거기 가서 갔다 오는 걸로 하고, 뭐 ○○미술박물관 ○○박물관 이런 식으로 조금 학년별로 약간 차등을 줘서 진행을 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찾은 자료는 2015년에 있었어요. 이게 ○○구에서 창의버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박물관을 이렇게 관내사립박물관 나들이라고 이렇게 서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이제 차도 보내주고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비도 주고 ... 이런 프로그램이 생

겨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올해 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받아서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받으면 아이들 이제 ... 좀 그 전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만 가다가 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요.

2017. 8. 11. 전문가 협의회 박○○ 교사 (F 초등학교)

창의버스는 버스라는 이동수단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 리스트를 지원했고, 거기에서 각 박물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볼 수 있었다.

이제 ○○구 지원이 다보니까 ○○구에 있는 그 리스트를 꼭 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어 선택을 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전에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거기도 어디선가 보조를 받겠죠,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도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갈 수 있는 박물관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2017. 8. 11. 전문가 협의회 박○○ 교사 (F 초등학교)

### ③ 마을자원지도 및 책자

공문 이외에 해당기관들은 활용 가능한 지역 연계 책자 같은 것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박○○ 교사는 책자의 유용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이○○ 교사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교과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기에, 특화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문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 구청에서 만든 그런 책자 같은 것들 그런 거 보내 주거든요. 구청에서 이제 뭐 우리 지역이 워낙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자를 매년 보내줬던거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인터넷 같은 거 ... 두껍진 않은데 활용하라고 이런 책자가 왔거든요. 그런 책자 보고서는, 삼청동쪽 많이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무슨무슨 박물관이 있다 거기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정보가 나와있는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박물관 소개가 나오면은 아 여기 뭐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고 ...

2017. 8. 11. 전문가 협의회 박○○ 교사 (F 초등학교)



서울창의체험 지하철로 버스로 떠나는 창의체험 뭔가 있어요. 5권짜리예요. 거기에  
는 권역별로 나와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역 연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  
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만한 작은 책자 5권으로 나눠 담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학년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게 좀 덜 드러나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게 너무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내 권역의 너무 멀어 ... 조금 더 특화된 걸 찾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보  
는 간송 ... 요만큼 이렇게 나와 있고 가구박물관 이렇게 ... .

2017. 7. 20. 전문가 협의회 이○○ 교사 (E 초등학교)

#### ④ 예술강사의 지원

예술강사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쪽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  
구의 경우 ○○구에 거주하는 예술가들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격을 갖춘  
예술강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인력풀을 이용하기보다, 웹사이트  
의 구인 구직란을 통하여 강사를 모집하거나, 전공별 협회에 연락을 하거나,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강사를 수급하고 있었다.

이거는 예술강사는 이쪽은 전혀 [구청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강  
사 공고를 낼 때에는 ] 학교홈페이지하구요 교육청 구인구직란, ○○시교육청하고  
아마 ○○지원청에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올리는 강사같은 거 모집할 때 올리는 란  
이 있어요. 구인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본청 지역청 학교홈페이지 이렇게 올리  
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학기 이제 초가 되면 엄청 바쁜거죠 강사  
를 다 뽑아야 되니까.

2017. 8. 11. 전문가 협의회 박○○ 교사 (F 초등학교)

(네. 그 인력 아까 이제 뭐 인력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력풀은 교육  
지원청이나 도움 많이 받으시나요?) 어 ...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교대에 미술을, 미술교육과를 나오고 또 제가 원래 미  
술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학교별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  
님들에 대한 정보도 좀 있고 그런 걸로.

2017. 8. 3. 전문가 협의회 강○○ 교사 (G 초등학교)

### 3. 지역 연계 실천의 어려움

가. 미술관련 지역 연계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미술과의 지역 연계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 밖 지역사회의 시설에 데리고  
가서 행해지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역 시설에 데리고 가는 이동수단에  
수반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밖의 안전사고는 누구에

게나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스운영의 도입을 위한 예산이 절실히 요구되나, 이러한 예산 확보가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확보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문을 통해 지역 연계에 대한 공문을 동일하게 받는데,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경우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이는 버스대절을 위한 예산의 부재나 안전문제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었다.

저희학교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거기서 공모사업 ... 공문이 오면은 대상이 쪽 적혀있고 방법이 적혀있고 날짜가 있어요. 소규모 학교는 버스 지원 ... 지원받아서 거기서 버스가 오면 그거타고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이 좋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버스를 갖다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우리가 그 ... 경비를 지불하고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공짜로 주는 곳은 받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버스 대여를 해서 ... 갔다 오고.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 교사 (I 중학교)

#### 나. 교육지원청의 미비한 지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면담 참여자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저는 교육지원청과는 한 번도 통화를 해 본적이 없고요. [통화는] 교육청이랑 해요, 저희는 시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줬거든요. 이거는 ○○ 교육지원청이랑 상관없이 바로 여기 창의인성과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데, 딱 한 번 통화했는데, 저희 이 예산으로 시설 설비나 이런 거를 하면 그거는 상의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그림을 거는 곳이 너무 어두워서 레일등을 설치할 해도 되겠느냐고 그것 때문에 통화 딱 한 번.  
2017. 8. 3. 전문가 협의회 강○○ 교사 (G 초등학교)

상호간에 교육지원청은 사업의 매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네, 그런 건 없죠. 그냥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거는 [드림학교] 지금 교육부 문화예술지원사업이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지역청으로 이렇게 공모합니다 하고 내려주면 그냥 지역청에서도 학교 쪽으로 그냥 그거 공문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그냥 올려주면 지역청에서는 그냥 그중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시교육지원청에서 뭔가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 교사 (I 중학교)

앞서, 미술교사 대상 면담 조사에서 미술교사들은 교육지원청의 미비한 지원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불만과 요구를 하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사업의 매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충북 소재 I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데에 동의한 반면, 서울 소재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교육지원청의 개입으로 많은 지역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 장학사가 근무하고 있는 L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협력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 연계 학교 예술교육은 예산 집행을 위한 매개의 역할이 아닌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단체 및 대학의 예술 콘텐츠를 학교 교육에 접목'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L 교육지원청은 지역 예술 교육자원과 학교 예술교육 수요 매칭 및 프로그램 지원, 지역 연계 학교 예술교육 협의회 운영, 지역으로 떠나는 교원 예술여행,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프로젝트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예술과 어울림'과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특히, 수요매칭프로그램은 정○○ 장학사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학교에다가 수요요청을 먼저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어요. 어쨌든, 학교에서 어떤 예술 그 지역 연계 예술교육 사업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학교들이 오케스트라 지원을 받고 싶다. 뭐 연극 지원을 받고 싶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가지고 뭐 영화, 연극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그 단체 중에서 협동조합이 있어요. 예술가 협동조합. 거기랑 약간 MOU를 맺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12차시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는 데.

2017. 8. 1. 전문가 협의회 정○○ 장학사 (L 교육지원청)

수요조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지역예술인과 연계되어 하나의 수업으로 탄생하고, 그러한 수업은 학교에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보급된다. 교사들은 어떠한 행정적인 부담 없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고, 지역 예술강사들은 학교로 파견되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거는 단독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융합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뭐 연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애들이 옷도 제작을 하면서 그 미술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뭐 ○○ 패션왕이라고 해서 나중에 막 패션쇼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는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할 수, 하실 학교들 신청하시라고 하니가 되게 반응이 좋아서 많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

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꼭 보급을 해 드려요. 이거는 뭐 학교에서 전혀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부담 없이 강사 자체를 그냥 학교로 꼭 이렇게 보내드리고. (프로그램도 보내는 거죠) 네, 프로그램도 보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선생님들끼리만 짜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이제 이 학교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그리고 뭐 수업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짜진, 대강이 아니고 지금 드린 그 안이거든요.

2017. 8. 1. 전문가 협의회 정○○ 장학사 (L 교육지원청)

#### 다. 시스템의 부재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과의 지역 연계 특징에 대하여서는 앞장에서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직적인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사라지거나 활동을 멈추었을 때, 학교 단위로 또는 지역단위로 해당 정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사진으로 지역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였던 교사가 추진과정에서 직면하였던 어려움으로는 사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자재의 구입, 즉 사진기와 암실 꾸미기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말하며, 기자재 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으로 예산을 쓰기를 권장하던 예산집행부서와의 갈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 그런 ... 그럼 만약에 내가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혹 떠나버리면 이제 졸업앨범이라든 기타 등등 제가 없이는 못한다라고의 개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 옆자리 선생님은 저랑 사진 동호회 회원이에요 그 분은 저보다 사진 더 잘 찍어요. (그럼 선생님 가시면은 그분이 맡아서 하시고.) 그럼요. 그것도 만약에 어떤 다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뭐 사진기 아무것도 없어 ... 또 처음부터 저처럼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꼭 갖춰져 있으면 찍지 못해도 어 이거 있네. 그러면 또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게 또 4년간 이어왔다보니까 사진반이 계속 이제 픽스되거든요. 이어가고 넘겨주고 이어가고 넘겨주고 ... 이제 아이들의 자생조직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오래가죠. 언젠가 선생님의 손에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놔야 아이들의 자생조직이 생기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되겠어요?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 교사 (I 중학교)

이 갈등의 본질은 교사가 그 학교를 떠나면 불가능해질, 교사베이스의 활동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교사는 그러한 마인드로는 어떠한 본질적인 활동도 불가능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생조직을 구축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말한다. 조직적인 시스템의 부재는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을 불러오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학교 예술교육과 지역 연계의 문제를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구상해야 함을 보여주는 다른 예는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드러난다. 위탁으로 개발한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고 호응도와 만족도도 높으나 재정의 부족으로 그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우리동네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교사들에게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교육적 효용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예산집행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교사들은 프로그램의 우수함을 떠나 자신들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 그 또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민간위탁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동네 보물찾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초3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고장에 대한 사회과학고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 중에서 뭐 미술관이 있기도 하고, 박물관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막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가니까 호기심 있게 갔다 오고. 그것도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거의 모든 초3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돈이 부족해서 매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약간 연계를 시키거나 교과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오라고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동네 보물찾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다 학교에 탁 갖다 주고.

2017. 8. 1. 전문가 협의회 정○○ 장학사 (L 교육지원청)

L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E 초등학교 교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3학년 지역 연계 프로그램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거 ○○교육혁신지구 예산으로 했어요. 6개 학교 정도를 선택해서 마을지도를 만들 수 있게 3학년 전체와 마을의 관련된 팀을 해서 만들긴 만들었나봐요. 근데 문제는 정말 그 동네 지도만 나온 거예요. 그 동네만. 그러다보니까 다른 학교에 검용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2017. 7. 20. 전문가 협의회 이○○ 교사 (E 초등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지원청과 교사의 다른 인식은 프로그램의 우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시스템에서 집행 운영되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은, 학교 예술교육과 지역 연계의 문제를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구상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라. 업무과중

개인적 열정과 관심으로 지역 연계를 시작했던 교사들은 평상시 업무 외에 지역 연계 사업을 담당하여야 했기에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었다.

(교사 업무분장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업무 과중이에요. 안 들어가요. 특성 프로젝트 사업은 다 그냥 프로젝트 사업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수당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2017. 8. 2. 전문가 협의회 김○○ 교사 (H 중학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의욕적인 교사라도 교사들은 지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가면 저 사진 찍습니다 그건 안할 거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 다른 학교가면 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게 ○○중학교니까 가능했던거구요. (그래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버전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에 와갖고 사실 그렇게 처음에 크게 벌이지는 않았었어요 커지는거고. 다른 데서도 장담 못하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아요.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교사 (I 중학교)

이렇게 개인적 열정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리자 개인의 강한 의지 또는 추진력은 교사를 춤추게도 하고, 소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강한 추진력이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적절하게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을 때, 교사의 소진 현상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과 별개로 움직일 때, 그 모든 활동의 부담은 교사 개인의 몫이 된다. 이는 또한 지역 연계활동이 지속되기 힘든 여건을 선사하기도 한다. 사업결정이 학기가 시작된 후여서 교육과정 안에 활동들을 담을 수 없었던 교사의 경우, 그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담당교사의 몫이 된다.

예산도 4월이 지나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확정된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 원래 교육계획서는 그 전 해 겨울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반영이. 아마 올해는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교육계획서에 이거 들여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술이라는 것, 미술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교과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보니까 음악도 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미술이나 창체 시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 그때 그 안에 자료 있는데 이제 주변 학교 ... 저는 지금까지 아직 하루도 못 쉬었어요. 방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캠프가 26일, 27일, 28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도자기를 한 사람이라서 도자기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일요일 하루 반짝 쉬고 월요일 날부터 나가서 이제 설치한 거 정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2017. 8. 3. 전문가 협의회 강○○ 교사 (G 초등학교)

그러나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서 운영될 수 있을 때, 담당 교사의 역할은 정보를 찾아 교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주변에 지역 연계 자원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교사가 그러한 자원들을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없이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냥 하면 ... 그리고 이때는 되게 열심히 하던 때여가지고. 하하 지금은 이제 오래하고 그래서 살짝 약간 좀 그런데 이 때 막 2013년-14년에는 말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좀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볼까 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되게 마인드가 좋으셔서 가지고 교장선생님 자체가 자꾸 새로운 걸 시도를 하시니까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일은 사실 어려움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 처음에 조금 아 이런 걸 해야 돼 왜 데리고 나가 그런 반응이 있어서 조금 ...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다 그러시면서도 다 따라주시고 하니까지는 크게 뭐 그냥 조금 욕먹을 각오하면 ... 제가 다 데리고 다가는 건 아니니까 ... 크게 뭐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2017. 8. 11. 전문가 협의회 박○○ 교사 (F 초등학교)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자신의 지역 연계 업무가 학교의 업무분장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들과의 협업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업무과중이라도 견딜만한 업무과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재미있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것을 업무를 생각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 지금 다른 업무가 있어요, 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업무가 있었죠. 다 각각에 맡는 업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업무 있고 이것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이게 먼저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짜지고 그냥 이게 깰겨 들어와서 뭔가 실적 위주의 사업을 원하시면 이것은 진짜 안 된 거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반영이 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교육과정 반성회 때 학교 전체 교직원, 교직원들의 어떤 마인드와 이것이 뭔가 맞아야 우리 학교 비전과 맞았을 때 이 사업이 같이 오고 이 사업이 같이 오고 이게 업무랑 같이 배정이 되고 아 충분히 학교 안에 소통이 되었을 때 진행이 되면 이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2017. 8. 2. 전문가 협의회 김○○ 교사 (H 중학교)

어느 지점에서 지역 연계는 ‘체험학습’과 동의어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지역 연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지역 연계는 일회성이 되어 버리기 쉽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 안에서 지역 연계를 구성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다.

마. 미술관련 지역 연계를 위한 기회가 거의 없음

마지막으로 미술과 지역 연계의 어려움은, 미술관련 지역 연계활동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문헌연구 단계에서 발견한 특징적인 것은 학교 음악, 미술, 체육 교육의 지역 연계 활동에서 유독 미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다는 것이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드림학교나 거점학교가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중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구상된 사업이라는 것이 미술연계 지역 연계 활동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경험했던 사실이었다.

제가 이제 드림 이 공모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 이제 해보려고 이제 주변에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뭐 거점학교라든가 드림학교 뭐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전화도 무작정 돌려보기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렇게 이제 계획서를 쓰기 전에 했어요. 그랬는데 미술은 한 분야도 없고 예술꽃씨앗학교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학생 수가 400명이 안 되는 아주 이제 뭐 소규모 학교에서 하는 약간은 성격이 다른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미술에 대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덤벼보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예산이 4000만 원 인데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이제 조금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 사업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그 초등에 들어오기 전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초등이기는 하지만 뭐 특별히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거를 맡았을 때 제가 차고 나갈 용기가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017. 8. 3. 전문가 협의회 강○○ 교사 (G 초등학교)

저도 처음엔 멋모르고 덤빈거고 알았으면 안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왜 오케스트라만 하느냐 이거죠. 차라리 오케스트라 딱 붙여서 하지 전국에 모든 곳 다 그렇다 ... 오히려 ○○중학교 유일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알고 덤빈 게 아니라 모르고 덤빈거고 둘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술드림학교나 예술거점학교를 운영할 때 제일 편한 게 그거예요. 오케스트라. 왜냐면 돈쓰기가 좋고, (가시성이 보이고) 연주를 할 수 있고, 그게 지역 연계가 가능해요. 왜냐면 그쪽 강사 돈 주면 되니까 ... 그러니까 편하니까 다른 교과 미술이라든가 다른 교과 선생님들 그걸 알



면 신청 안하는 거예요. 그런 제약들이 다 있으니까 해봤자 일거리고 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그거에 대한 어드벤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겠어요.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송 ○○ 교사 (I 중학교)

미술이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기획이 물리는 것  
같다고 한다. 미술관련 지역 연계를 계획했던 위의 두 교사의 경우, 하나는 벽지 학  
교이기에 오케스트라 구성 자체가 힘든 학교였고, 초등 교사지만 교사의 전문성이  
미술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 연계에서 미술을 중심으로 편딩을 시도하였던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자들이 음악에 대한 필요성만큼 미술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며, 홍보의 필요성  
에 대해 언급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단계라서. 거기다가 미술은 또 처음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고 생각보다 미술에 대한 인식이 음악만큼 그렇게 관리자들 사이에  
서도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척박해, 척박해 ...  
기회가 많아야할 것 같아요, 보여지는 기회가 사실은. 연수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우  
선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홍보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약간 홍보성 처음에 이 나누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홍보성도 있  
었거든요. 알아야 반응도 나오는 거고 알아야 참여도 할 텐데 모르는데 아무리 좋다  
고 해봤자 뭐가 있겠냐,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우선은 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2017. 8. 3. 전문가 협의회 강○○ 교사 (G 초등학교)

#### IV. 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 1.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 연계를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교사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  
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연수, 초임교사 연수, 교장 교감 연수 등을 개  
발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이들은 기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다. 한편, 지역 연계를 처음 고려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  
화재단, 지역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관련성이 있으면 이용  
한다(김○○, 이○○, 송○○). 반면 지역 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교사

들에게 박물관 미술관 및 지역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그 목록이라 할지라도 유용하다(강○○, 박○○). 전체를 계획하는 데 가이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이용한 교사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의 수준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수업과의 교과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구성원들의 구체적 요구를 지닌 자신들의 학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님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김○○, 이○○, 송○○ 교사처럼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기엔 이러한 교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업무 부담을 고려했을 때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전문적인 강사의 수급이라는 문제에서, 예술강사들의 전문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강사들이 예술의 전문가인 것은 맞지만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아이들을 다루는 문제나, 발달 정도에 따라 난이도를 맞추는 문제와 같은 교육적 전문지식과, 학교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상식 등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예술강사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킬 여력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학교의 업무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1) 학교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2) 교양 훈련된 전문 예술강사들이 가르치는, 3)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들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화된 예술강사의 수급이라 보여진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합지박 프로젝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2.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필요

담당교사들은 업무과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러한 활동이 많은 보람을 주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인 효과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는 딜레마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인력충원으로 가능한 일이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이것이 실용성이 없는 대책이라면, 이러한 예외적인 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예외적인 활동에 대한 인정이 제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교사들의 동기유발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승진가산점 제도는 기존의 관주도 방식으로 승진을 원하는 교사에게 업무가 쏠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워크숍, 2017, 9. 28).

그렇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사들은 지역연계를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교의 업무 분장 외 특별사업으로 지역연계 사업이 진행되기에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업무의 과중을 버거워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연계가 특별사업이 아닌 학교교육과정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면담조사에서 학교의 특색교육으로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했던 F 초등학교 박○○ 교

사의 경우, 업무 부담을 호소하지 않았다. 지역연계가 교육과정 안으로 포함되어 학교 업무에서 해야 하는 일상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의 일, 교육과정 구현의 일, 일상적인 업무분장이 된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연계가 일반적인 교육과정 구현과 다른 점은 교사들이 지역연계의 자원 정보를 찾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며,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을 스스로 찾고, 예산 집행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추가적인 노력이 더 요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에 지역연계의 내용의 특성 상 교사들이 알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역과 학교를 이어 줄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코디네이터제 또는 지역 예술 교육 협의체라는 매개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 3. 관리자 대상 연수, 전입교원 연수 및 네트워킹을 실시

지역 연계 시작에 있어 교장 교감 등 관리자 그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관리자 그룹이 지역 연계의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 수 있도록, 관리자 대상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부담지를 옮겨 새로운 학교에 부임하게 되는 교원은 그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노력으로 개인적 인맥을 동원해 알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연계는 요원해진다. 새로이 지역으로 부임해온 전입 교사들에게 지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전입 교원 대상 연수가 필요하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와 투어를 기획했던 이○○ 교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교사가 가진 두려움을 없애고 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는 관심있는 교사들 간의 네트워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지역 연계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강○○교사의 경우,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모여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각자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고, 조그마한 팁이라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요청된다.

### 4. 교육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와 개최시기 조절의 필요성 대두

학교의 일 년의 교육과정은 개강 전 2월 말에 마무리가 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는 그 전년도 12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드림학교나 거점학교, 지역연계와 같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결정은 교육과정의 시작 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고되고 결정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며, 이것은 고스란히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정한 예산이 관련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의 기획과 정보가 전년도 12월, 적어도 1-2월에 공고가 되어야, 원활하게 해당연도 교육과정으로 편성될 수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학기 중이 아닌, 학기 시작 전에 공고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시사점

학교 예술교육 지역 연계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술연계 지역 연계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인 어려움은 지역 연계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 줄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연계가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지역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 하에 이루어지는 지역 연계 활동이 요청된다. 이는 지역 연계와 관련된 일들이 ‘업무 외의 업무’가 아니라 분담될 업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 연계 활동은 기본적으로 융합적인 성격을 떠나 교사들이 융합 수업 개발에 대한 두려움과 경험 부족으로 ‘학교 밖 지역에서 행해지는 현장 체험 학습’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연계에 대한 개념 확립과 교사 연수, 다양한 실천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연계에 대한 지식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교사들은 ‘지역 연계’에 대하여 낯설고, 지역 연계의 특성상, 전입교사들은 지역의 문화시설, 특수성, 역사성 등 해당 지역에 관한 제반 지식이 없이 새로운 전입지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 연계의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신입/전입교사들에게 지역에 대한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지역 연계를 하고자 하는 또는 담당하는 교사가 수평적 상황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조직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미술과 관련된 지역 연계 사업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미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연계 사업 모델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또는 컨설팅 기획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 2. 정책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학교 미술 교육의 지역 연계 실천을 위한 현장 개선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술 교육 협력 체계 개발, 둘째,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셋째, 학생 참여 모델 및 학생 주도 모델로 운영되는 지역축제 운영이다.

### 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술 교육 협력 체제 개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업 실태와 구조적인 문제점, 지역의 유관단체 및 문화재단의 지원 정도, 지역의 인적·물적 및 정보 지원의 풍부성 정도 등이 다르다. 따라서 일률적인 협력 체계를 고수하는 것보다 지역별 특성에 고려한 탄력적인 협력 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직속으로 협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지역 연계 예술교육 거점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문화재단과 MOU를 맺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협력체계로, 교육지원청·문화재단 중심의 모델이라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방안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예술교육 협력 체제를 제시하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 1.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 협력 모델

- 특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갖추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적 역량을 성장시키거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 역할
  - 지방자치단체 - 거점 센터 운영 및 거점 센터 지원 교육관련 시스템 구축
    - 거점센터와 상생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영역 연계
    - 거점 센터에서 지역 연계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
    - 교육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 장학사들과의 협업회의를 주관
  - 교육지원청 - 기획 전담
    - 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의 유관단체와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협조체제 구축



| 주체                 | 구성                                                                                                 | 역할                                                                                                                                                                                                                                                         |
|--------------------|----------------------------------------------------------------------------------------------------|------------------------------------------------------------------------------------------------------------------------------------------------------------------------------------------------------------------------------------------------------------|
| 기초<br>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 부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연계 거점 교육지원센터 직영 운영</li> <li>교육청소년과 과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지역예술 협의체'에 지역문화위원으로 참여</li> <li>교육청소년과 과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와 지역연계거점교육지원센터 소속 직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관련 부서장 협업 회의를 주재함.</li> <li>거점교육지원센터에 직원 파견하여 예산 집행을 담당함</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관련 기타 부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점교육지원센터를 지원-시민 아카데미, 평생 교육 센터, 유아 교육 센터 등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지역연계거점교육센터와 연계 하는 방안 추구</li> </ul>                                                                                                                     |
| 지역연계 거점<br>교육 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li> <li>교육지원청 소속 직원</li> <li>교육전문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li> <li>강사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교육지원청 직원)</li> <li>교육과정 연계 컨설팅(교육전문가)</li> <li>프로그램 운영</li> <li>지역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li> <li>사업설명회 개최</li> <li>학부모 교육</li> <li>지역전문가 양성</li> </ul> |
| 교육지원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지원청 장학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회의 주관</li> <li>지역연계거점교육센터와 협력(프로그램 기획 및 모니터링)</li> <li>지역연계거점교육지원센터에 직원 파견</li> <li>'지역예술 협의체' 운영</li> </ul>                                                                                             |
| 문화단체 및<br>유관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단</li> <li>민간 네트 워크</li> <li>지역 주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예술 협의체' 참여</li> <li>지역연계거점교육센터에 인적 물적 자원 지원</li> </ul>                                                                                                                                                           |
|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자</li> <li>교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연계 프로그램 신청</li> <li>교사와 지역전문가와의 공동 교육과정 구성</li> <li>교사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li> <li>교사와 관리자는 '지역예술 협의체'에 참여</li> </ul>                                                                                                  |

&lt;그림 1&gt;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 협력 모델

## 2. 교육지원청·문화재단 중심 협력 모델

- 특징 :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지역 연계를 처음 시도하기에 적합함
- 역할
  - 교육지원청 - 지역 연계 협력체제의 구심점으로써 지역 내 문화재단과 MOU를 맺어, 문화재단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게 한다. 행정적인 업무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행정보조인력이 담당하여, 지역 연계를 시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 문화재단 -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예술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 유관기관의 센터를 거점화하여 지역예술교육센터로 운영할 수도 있다.



| 주체                     | 구성                                        | 역할                                                                                                                                                                                                             |
|------------------------|-------------------------------------------|----------------------------------------------------------------------------------------------------------------------------------------------------------------------------------------------------------------|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 협력기구 산하 소속                              | • 예산 책정 및 교부<br>• 지역 연계 공동 목표와 방향 공유                                                                                                                                                                           |
|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 소속 담당 장학사<br>• 행정업무 담당 보조 인력      | • 예산 집행<br>• 지역 예술 교육센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탁<br>• 지역예술교육센터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모니터링<br>• 사업설명회 개최<br>•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br>• 학교 및 교사 대상 프로그램 수요 조사<br>• 지역예술협의체 주관                                                         |
| 문화재단 (소속 지역예술 교육 지원센터) | • 기획홍보과<br>• 연구개발과<br>• 운영지원과             | • 지역단체 및 지역유관기관과 협력<br>• 지역 예술가, 민간네트워크와 협력<br>• 프로그램 기획 (기획홍보과)<br>• 강사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 등 행정 업무 처리 (운영지원과)<br>• 교육과정 연계 컨설팅 (연구개발과)<br>• 프로그램 운영(운영지원과)<br>• 예술 강사 연수 및 교육(운영지원과)<br>• '지역예술 협의체' 참여 |
| 지역사회                   | • 지역단체<br>• 지역예술가<br>• 민간네트워크<br>• 지역유관기관 | • 문화재단 소속 지역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                                                                                                                                                                                       |
| 학교                     | • 교사                                      | • 교육지원청 수요 조사 참여<br>• 지역예술교육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신청<br>• 수업 확인증 발급                                                                                                                                                       |

<그림 2> 교육지원청·문화재단 중심 협력 모델

#### 나.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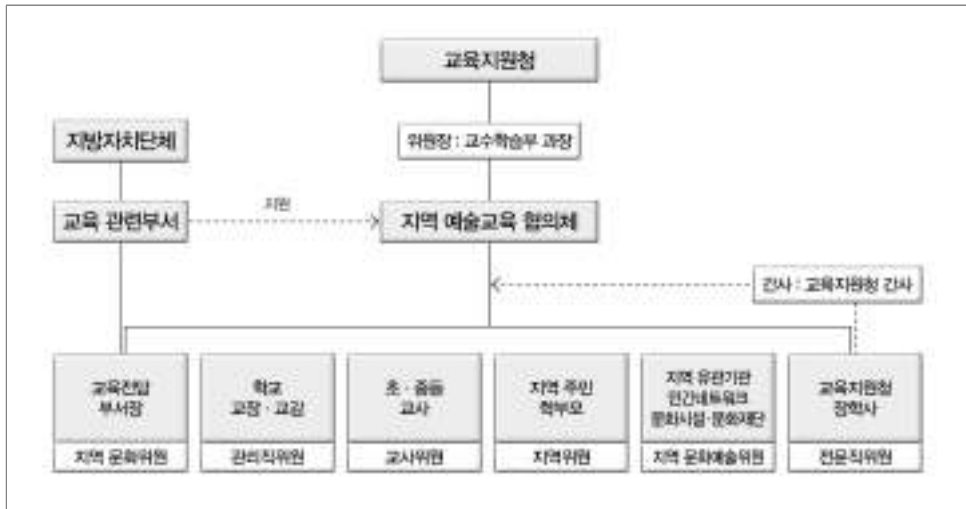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하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의하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협의회는 대부분 명목상의 조직이 되어 구체적인 사업의 정책 방향이나 지원 계획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전문가 협의회, 2017. 9. 27). 그러나 학교 예술교육의 지역 연계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역의 각 주체들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지역 예술교육 협의체의 운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역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고, 정책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실무지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실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표 3>과 같다.

<표 3> 지역예술교육협의체의 구성·운영 방안

|       | 개선 방안                                                                                                                 | 비고                                                               |
|-------|-----------------------------------------------------------------------------------------------------------------------|------------------------------------------------------------------|
| 목적    |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유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구성한다.                                                |                                                                  |
| 위원구성  | 형식적인 구성이 아닌, 시청의 실무자, 교육지원청의 실무자뿐 아니라 지역 내 실무가 가능한 예술교육전문가와 다양한 전문직 등 문화예술전문가를 위촉한다.<br>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사안에 따른 특별위원 참석을 정례화한다.                                           |
| 운영 방식 | 지역예술교육 협의체는 운영에 있어, 4, 6, 9, 12월에 열리는 정기협의회와 사안별로 소집 가능한 상시협의회를 운영하여 탄력적으로 현안에 대응한다.                                  | 실무 가능한 전문인, 예술인들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참석률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위원에게 홍보기회를 제공한다. |

이와 같은 방안에 따른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모형(안)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지원청내에 업무 전담 기구 및 간사 배속, 정기협의회와 상시협의회 개최, 외부위원 영입을 위한 탄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예술교육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다. 학생 참여 모델 및 학생 주도 모델로 운영되는 지역축제 운영

상당수의 지역 축제가 관주도의 보여주기 식의 행사로 운영되거나, 마케팅 위주의 상업논리가 지배하는 형태 또는 특정한 연령 계층에만 편중되어 운영되는 등 지역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을 지역 축제에 접목시킨 경우에도, ‘그림그리기 대회’, ‘예능경연대회’ 등이, 명확한 어젠더의 공유나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일회성으로 체험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전문가 협의회, 2017. 9. 27). 그러나 현재 학교의 예술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지고 있기에(전문가 협의회, 2017. 7. 25; 전문가 협의회, 2017. 8. 2), 지역축제는 학교 교육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소비 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을 지역 연계 교육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 연계 교육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지역 주민, 지역예술가들이 지역축제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해보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체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지역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 예술 교육을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을 통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젠다를 공유한다. 둘째, 지역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축제를 기획한다. 셋째, 학생들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한다. 넷째,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봉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학생, 교사, 지역주민,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품, 공동공연 등을 기획 운영한다.

이와 같은 방안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축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 지역 축제 운영 모델                                                                                                                                                                                                                                                                                                                                                                                                                                                                                                                                                                                                                                                                                           |          |                                                                                                                                                                                                                                                                                        |
|-------------------------------------------------------------------------------------------------------------------------------------------------------------------------------------------------------------------------------------------------------------------------------------------------------------------------------------------------------------------------------------------------------------------------------------------------------------------------------------------------------------------------------------------------------------------------------------------------------------------------------------------------------------------------------------------------------|----------|----------------------------------------------------------------------------------------------------------------------------------------------------------------------------------------------------------------------------------------------------------------------------------------|
| <p>지역 축제가 이루어지는 단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동의 어젠다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자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특성(지역 축제의 유무, 마을 공동체의 유무, 지자체 · 교육청의 비전, 규모, 예산, 인력 배치 등의 상이성, 지역 자원 유무)에 따라 탄력적인 계획 수립.</li> <li>• 주체 (예: 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마을교육공동체 등)와 축제의 형태 (예: 지역 축제 확대, 평생학습축제 확대, 학생 예술 문화 동아리 축제 등)의 결정.</li> </ul> </li> <li>• 시 · 도 단위의 어젠다 또는 마을 공동체의 어젠다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 도 단위 어젠다가 있을 경우, 지침 하달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 워크숍, 전문가 강연, 학습 공동체 등에서의 참여와 활동 등을 통하여 공유되어 지도록 계획.</li> <li>• 지역 공동체의 어젠다가 필요한 경우, 지역예술협의체와 같은 조직과 모임을 통하여, 의제가 발현되고 공론화 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          |                                                                                                                                                                                                                                                                                        |
| 유형                                                                                                                                                                                                                                                                                                                                                                                                                                                                                                                                                                                                                                                                                                    | 학생 참여 모델 |                                                                                                                                                                                                                                                                                        |
| 특징                                                                                                                                                                                                                                                                                                                                                                                                                                                                                                                                                                                                                                                                                                    |          | 학생 주도 모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축제의 성격을 학생 중심-지역주민 중심 문화 예술 축제로 바꾸려는 경우, 기존 지역 축제의 대상 또는 주제에 관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작한 작품을 전시, 공연 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지역 축제에 참여케 하고 단계적으로 참여 대상자를 다양한 지역 구성원으로 확대해 축제의 참여자를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학생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 기획단계부터 학생 자율 자치회나 축제 관련 동아리를 중심으로 참여시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단계로 축제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축제에 관련된 실무를 진행한다. 이때, 학생들은 실무위원회에 자문을 주는 형태로 개입하기도 하며, 사회자, 공동작품, 공동 공연을 같이 준비하는 등 축제의 참여자로 참여한다.</li> </ul> |
| 계획 수립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 주제 선정: 지역의 정체성, 특색, 특산물을 주제로 한 학생 작품 공모</li> <li>• 학교와의 연계 도모: 학교 교과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업의 결과물을 제시</li> </ul>                                                                                                                                      |
|                                                                                                                                                                                                                                                                                                                                                                                                                                                                                                                                                                                                                                                                                                       |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 · 학교 주도</li> <li>• 학생 참여</li> </ul>                                                                                                                                                                                                     |

|          |    |                                                                                                                                                                                                      |                                                                                                                                                                                                                                                      |
|----------|----|------------------------------------------------------------------------------------------------------------------------------------------------------------------------------------------------------|------------------------------------------------------------------------------------------------------------------------------------------------------------------------------------------------------------------------------------------------------|
| 운영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중심 문화 예술 교육 축제+ 주민참여+관련 기업 및 문화예술 단체 협력</li> <li>•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과 지역주민, 전문 예술인들이 공동작품을 전시, 공연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도움)</li> <li>• 만족도 조사 진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주도기회 확대: 사회자 공모, 홍보 포스터 공모, 공동설치 작품 주제 공모,</li> <li>• 참가자 및 참가 작품 모집</li> <li>• 콜라보 공연</li> <li>• 학생 봉사단, 학부모 봉사단 모집</li> <li>• 학생 진로체험으로 진행, 리허설 등의 실무 추진단에 학생 참여 기회 확대</li> <li>• 만족도 조사 진행</li> </ul> |
|          |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예술거점센터가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센터, 지역 유관기관, 문화재단, 지역 공동체,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협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실무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기관을 연결하고, 소통,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li> <li>•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li> <li>• 지역: 장소 제공 및 참여</li> <li>• 학교: 학생들의 참여 지원</li> <li>• 학생 자문 위원단 조직</li> </ul>                                |
| 평가<br>환류 | 내용 | 축제 방향 및 내용 검토, 참여자 만족도 조사                                                                                                                                                                            |                                                                                                                                                                                                                                                      |
|          | 주체 | 학생자문위원단, 예술 교육 지역 협의체 등 관련자                                                                                                                                                                          |                                                                                                                                                                                                                                                      |

출처: P 교육지원청(2017), Q 교육지원청(2017), R 교육지원청(2017)을 참조하여 재구성 함

<그림 4> 지역 축제 운영 모델(학생 참여형과 학생 주도형)

## 참고문헌

- 김성훈, 김사훈 (2017). 마을교육공동체프로그램의교육경험과운영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8), 667-685.
- 김형숙 (2009). 미술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쉽. *미술교육논총*, 23(1), 92-124.
- 노병일, 전영신 (2004). 지역중심미술: 미술과 복지의 랑대부. *지역학 연구*, 3(1), 211-231.
- 노정길 (2015). 중학교미술 수업과 지역문화예술의 연계 방안: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9(4), 93-110.
- 박신자 (2010).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4), 199-208.
- 안인기 (2013). 태백 상장동 마을벽화로 본 공공미술의 역할.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4(3), 81-95.
- 이미정 (2017). 지역 미술가와 연계한 학교 미술관 설치·운영을 통한 아동·교사·미술가의 예술에 대한 인식 탐구.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8(3), 141-179.

- 이승미, 이경언, 윤기준, 최성희 (2017). *학교 체육·예술교육의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 초·중학교를 중심으로*(연구보고 RRC 2017-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현정, 김선아 (2018). 사회참여미술에 기초한 지역연계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질적 연구. *조형교육*, 67, 213-233.
- 정문선, 모경환, 석문주, 김해경, 박새롬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예술 꽃씨앗학교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0(1), 165-194.
- 정문선, 유지은, 전영은, 박새롬 (2014).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지속성 연구: 초등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이 졸업 후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2(1), 431-447.
- 정병흠 (2016).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역문화역량 강화 방안. *미술교육논총*, 30(4), 161-180.
- 조운정 (2018).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85-109.
- 진은정 (2015a).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생태학적 미술·과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6(4), 59-75.
- 진은정 (2015b). 학교 안과 밖의 협력을 통한 학교미술교육의 대안적 방안 모색.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6(3), 67-90.

### 학교 및 교육청 관련 문서

- I 중학교 (2017). 2017학년도 앵글 속 세상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한 아름다운 마음 키우기. *예술드림(Dream)학교 운영계획서*.
- N 교육지원청(2017). 2017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마을예술교육공동체로 풍요로운 삶을 함께 가꾸어요*.
- P 교육지원청(2017). 2017 지역 연계 학생문화예술한마당. *2017 ○○ ○○ 종이문화 예술교육축제 운영계획*.
- Q 교육지원청(2017). *마을 속에서 즐기고 나누는 학교 문화예술축제 운영 계획*.
- R 교육지원청(2017). *2017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한마당 축제 운영계획*.

### 전문가 협의회 목록

- 전문가 협의회 (2017. 7. 20).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 전문가 협의회 (2017. 7. 25.).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

문가 협의회 회의록.

전문가 협의회 (2017. 8. 1.).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전문가 협의회 (2017. 8. 2.).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전문가 협의회 (2017. 8. 3.).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전문가 협의회 (2017. 8. 11.).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전문가 협의회 (2017. 8. 11.).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전문가 협의회 (2017. 9. 18.).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체육 지역 연계 우수사례 탐색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전문가 협의회 (2017. 9. 27.). 학교 예술에서의 지역 연계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워크숍 (2017. 9. 28.). 학교 체육·예술교육의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한 워크숍 회의록.

## Abstract

### A Study on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Art Education

**Sung-Hee Choi**

KICE(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o integrate school art curriculum into communities at the levels of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in order to build strong connec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So far, school-community connection was done through extra curriculum of the schools and community schools, not the regular class at schools. It means that not most students but a few selected students can be involved with this type of learn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d the experience of teachers and school inspectors as research participants, who have executed the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tegrating art curriculum into community resources and needs, incorporating in-depth interview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was reported as followings. First, the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art was initiated in personal interests and dedication of individual teachers. Second, curriculum reconstruction with art and community resources was the core of this activity. Third, the budget was provided all different kinds of sources. Forth, the Education Ministry supports information, community resource booklets and maps, and human resources. In addition, five difficulties as safety issues, nominal support from the Education Ministry, the absence of big plan in relation to the school-community connection, the absence of supporting system, consequently overworking of the teachers, and less funding opportunity of art curriculum-transforming.

Therefo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ional condition and difficulties, ways to build strong connection between art curriculum at school in regular classes and community resource were suggested as three following ways: applying a self-governing body-led collaboration model and Education Ministry-cultural foundation collaboration model,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and curating students-led community festivals.

|                   |                   |                   |
|-------------------|-------------------|-------------------|
| 논문접수 2018. 10. 17 | 심사수정 2018. 11. 05 | 게재확정 2018. 11. 05 |
|-------------------|-------------------|-------------------|

## 초등 교사를 위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방향 탐색 - 국내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

이미정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

---

### 요 약

---

본 연구는 현대미술 영역의 감상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교육의 일환인 현대 미술 감상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방향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작가 네 사람(팀)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탐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이론적 바탕 마련을 위해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전시장의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사진 및 연구자의 감상글, 전문가의 비평글, 전자 매체의 글과 전시장 안내 글 등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문헌 연구 및 연구자의 내러티브로 이루어진 복합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 각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현행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적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현대미술 감상 교육은 현대미술의 주제적, 매체적, 과정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둘째, 현대미술의 정체성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교사는 교수자로서 미술 감상의 기초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교사는 현대미술을 읽고 해석하며 정서적 공감에 이르는 체험 과정을 교수학습 상황에 접목하여 학습자의 미술 감상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교수자로서의 경험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구안을 위한 방향 탐구과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교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의 설계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세분화된 연구 과정을 거쳐 설계 될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은 초등 교사에게 현대미술 이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현대적 맥락이 반영된 미술 감상 수업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된다.

---

### 주제어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초등 교사(elementary school teacher), 미술 감상프로그램(art appreciation program), 작가(artist)

## 들어서며

당신은 요즘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에 가 본 적이 있는가? 체험전시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미술 기획전시라면 더욱 좋다. 무엇을 보았는가? 관람을 마치고 나오며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너무 재미있었다거나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다거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가슴이 따스해졌는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가슴이 벅차 올랐는가? - 개인차가 있겠지만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 따르면 예술품과의 교감이 일어난 경우 대부분 이런 정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포스트모더니스트 혹은 그 이상의 철학을 하는 사상가 혹은 전문 예술가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요즘 현대미술<sup>1)</sup>에서 다루는 주제나 기법은 무한히 열려 있고 소통의 방식조차 장르의 파괴로 그 다양성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과거보다 오히려 현대미술은 더욱 감상하기가 어려워졌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 이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 현대미술의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대중을 위해서는 감상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대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예술에 가까이 가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미술의 전문화 현상이 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대개의 경우 미술의 중심 대상이 사물에서 아이디어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애끼고 사랑할 수 있는 놀랍고도 사랑스러운 사물은 어디에 있는가(Yenawine, 1999). 아마도 그것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체화된 습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리라. 미술작품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사태를 인지하기는 하나 체화되지 않은 부조리의 상태, 혹은 그 밖의 다른 여러 이유로 현대미술을 보는 관람자의 마음은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어느 정도의 교육과 훈련이 없다면 오랜 시간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그림을 감상하는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훈련이나 교육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변화하는 예술 문화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국가의 역할이며 예술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들에 의해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혹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속에서 교육과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아주 서서히 일어나며 문화는 조금씩 변화한다. 그러나 예술을 교육하는 교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예술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가 아닌 앞서 배우고 익혀 후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예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팝아트, 설치미술, 개념미술, 테크놀로지 아트 등 20세기 후반 이후의 동시대미술을 중심으로 한다. 개인적인 감수성을 표현하는 작품보다는 회화, 조각의 순수미술 영역 속에서 미술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집단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다(이은적, 2007).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대미술로 일컬어지는 기획 전시 및 개인 전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전시를 분석하고 있다. 이은적(2007)과 같이 본 연구도 현대미술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주된 담론들을 다루고자 하나,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제안임이 전제로 한다.



안타깝게도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미술교육 중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야로 현대미술 감상교육을 꼽는다. 각 교과와 내용학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갖기에 초등 교사의 양성 과정이나 후속 연수는 빈약하다. 그러니 예술가들도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현대미술의 속도를 초등 교사가 따라잡기는 만무하다. 초등 교사는 특수한 양성과정을 거쳐 교사로 서게 된다. 따라서 초등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초등 교사 양성 기관은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 10개 교대가 있다. 초등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은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해진 학점 내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미술, 음악, 체육, 실과, 도덕으로 구성된 10개 교과목에 관한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을 통해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 양성 대학의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졸업 학점은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140학점 내외이다. 이것은 일반 대학-서울대 인문대학 공통규정에서는 전체학점 130학점 이상 이수(서울대학교, 2018)-에 비하여 많은 학점이며, 140학점 중 실제로 1학점 과목이 2시간으로 편성 되거나 2학점 과목이 3시간으로 편성 되어 학생들의 주당 수업 시간은 학점보다도 매우 많다. 게다가 각 교과 내용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과목내용 중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익히고 졸업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많은 양의 지식과 과제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공을 4년간 배우고 졸업하는 일반 전공학과 학생들보다 10개 교과와 내용학을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은 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수준일 뿐, 현장에 나아가 가르치는 데는 보다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교사가 된 후의 재교육 및 심화 교육 차원의 교사교육은 필수적이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K 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육과정 편제

| 영역        |      |           | 학수단위 |      | 비고                          |
|-----------|------|-----------|------|------|-----------------------------|
|           |      |           | 우선공  | 복수전공 |                             |
| 교양        | 형성중점 | 필수비전      | 3    |      | 복수전공자<br>제2교과실습<br>(2학점) 이수 |
|           |      | 현대미술      | 6    |      |                             |
|           |      | 인성<br>국제화 |      |      |                             |
| 교직        | 필수일반 | 12        |      |      |                             |
|           | 교직이론 | 12        |      |      |                             |
|           | 교직소양 | 6         |      |      |                             |
|           | 교과실습 | 4         | 2    |      |                             |
|           |      | 현장교과실습    | P/F  | P/F  |                             |
|           |      | 교과봉사      | 2    |      |                             |
|           | 전공   | 기본        | 21   | 21   |                             |
| 초등교육학     |      | 9         | 7    |      |                             |
| 교과교육 및 실기 |      | 38        | 38   |      |                             |
| 심화과정      |      | 21        |      |      |                             |
| 자유선택      |      | 6         |      |      |                             |
| 사도교과      |      | P/F       |      |      |                             |
| 계         |      | 140       | 68   |      |                             |

(출처: K대학교 홈페이지, 2018)

마찬가지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대미술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미술과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현대미술 감상 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사교육이 촘촘히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현대미술의 개념은 현재, 지금 우리가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생생히 살아 있는 동시대의 미술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지식이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현재의 삶과 밀접한 교육일 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또한 동시대적인 것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인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1990년대 유럽의 주요 전시들에서 “문화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브리콜라주(bricolage)하고 재활용하는” 작가들의 작품, 행동 양태, 감수성의 변화를 근거로 상호 연대, 공생, 공동체적 나눔을 지향하는 “관계적 예술의 가능성”을 짚었다. 그의 논의는 작품/전시 사례에 대한 비평을 중심 방법론으로 삼는데, 대표작가에는 곤잘레스 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길릭(Liam Gillick),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파레노(Philippe Parreno), 오로즈코(Gabriel Orozco), 곤잘레스 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Foerster),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 등이 꼽힌다. 부리오에 따르면, 그들의 미술은 관계적 공간-시간의 요소를 생산하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인간 상호 간의 정서 및 경험을 촉발한다(Bourriaud, 2002, 강수미, 2012 재인용). 이처럼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작가의 작품과 전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근거로 현대미술의 특성을 추출해 내곤 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본 연구자 역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동시대 미술가를 선정하고(국립현대미술관 리플렛, 2018), 이들의 작품 분석을 토대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론적 바탕 마련을 위해 선행 연구를 비롯한 각종 문헌, 전시장의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사진 및 연구자의 감상글, 전문가의 비평글, 전자 매체의 글과 전시장 안내 글 등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연구자의 내러티브(전시를 본 후 연구 일지에 기록함)로 이루어진 복합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현행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적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 작품 탐색을 통한 현대미술의 이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자간-다차원의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비중이 높아지고, 신자유주의 경제와 글로벌리즘의 역학 안에서 움직이며 이 속에서 현대미술은 자기 존립과 발전에 더 유효한 대중적 관심, 더 실제적인 형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외부로의 개방과 다원적 변모를 실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대미술은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 세기 남짓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이전에 규범화, 관습화된 예술 전반과 그

금기에 대한 ‘저항’ ‘위반’ ‘도전’ ‘탈선’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자 내적 충동의 일환으로 상정하고 지속해왔다(강수미, 2012). 더욱이 최근 21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계의 양상은 주제적으로나 방법적인 면에서 무어라 단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미술 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내림이나 규정을 하기 이전에 미술은 쉽 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시대 미술을 통해 현대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어떤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작가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국립현대미술관 보도자료, 2018). 지난 2012년에 시작된 <올해의 작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가로서 작품에 매진하는 이들에게는 한 번쯤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미술 시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현대성(contemporary)”과 “예술”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잡고 있는 전시이며 수상 제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작가를 선발하여 작업 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 중 한 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는 경쟁 구도는 더욱 세간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국립미술관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에는 우려가 있으나, 그 결과 현대미술의 담론을 이끌어내고자 한 의도는 달성 되는 듯하다.

이번 2018년 수상 대상에 오른 작가는 구민자, 정은영, 정재호, 옥인 콜렉티브(김화용, 이정민, 진시우, 2009년에 결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사고가 본래적인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발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미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의 비판적 성찰과 탐구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국립현대미술관, 2018). 본 연구가 동시대를 그려내는 현대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현대미술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올해” 즉, 오늘의 “작가”라는 점에서 동시대 미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표 2> <올해의 작가상> 역대 후원 및 수상 작가

| 연도(장소)          | 수상작가 및 후원 작가                        |
|-----------------|-------------------------------------|
| ○ 2012(MMCA 과천) | 문경원·전준호(2012 올해의 작가), 김홍석, 이수경, 임민욱 |
| ○ 2013(MMCA 과천) | 공성훈(2013 올해의 작가), 신미경, 조해준, 함양아     |
| ○ 2014(MMCA 과천) | 노순택(2014 올해의 작가), 구동희, 김신일, 장지아     |
| ○ 2015(MMCA 서울) | 오인환(2015 올해의 작가), 김기라, 나현, 하태범      |
| ○ 2016(MMCA 서울) | 믹스라이스(2016 올해의 작가), 김을, 백승우, 함경아    |
| ○ 2017(MMCA 서울) | 송상희(2017 올해의 작가), 박경근, 백현진, 썬니킴     |
| ○ 2018(MMCA 서울) | 정은영(2018 올해의 작가), 구민자, 정재호, 옥인 콜렉티브 |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보도자료, 2018. 9. 5, p. 4)

본 연구에서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한 작가와 작품 탐색은 주제적, 매체적, 과정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오늘날 작업에 사용 되는 매체는 선택의 장벽이 없이 장르를 넘나들고 있어, 매체의 특성은 주제를 형성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이었기에 분석의 기준을 두는 편이다. 그 밖에 매체의 특이성이나 매체를 구사하는 데의 기술적 독창성, 정교성, 능숙함 등이 고려되나 이 또한 주제 표현을 위한 선을 넘어서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매체의 접근 방식, 혹은 매체를 보여주는 형식과 과정의 문제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현대미술에서 어떻게 매체를 다루고 있고, 매체의 작동 과정 자체가 주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술의 가장 큰 담론으로 떠오르는 주제, 매체, 과정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올해의 작가 2018>에 선정된 구민자, 정은영, 정재호, 옥인 콜렉티브(김화용, 이정민, 진시우, 2009년에 결성)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시간의 궁극적 개념 : 구민자

“어떤 사람이 특정 하루를 ‘두 번’ 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월간미술, 2018, p. 146)? 구민자의 작업은 사회의 거대 구조 속 평범하고 작은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늘 익숙하게 받아들인 제도, 기준, 체제에 대한 궁극의 질문을 던진다. 그는 퍼포먼스와 영상을 통해 노동, 사랑, 시간 등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고 근원적인 경험과 이에 대한 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여러 도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머타임제(summer time)를 실시하는 도시를 경험한 작가는 시간이라는 자연에 개입된 문명의 인위성, 혹은 생경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0도의 기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도 180도에서는 한 장소의 동쪽과 서쪽이 각각 다른 날이 되는 “날짜 변경선”이 만들어진다. 피지의 타베우니(Taveuni)에서 날짜변경선 동쪽은 오늘이지만, 서쪽으로 한 걸음만 가면 어제가 된다. 만약 한 사람이 날짜변경선 동쪽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서쪽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 사람은 하루를 두 번 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날짜변경선의 서쪽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이 다음날 날짜변경선 동쪽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 사람은 하루를 건너뛰고 이를 뒤의 날짜를 살게 된다(국립현대미술관, 2018).

구민자는 우리가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 인간에 의해 임의적으로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은 한 존재가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느끼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그는 이러한 인식을 직접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준다. 그는 지인과 날짜 변경선 이쪽과 저쪽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로 자리를 옮긴다.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2018)

<그림 1> 구민자, <전날의 섬, 내일의 섬>, 퍼포먼스 영상, 2018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루를 두 번 살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하루를 건너 띄게 된다. 작가는 이 과정을 작품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 설치, 시각적 텍스트와 오브제를 선택한다. 텐트를 치고 거주하며 보낸 시간과 과정에 쓰인 생활용품들을 <그림 2>와 같이 전시함과 동시에 거주 당시의 영상을 상영한다.



<그림 2> <전날의 섬 내일의 섬>에 쓰인 생활용품 전시 장면

###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예술: 옥인 콜렉티브(Okin Collective)

옥인 콜렉티브(김화용, 이정민, 진시우/2009년 결성)는 종로구 옥인 아파트의 철거를 계기로 형성된 작가 그룹이다. 도시 개발과정에서 대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찰하며, 영상과 퍼포먼스,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동체 안과 밖의 관객과 조우한다. 옥인 콜렉티브는 철거민과 상영회 및 전시를 열거나, 부당 해고 노동자와 함께 세익스피어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며, 원전의 위험을 알리는 체조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에 개입한다.



(월간미술, 2018, p.147)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2018)

<그림 3> 옥인 콜렉티브, <거울  
코러스-A201404> 비계 모니터 영상설치, 2018

<그림 4> 옥인 콜렉티브, <바깥에서>, 사진,  
2018

이번 전시에서 <그림 3> 과 <그림 4>에서와 같이, 그들은 근대 도시에서 공동체와 개인,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 연대의 의미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옥인 콜렉티브가 탄생하게 된 작업과 기록의 과정을 담은 <바깥에서>를 비롯해 <회전을 찾아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인천에 위치한 예술가 공동체인 ‘회전 예술’의 이야기를, <황금의 집>에서는 제주에 위치한 음악다방 까사돌을 찾는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추적한다. 옥인 콜렉티브는 흑백, 호불호, 찬반 등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들의 복잡성과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동요를 세심하게 짚어낸다(국립현대미술관, 2018).

인터뷰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덤덤하다. 때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즐거운 듯, 원망스러운 듯, 체념한 듯 억양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공허하고 건조하다. 그들에겐 미래가 없다는 선부른 나의 판단 때문일까?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뇌를 잠식한다. 남은 삶에 대한 미련조차 없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삶에 대한 집착을 역설적으로 보

여주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불쑥 올라온다. 나의 부모도 그리고 나도 먼 훗날 저기 어디쯤을 지나가게 될까?(연구자의 일지에서 발췌, 2018. 8. 18)

그들의 작업 방식은 주로 영상 설치나 사진의 방식을 취하며 퍼포먼스와 라디오 방송 등 관객과 혹은 관객을 만나는 수단으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시니어들과 예술 단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구성원 내면의 갈등과 풀리지 않는 복잡한 상황들을 관객에게 극명한 현장성을 형성하며 전달해 준다.

### “미광(微光)의 반딧불”: 정은영

정은영은 이번 전시에 ‘죄송합니다. 공연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가곡실격’, ‘유예극장(사진)’, 외 ‘나는 왕이야’를 포함해 영상, 아카이브, 설치 작품 등을 선보였다. 그는 2015년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여성국극을 연구, 분석하며 예술행위로 이어왔다. 여성국극에 대한 연구는 그의 박사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성국극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전후로 큰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창무극의 한 형태이다. 형식적으로는 전통국악연회의 근대화·서구화된 양상으로, 판소리를 분창화(分唱化) 하고 장면화(場面化) 하여 연극적으로 무대화 한 ‘창극(唱劇)’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배역을 여성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식적 장르로 분류 가능하며,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전통 창극이나 순수 연극과 구별되는 여성국극만의 차별성과 전복성을 함의한다. 한편, 내용적으로 여성국극은 주로 잘 알려진 판소리 사설이나 대중소설, 혹은 고전 야사 등을 전형적인 신과 로맨스극으로 각색해 공연한다.(정은영, 2015, p.8)

<그림 5>과 <그림 6>에서와 같이 여성국극을 재현함으로써 공간이라는 부피의 감각으로, 수행이라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채워내고자 하는 작가는 여성국극의 본질적 정당성을 찾아 회복시키기보다는, 이러한 감각적 변이를 통해 보다 변칙적이고 쿼어한 예술실천의 정치적 힘을 역설하고 있다(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소개글, 2018). 정은영의 여성국극의 시대적 반응과 평론 등에 반영된 젠더에 대한 탐구는 강경하게 드러내지 않는 문화적 접근의 정치 행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정은영, <유예극장>, 영상 설치, 2018



<그림 6> 정은영, <정동의 막> 퍼포먼스, 00:19:35, 2013

개막 행사 당시 그는 “한국 근대사에서 여성국극은 전통문화로도, 현대예술로도 자리 잡지 못하고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1950년대 유행한 여성국극은 여성 배우만 나오는 공연으로, 젠더(사회적 의미의 性) 수행의 견고한 이분법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은영은 여성국극에 대한 연구와 조사, 분석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시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성호, 2018, <http://www.100ssd.co.kr>)

예술은 저항하는 동시에 단지 저항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적 공동 세계의 형성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며, 정치는 특히 의회적 절차로 한정되지 않는 정치활동은 공동의 세계 형성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가시화 방식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가시화 방식을 발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예술적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정치는 모두 미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저항의 기획과 미적 혁명의 기획 양쪽을 오가는 긴장 속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진은영, 2009). 정은영의 작업은 젠더 수행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하며 직접 신체적 경험 즉 퍼포먼스를 통해 그들이 성 역할을 보류하며 여성국극의 연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밀도 있게 보여준다.

<올해의 작가상 2018>의 심사위원단은 오랜 기간 심화된 주제의식과 영상과 공연, 아카이브 등 흥미로운 방식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작품과 전시 모두를 효과적으로 완성해냈다는 점에서 정은영을 올해의 작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국립현대미술관 보도자료, 2018. 9. 5). 심사를 맡았던 이들은 정은영의 주제 선정과 이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

심사위원장 수잔 코터(무담 룩셈부르크 관장)는 “정은영의 시도가 현대미술의 형태를 빌어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예술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성정체성의 위치를 무대 형식의 예술로 풀어낸 점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그리고 심사위원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은영의 주제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특



수성에 기반하면서도 보편성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p.3)

정은영이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 중 하나인 퍼포먼스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정교함 또한 매우 우수했으며, 퍼포먼스 내에 극중 배우가 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인해 성에 대한 현실감각을 전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

### 각인된 유토피아: 정재호

정재호는 국가 주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번영과 발전, 즉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도시 풍경 이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붉은 십자가로 뒤덮인 서울의 야경, 쇠락한 인천 차이나타운의 풍경, 한때는 서양식 삶의 표본으로 추앙받다가 철거 위기에 처한 1960~1970년대 시범 아파트 단지 등을 통해 근대 도시와 건축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왔다. 작가는 국가가 개발도상국의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를 밝은 미래를 꿈꾸도록 ‘권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을지로, 종로 등 도심에 위치한 당시 건축물의 표면을 기록하고, 같은 시기 발간된 정부간행물이나 공상과학만화, 신문기사 등에 등장하는 이미지 자료를 찾아 그림으로써 새로운 아카이브를 구성한다(국립현대미술관, 2018).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는 근대화의 상징이자 서양식 삶의 표본이었던 아파트가 철거 위기에 놓인 현장을 패널 위에 섬세한 작업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관람객이 아파트 창이 보이는 벽을 돌아 반대편으로 이동하면 지지대와 각목 받침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설치하였다. 앞부분은 매우 정교한 회화 작업으로, 뒷부분은 작업 과정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노출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철거 위기에 놓인 아파트의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작가는 전체를 중시하는 국가주의 속에서 개인에게 아로새겨진 특정 사고방식과 관념에 주목한다. <그림 8>에서 보는 작업 <조난>은 공상과학만화인 <요철 발명왕> 속의 주인공이 만든 로켓을 재현해 놓은 것이며, 당시 국가에 의해 주입된 모든 소년 소녀의 꿈이 달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불가능을 꿈꾸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오히려 경제 성장이 멈추고 경제적 위험을 겪은 이후 일어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즉,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시대가 아닌 가능한 것을 꿈꾸는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냉철한 기록이며 역설로 전달된다. 그것은 빠른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흐름의 변화를 겪은, 두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아래 세대와의 단절 속에 드러나는 이질감이며 역사에 대한 직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연구자 사진자료, 2018. 8.18)

<그림 7> 철거의 위기에 있는 아파트를  
재현한 설치 작품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2018.10.7)

<그림 8> 정재호, <조난>, 사진 앞  
로켓 설치,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8

<조난> 작품은 설치 작업으로 여러 혼합 재료를 사용하여 공상만화에 나오는 로켓을 재현하였다. 로켓은 철을 사각으로 잘라 각기 연결해 둥근 몸체를 만들었다. 그림 속 로켓의 왼쪽 뒤로 보이는 회화 작업은 이 로켓을 발명하고 탈 비행사의 연구실을 그린 <비행사의 연구실>이라는 작업이다. 캔버스 위에 유화 작업을 하였으며 채도가 낮은 회색 톤의 화면은 낡고 흐린 필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작가의 작품 속에 드러난 “현대성”의 미술 교육적 의미

본 절에서는 작가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현대성”의 미술 교육적 의미를 작품에 대한 주제적, 매체적, 과정적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조망해 보고자 한다.

#### 주제적 접근

작품 창작 과정의 수천수만의 단계는 다 무의식적으로 거치게 되며, 예술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저 희미할 뿐이고 그것은 마치 접시를 닦을 때 오른쪽으로 돌려 닦을지 왼쪽으로 돌려 닦을지를 결정하는 과정만큼이나 무의식적인 활동이라고

Bayles와 Orland(2018)는 말한다. 그 만큼 예술 창작의 과정은 예술가의 삶과 일치되어야 창작이 용이하며, 때문에 일련의 완성작은 작가의 사고 체계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현대미술의 난해함은 결국 글로벌해진 우리 삶의 복잡다단한 포스트모던적 일상들과 관련된다. 과거에는 아주 먼 이국(異國)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듯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소식이 도착했다면 오늘날에는 마치 가까운 이웃집에서 벌어진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실시간 중계 되는 정보의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느낌이 아닌, 나비효과처럼 환율이나 증시 등 세계 경제를 거쳐 나의 가정애, 혹은 동포의 죽음이나 기쁨으로 맞물리는 “진짜(real)” 나의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니 작가들은 이토록 복잡하고 보다 글로벌한 삶에 대한 이미지를 미술 작품의 형태로 한 컷 한 컷 짚어내고 있는 셈이다. 개인의 내밀한 사건부터 피하고 싶은 사회·정치적 갈등, 국제 정세의 갈등, 환경의 파괴와 자연 재난 등등의 거시적 주제들까지 말이다.

앞서 살펴본 동시대 미술을 하는 네 작가가 다루는 주제는 “사회 참여적”이다.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과 규범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가가 어느 한 방향의 관념을 “권장”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서구의 한 국가가 임의로 정한 기준점에 따라 날씨가 변경되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지 등을 묻는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누리며 젖어 있던 관념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상황에 대한 드러냄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필연성을 마주하게 한다.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작가들 내면에는 문제의식이 자리하며, 문제의식에서 발로(發露)한 질문들은 관람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업의 형태로 던져진다.

그러나 한 편, 현대인은 그들의 혼돈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갈구한다. 박정애(2011)은 정체성의 형성에서 중요한 양상의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재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던지는 사회적 질문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하는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며 검증이다. 작가는 공적 자의식을 통해 사회와의 연대를 문제 삼고, 사적 자의식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작업에 임한다(이미정, 2016).

2015개정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교육부, 2015).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읽어내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작품이 은유하는 주제를 찾아내고 작가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올바른 읽기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미술과 핵심 역량 다섯 가지 중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

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교육부, 2015). 우리 미술 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성을 읽어내는 과정은 정재호나 정은영, 옥인 콜렉티브가 보여주는 현대미술의 주제에 드러난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 역시 옥인 콜렉티브가 탐구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다.

“미적 감수성”은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특히, 3, 4학년의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며,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5).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은 작가들이 사회 속 문제적 현상을 지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로, 현대미술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민감성의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적 현상에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과도 연결된다.

### 매체적 접근

예술 창작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반응에 따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작업하는 동안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직시함으로써 생긴다(Bayles & Orland, 2018). Langer(2009)는 감정에 대한 관념을 나타내는 표현 형식의 제작 방법은 천변만화요, 역사상, 현실상의 우연한 배경 속 많은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작가들에게는 양식을 유지하기 보다는 문맥에 따라 상이한 작품 형식이나 재질과 매체를 사용하고, 가능한 넓은 영역의 기술과 양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관심사이다(Ullrich, 2013). 그러니 이제 동시대 미술을 하는 현대 미술가들의 대부분은 표현 매체에 대해 경계를 두지 않는다. 무엇을 사용하느냐 보다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할 뿐이다. 이 순간 작가는 물질 혹은 재료를 포함하는 매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특질을 느낀다. 매체에서 오는 “미적 감수성”은 작가가 매체를 선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매체를 사용하기 위해 구상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인지 작용은 미술과 핵심역량 중 “창의·융합 능력”과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과 의미 있게 연관된다. “창의·융합 능력”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 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구민주는 영상 설치, 퍼포먼스, 평면 오브제 작업, 설치 등, 정재호는 설치와 사진, 회화, 아카이브 등, 정은영은 영상, 퍼포먼스, 설치 등, 옥인 콜렉티브 역시 회화,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매체

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 동시대 미술을 하는 작가들 중에는 시간에 따라 재료가 변하거나 부패하는 작업을 통해 시간을 담은 작업을 선보이기도 하며, 자신의 회화를 길이나 상점 앞 등 일상 속에 걸어둠으로써 일상이 하나의 작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한 작업도 볼 수 있다. 또, 몇몇의 작가는 빛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가상의 공간과 현실을 이어 주제를 전달한다.

이러한 현대 미술의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작가가 매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그 특질에 따라 재해석하여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가의 일련의 과정을 배우고 익혀 학습자가 매체를 활용하고 해석해 내는 활동은 전체적으로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은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계발·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이처럼 현대미술 작가가 매체의 종류에 경계를 두지 않고 창의적으로 주제를 구현하는 활동과 예술이 과학과 공학, 인문학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작업 현상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적 감수성”, “창의·융합 능력” 및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역량과 맞닿아 있다.

### 과정적 접근

재료에 비해 매체의 접근 방식, 혹은 매체를 보여주는 형식과 과정의 문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다루는 매체의 종류, 재현 과정이나 설치의 과정과 작품의 설치 위치 등은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관객과의 소통이나 관객의 반응을 작품에 포함하는 작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작가는 작품이 놓인 공간 전체를 관람객의 동선(動線)까지 포함한 또 하나의 거대한 작품화(作品化) 경향을 보인다.

과거에 단일 재료로 단일 공간을 활용하던 미술은 이제 시간을 등에 업고 공간을 확장하며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치 차원의 확장 같은 미술 표현의 변화는 종전보다 더 크고 복잡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감각과 정서를 요구한다. 시간과 공간과 사건의 얽힘 속에 주제에 맞는 구성을 하기 위해 보다 예민한 “미적 감수성”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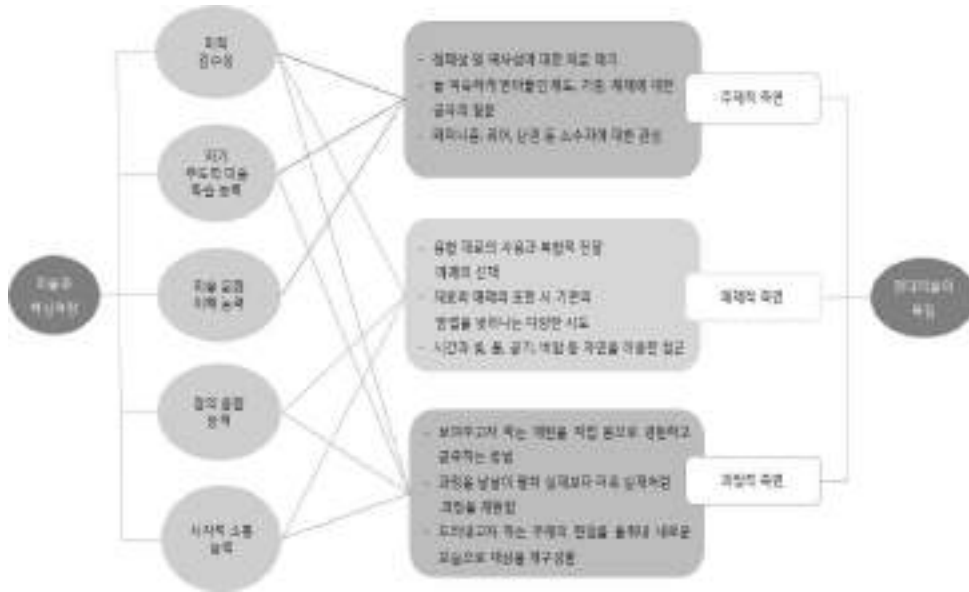
“시각적 소통 능력”은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근대미술이 작가와 감상자의 분리를 전제로 했다면 현대미술은 감상자가 감상을 통해 또 다른 미술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작가와 감상자 역할의 모호성을 전제로 한다. 즉, 관람객을 자신의 작품 속에 행위자로 설계하는 현대 작가들이 펼쳐놓은 작품 속에서 행위하고, 감상하며,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적극적 관람자가 됨으로써 시각적 소통 능력을 기르고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작품의 결과물이 아닌 작품을 생성해 가는 과정과 단계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작품 과정을 해체하여 보여줌으로써 갖는 생경함과 구체적인 현상이 던지는 낯익은 불편함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정은영이 보여주는 작업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여성국극을 작가가 직접 재현함으로써 공간이라는 부피의 감각으로, 수행이라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채워내며, 이러한 감각적 변이를 통해 관객에게 보다 충격적이고 생경하게 다가감으로써 더욱 강렬하게 주제를 드러낸다. 구민주 역시 시차를 재현하기 위한 1박의 과정을 조금도 과장함이 없이 담담하게 영상에 담고, 퍼포먼스에 사용했던 야영 용품들을 그대로 전시한다. 작가와 퍼포먼스 참여자의 움직임은 과장도 없고 자연스럽다. 이 영상과 전시된 용품들을 보며 관객은 인위적인 시간 속에 속박된 하루와 사라진 하루 그리고 두 번 사는 하루를 마치 본인이 겪은 사건인양 느끼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 과정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창의·융합 능력”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다.

현대 미술의 작품 속에 드러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통해 해석된다. 앞서 살펴 본 정재호의 <그림 7> <철거의 위기에 있는 아파트>를 재현한 설치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 없이 보여 지는 아파트는 해석에 난항을 겪는다. 관람객은 작가가 던져 놓은 작품을 읽기 위해 많은 가설을 던지게 되며, 비로소 작품명과 작품해설 텍스트를 접하고서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의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며 작품성을 비평한다. 현대미술에서 추구하는 작품 제작의 의도는 다양하기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동반 되어야만 비평과 감상이 가능한 작품들이 왕왕 있다. 그것은 포스트모던 미술의 시작 이후 진행되어 온 경향으로 미술이 형식미뿐만 아니라 개념미, 아이디어가, 그리고 공동체 및 참여적 행위가 주제가 되어 온 탓이다. 이러한 미술은 대중의 삶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공공시설의 픽토그램(pictogram), 광고 영상, 광고 간판, 홍보 포스터, 전단지 등등에서 매일처럼 맥락을 통해 해석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접한다. 이처럼 우리 앞에 던져진 시각 문화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위해 현대미술이 던져주는 시사점과 현대미술을 통한 훈련들은 초등의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현대미술의 특징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봄과 동시에, 현대미술의 이해와 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연결되는 지점을 짚어보았다. <그림 9>는 이상에서 논의한 “현대성”의 특성과 미술과 핵심 역량의 연계성을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 9> “현대성”의 특성과 미술과 핵심 역량의 연계성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에서 발견된 작품의 “현대성”의 특성을 주제적, 매체적, 과정적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교육에 있어 현대미술이 지닌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초등 교사가 미술교과를 지도함에 있어 현대미술의 교수내용지식 면에서 깊이와 비중을 두고 다뤄야하므로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바이다. 또한 작품의 탐색을 통해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에 담겨져야 할 교육 내용을 정리해 봄으로써 프로그램 내용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초등 교사를 위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방향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현대미술감상교육은 현대미술의 주제적, 매체적, 과정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교수내용지식 면에 있어 현대미술 감상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은 반드시 현대미술에 있어 “현대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주제적 접근, 경계를 짓지 않는 다양한 매체의 사용, 과정을 중시하는 재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둘째, 현대미술의 정체성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 및 핵심 역

량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교사는 교수자로서 미술 감상의 기초적 지식을 갖는다. 교육과정의 목표나 핵심 역량과 연계한 교수법을 위한 실질적인 이론적 검토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교사가 직접 수업을 구성해 보는 수업 설계 및 성찰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가 현대미술을 읽고 해석하며 정서적 공감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교사의 미적 감수성 형성을 교수학습 상황에 발휘하게 하여 학습자의 내면화 되는 미술 감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자로서의 능력을 형성한다. 교사가 현대미술의 가치를 느끼고 향유할 줄 알아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많은 시간을 현대미술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방문 및 관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리한 바와 같이, 초등 교사를 위한 현대미술감상 프로그램은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운영 면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초등 교사를 위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수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이다. 초등 교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내용을 선정하며 조율하고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전문으로 하는 비평가 혹은 큐레이터,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작업을 겸하는 교수 혹은 교육학자, 현대미술 전시의 체험 과정을 안내해 주고 현대미술 제작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작가와 같은 전문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프로그램 설계의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 초등 교사를 위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방향



## 나가며

이상으로 초등 교사를 위한 현대미술 감상프로그램의 방향 탐색을 위한 기초로서,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성의 특성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미술은 보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주제로 다루도록 독려한다. 작가는 경계 없는 매체로 보다 자유롭게, 보다 구체적으로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우리를 자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대미술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용감해져야한다. 오늘을 사는 현대 미술가들의 용기 속에 관람객인 우리들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세상에 대항하는 다른 태도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현대미술에 대한 연구자의 일지에 적힌 끄적거림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작업에 임하는 작가에게 예술은 어쩌면 한없이 두려운 세계이기도 하다. 예술은 대부분의 경우, 그저 작은 존재로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은 작가의 소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종 자신을 검열하는 잔인한 행위이기도 하며,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을 눈감아주지 않는 염라대왕의 판결과도 같다. 결국 작가가 걸어야 하는 길은 세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위이다.(연구자의 일지에서 발췌. 2018. 8. 18)

## 참고문헌

- 장수미 (2012). 시장·향유·비평의 혼합 : 2000-2011 현대미술 상황 연구. *美術史學報*, 38, 38-68.
- 교육부 (2015). *2015 개정교육과정: 미술과 각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서울: 교육부.
- 박정애 (2011). 초문화적 공간에서의 한국미술가들 :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 구축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미술과 교육*, 12(2), 23-38.
- 월간미술 (2018). *월간미술*. 9월호. 서울: 삼화.
- 이미정 (2016). 예술가의 자의식과 예술창작의 관계 탐색. *미술과 교육*, 17(1), 1-27.
- 이은적 (2007). 초 중 고 미술과 교과서를 위한 현대미술 교육내용 개발과 체계화 연구(2): 20세기 후반 이후의 동시대미술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1(1), 81-114.
- 정은영 (2015). 성별의 정치학과 불화의 미학 : <여성극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진은영 (2009). 숭고의 윤리에서 미학의 정치로. *시대와 철학*, 20(3), 403-437.
- Bayles, D. & Orland, T. (2018). *Art & fear*. (임경아 역).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서울: 루비박스. (원저출판, 1993).
- Langer, S. K. (2009). *Problems of art*. 박용숙(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주)문예출판사. (원저출판, 1956).
- Ranciere, J. (2013). *감성의 분할*. 오윤성(역). 도서출판b. 2008 , pp.13-21/ 김기수, 「랑시에르의 ‘정치적 예술’에 관하여-윤리적 전환의 문제를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38, p. 418.
- Ullrich, W. (2013). *Was war kunst?*. 조이한, 김정근(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원저출판, 2005).
- Yenawine, P. (1999). *How to look at modern art?*. 한국미술연구소(역). *현대미술 감상의 길잡이*. 서울: ㈜시공사.
- Nicolas Bourriaud, *Esthétique relationnelle, Relational Aesthetics*, Simon Pleasance & Fronza (trans.), Les presses du réel, 2002. p. 14-44.
- 배성호 (2018). 백세시대 .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76> (접속: 2018. 10. 7.)
- 국립현대미술관 (2018). 오늘의 작가상 2018 리플렛.
- 국립현대미술관 (2018). 오늘의 작가상 2018 보도자료. 9월 5일.  
<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exhId=201808070001073> (접속: 2018. 10. 7)
- 국립현대미술관 (2018). 오늘의 작가상 2018.  
<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exhId=201808070001073> (접속: 2018. 10. 7)
- 한국교원대학교 (2018).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육과정 안내 책자.  
[http://ent.knue.ac.kr/junggong\\_brd.brd?shell=/index.shell:141](http://ent.knue.ac.kr/junggong_brd.brd?shell=/index.shell:141), (접속: 2018. 9. 28)
- 서울대학교 (201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요건 안내글.  
[https://hosting03.snu.ac.kr/~korean/bbs/content.php?ct\\_id=6&cate\\_id=2030](https://hosting03.snu.ac.kr/~korean/bbs/content.php?ct_id=6&cate_id=2030), (접속: 2018. 9. 28)

## Abstract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 Focus on the Analysis of Artwork by Korean Contemporary Artists -

**Mi-Jeong L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modern art appreci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ve difficulties in class appreciation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 In order to identify the present address of modern art and link it with the curriculum, we explored the analysis of the works of four artists (teams) and their connection with the curriculum. Four artists were sele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2018.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ers collected materials for theoretical basis, photo and audio taken in person, professional comments, researcher journals, electronic media articles and exhibition guides. The world of works of each writer analyzed through a combination of literature studies and researcher's narratives was considered for educational possibilities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art curriculum.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direction of contemporary art appreci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edia, and process approaches to contemporary art is necessary. Second, through awareness of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2015 revision of art curriculum, teachers have a basic knowledge of art appreciation as professors. Third, by combining the process of reading, interpreting, and emotional empathy with contemporary art, we form a professor's experience to help learners with art appreciation activities.

This study is a directional exploration process for program design, which will be used as data for follow-up studies and is valued as a basis for designing programs for teacher training.

|                   |                   |                   |
|-------------------|-------------------|-------------------|
| 논문접수 2018. 10. 17 | 심사수정 2018. 11. 06 | 게재확정 2018. 11. 12 |
|-------------------|-------------------|-------------------|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공예교육 사례와 개선 방안 연구

### 안인기

춘천교육대학교 부교수

---

### 요 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의 한 영역으로 교수되는 공예교육의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이를 위한 예술”이라는 모토로 문화 향수권 신장을 목적으로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 지 10여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의 기회로 이해되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전문 예술영역의 교육을 예술가들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제도로서 시각예술 영역 중 공예 영역이 주된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다. 연구를 통해 공예 담당 예술강사들이 진행한 일부 수업 내용과 기존 미술 교과서 공예 영역의 내용 사이의 기본 관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논문은 공예 영역의 교육담론이 갖는 특정한 관례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추론하여 가치 있는 공예교육 방향에 대해 문화다양성과 삶의 이해 향상을 길을 제안한다.

---

### 주제어

문화예술교육(arts and culture education), 공예(craft), 문화(culture), 삶(life)

### 서론

지난 몇 해 동안 필자의 관심 중 하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술 교육들에 대한 것이었다. 문화부가 주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크게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한 실행 영역으로서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수업연계나 방과 후 활동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국악, 무용,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의 8개 분야 영역에서 정규 교사가 아닌 특정한 자격조건과 선발 과정을 거친 예술강사를 통해 실시된다. 필자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예술강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재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수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보고서를 분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담고 있는 필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은 이러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가장 많은 수업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예 영역에 대해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공예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들 분야에서 공예 교육을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 미술교과 교육에서 공예 분야의 단위 내용과 어떤 차별성이나 공통성을 갖고 있는지 비교하여 공예 영역을 다루는 관점과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양자의 변별성보다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유사성이 왜 기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공예 이론적 체계와 주장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공예에 대한 주장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현행의 교육적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거듭될수록 교과서에 수록되는 양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스스로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이 활발하지 않아 보이는 공예 영역에 대한 재고가 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예 분야에 대한 교수내용 구성 체계가 전통 문화 담론과 재료기법 담론으로부터 다른 가능성을 찾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공예 예술강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한 정당성과 책무를 시준하며 적용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예술강사와 교과서의 공예관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공예 수업

이미 알려진 대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이를 위한 예술(art for all)”을 교육 모토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론적인 해석을 적용한다면 이는 누구나 예술적 소양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예술 교양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 소외자들에 대한 문화 향수권 신장이라는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홍애령, 송미숙, 2015). 사실 문화부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문화 향수권의 신장은 예술가와 일반 국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가깝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공교육 현장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인성, 감성 계발 등을 지원하여 실제 미술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예술과 공교육의 만남이 문화 교육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전제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매개로 교수학습 행위라는 교육적 방법을 집목하는 과정을 거치며한 정책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정책 자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책의 취지나 의도에 대한 논의보다 공예 분야의 단면을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일부나마 드러내는 범주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문화 소통이나 문화 향수권을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주로 특별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 교육사에게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다. 예술강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와 선별을 거쳐 선발된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사회의 예술가들이 학교 현장인 교실을 찾아가는 학생들과 함께 실행하는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학교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획득하며 정규 교육에서 충족하지 못한 전문적 예술 교육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정규 수업 외 활동으로 위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과와의 연계성이나 적절한 예산배정, 학생들의 연속성 보장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지닌 예술가들의 노하우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교과서의 내용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예술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시작되어 많은 실적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예술 교육의 보완과 확장의 의미를 띤다면, 요즘 강조되는 통합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쟁점은 학교 교육 방향의 연장과 흐름 안으로의 문화예술교육이 포섭되는 방향성을 띤다하겠다. 예술강사들이 수행한 수업 사례 중에서 작년 자료를 살펴보면 한경원(2015)은 STEAM교육에서 말하는 융합처럼 예술을 통한 융합 수업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는 “신라시대 토우와 애니메이션의 만남”이 공예와 역사, 스토리텔링, 영화, 사진의 장르가 융합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빛과 아름다운 우리가락”에서는 한지를 이용한 풍선 등 제작과 우리민요 부르기라는 방식의 공예와 국악의 결합을 시사하였다(한경원, 2015). 한편 소망등 만들기는 풍등 원리를 이용한 공예와 역사, 과학의 결합한 내용을 예시하였다. 수업은 소망등을 만들어 띄우고 민요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경원이 제시한 사례는 공예 영역의 예술강사들이 실행한 수업에서 선별한 경우로, 교과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예술강사들의 수업 설계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는 모범으로 선정된 셈이다.

그런데 한경원이 제시한 수업 사례들은 여러 교과간의 지식 영역이나 기술 영역들이 나열되고 있을 뿐, 질적 내용적 결합을 통한 실제적인 통합 교육의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신라 토우를 소개하는 내용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특성이나 표현 내용이 신라 토우와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다. 클레이가 점토와 재료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라 토우와 관련짓는 것은 단원 제목처럼 단지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남을 통한 융합이나 시너지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해명이 없다.

한지를 이용한 소망등 만들기과 민요 부르기가 이어지는 것 역시 소재상의 유사성이 통합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단조로운 수업 설계 방법을 보여줄 뿐이다. 풍

등 형태의 소망등이 과거의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고 민요를 부르는 내용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미술과 음악의 통합한다는 아이디어는 지나치게 나이브한 선택이다. 소망등이 실제 어떻게 쓰였고 언제 사용하였는지 등의 생활 문화적 요소를 내용 구성과 설계의 주요한 지침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 조명등이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하고 민요를 덧붙이는 양상을 보여준다. 공예가 재료나 기술이라는 범주로 구성되는 활동 영역이기 이전에 삶의 방식과 기원, 상징을 담는 그릇이다. 공예는 삶의 필요와 생의 기능을 수행해온 도구였다는 점이 강력한 정체성이다. 그러한 특징이 단원 개발의 주요한 아이디어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소망등을 날릴 때 함께 부르던 민속놀이나 행동, 노래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재현할지 응용하고 수정하여 오늘의 현실에 맞추어 개선할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공예분야의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 중 수업시연 지도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눈여겨 본 점 중에는 예술강사들이 공예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관점에 대한 것이었다. 몇 번의 관찰이지만 예술강사들의 수업에는 특정한 유형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우선은 전통과의 관련성이다. 특히 한지는 흔히 등장하는 재료로서 부채나 등, 질감 표현, 꾸미기 재료로 사용된다. 한지는 물론 풍부한 가소성으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안료의 흡수성과 정착성이 뛰어나 평면과 입체 조형 활동 모두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우수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한지라는 점 때문에 공예수업은 한지 만들기 자체를 실행하거나, 질감을 이용하거나, 부채나 십이지신상 등의 전통적 모티프를 만드는 중심 재료로 사용한다. 전통에 대한 공예 수업의 해석은 과거 공예품에 담긴 아름다움의 정체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는 것보다 특정한 재료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앞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공예 수업이 재료 체험 및 가공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공예 분야의 예술강사들이 수행한 수업들에는 “펠트지를 이용한 카네이션 만들기”, “플레이콘으로 사랑나무 만들기”,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쇠고리 만들기”, “종이를 이용한 질감 표현”, “한지로 연필꽃이 만들기”, “가죽 마우스패드 만들기”, “점토로 펀칭 그릇 만들기” 등의 수업들이 있는데 이런 수업들은 모두 재료와 사물을 나열하며 제작 방법이 강조되는 특징을 갖는다. 재료는 곧 공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재료에 따라 도구와 만들 물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공예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장식 혹은 꾸미기 중심 수업이 특징이다. 공예품의 특정영역이 장식적 요소가 강한 장신구라는 분야가 있다. 그런데 공예수업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머리핀, 열쇠고리, 목걸이, 팔찌, 브로치, 지갑, 주머니 같은 장식적 요소가 강한 사물이 주를 이룬다. 재료가 무엇이건 장신구를 만드는 기교와 솜씨를 갖는 것이 특징이긴 하겠지만 조형 활동의 주된 아이디어가 무늬 꾸미기와 같은 수업으로 귀결되는

것은 공예적 생산이나 공예품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이처럼 예술강사들에 의한 공예 문화예술교육은 최근의 통합교과적 시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의 의미를 실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수업은 전통 중심, 재료 중심, 장식 중심의 사례들로 이루어지면서 공예 분야의 예술교육 양상이 단순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 초등 미술교과서에서의 공예 단위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공예 교육의 한계 상황은 교과서에서의 공예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초등미술 교과서로 한정하여 말하자면, 공예 단위는 대개 전통미술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 한국화나 서예, 혹은 전통미술 감상 단원과 인접하여 배치되고 연관된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예는 과거 역사의 영광이나 조상들의 삶의 한 단면을 재현하는 문화재적인 관점에서 제시된다. 그러한 삶과 역사는 대개 전근대적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대상이며, 보존하거나 알아야 할 어떤 것으로 소개된다.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현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이런 관점은 공예 단원을 과거에 만들어진 공예품에 대한 리바이벌과 재연이 주요한 수업 내용으로 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은 2007개정 및 2009개정 미술과 교과서 5·6학년 교과서의 사례를 담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섬유공예 영역을 내용으로 삼아 염색 재료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천연재료로 천을 염색한 전통 공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과서 구성은 공예가 전통적 삶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런데 재료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면, 좌측이 “소목, 쪽, 양파, 쪽두서니, 황련, 쪽”을, 우측은 “홍화, 쪽, 양파, 소목, 치자, 솜, 쪽”을 제시하고 있다. 좌측은 황토 물들이기를, 우측은 흘치기염색을 표현 활동으로 연계하며 염색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재료와 기법이 강조되는 이런 내용 구성은 공예 관련 교과서 단원에서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공예 단원은 늘 전통문화의 재현과 재료 체험의 요소를 함축한다. 두 사례가 보여주는 수업을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염색 재료를 마련하며, 하루에 마감되기 어려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제작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염색의 방법은 알려주지만 그런 염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빠져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까지 담을 만큼 교과서가 풍부할 수 없지만,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염색한 천은 어떤 필요와 쓰임새를 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발문이나 고려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교과서가 말하는 공예는 쓰임새나 기능성을 고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하였다는 전통 체험적 상황과 사용된 재료를 다루고 특정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법, 기술 요소





<그림 1> 섬유공예 내용을 소개하는 좌 2007개정/  
우 2009개정 초등 교과서 사례(5·6학년용)

만 남게 된다. 이렇게 염색한 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어떤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려는 노력이 공예적 전통 속에 내재한 가치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교과서가 공예를 다루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공예를 기능과 쓰임새를 가진 물건을 만드는 과정으로 소개하는데, 실상 만드는 물건들의 쓰임새나 기능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실생활에 쓰임새가 없는 박제화된 아이템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 2>에서 등 만들기과 시계 만들기는 공예적 과정과 디자인적 내용이 결합된 단원이다. 좌측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교과서는 한지로 등을 만드는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과정과 장식 방법을 중요하게 도해하고 있다. 교과서가 중시하는 것이 등이라면 그것은 무언가를 밝혀주는 사물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한지등은 표면에 많은 장식이 어둡게 덮일수록 무언가를 밝혀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점은 우측의 시계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이 시계는 사자를 연상시키는 동물의 얼굴 형태를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시간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동물의 얼굴 표현 때문에 시침과 분침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방식의 만들기 사례는 이 외에도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같은 단원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말하자면 공예, 더 나아가 제품 디자인적 요소의 단원에서 제작은 기능과 용도에 대한 고려보다 표면 장식과 꾸미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예품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임새와 기능이 우선되는 것이며, 관련 교육은 쓰임새와 기능이 형태나 조형으로 어떻게 구현되도록 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장식과 꾸밈 활동으로 바뀐다는 것은 공예품의 형태보다 자체의 표면에 대한 회화적 그래픽 디자인적 내용 표현에 치우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이



<그림 2> 작, 한지를 이용한 등 만들기 사례. 2007개정  
초등교과서(5·6학년)/ 우, ‘쓰임새를 살린 생활용품’ 관련  
예시작 사례, 2009개정 초등 교과서(5·6학년, 부분)

공예와 관련한 정당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만들기의 사례들은 해당 사물이 어떤 요구와 필요성을 갖는 지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무슨 기능을 담아야 하는지는 그러한 기능이 어떠한 형태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가 공들이는 내용은 “꾸미기”이며, 기능을 저해하는 장식들이다. 회화 관련 단원은 “자유롭게” 그리는 것이라면 공예나 디자인 영역은 “꾸미기”를 하는 것이 교과서가 제시하는 공예의 한 교육 방향이다. 우리는 어떤 기능과 필요가 어떤 형태를 통해 실행될 수 있는지가 어떤 의미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능과 필요는 삶 속에서 파생하며, 삶과 무관한 기능은 단순한 장식과 꾸미기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재료에 따른 지도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흙으로, 나무로, 철사로 무언가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은 각 재료마다의 속성과 도구, 기법을 익혀 원하는 사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예의 질료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다. 필자가 보기에 예술강사들에 의한 공예 수업이나 미술 교과서가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공예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공예는 재료에 대한 경험을 감각하고 조작하며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숙련성 같은 미적 특질을 포함한 기술, 직관, 신체감각 같은 실제적 지식을 획득한다. 만들기와 신체적 실행을 통해 경험된 직관적인 것으로서 숙련된 지식의 독특한 형태, 노하우 혹은 묵시지의 영역으로 설명되는 것이 공예적 본성으로 흔히 이야기된다(모인순, 우관호, 2012). 그것은 공예의 본래적 영역으로 암시된다. 공예를 재료와 기법, 숙련성, 기능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분명 공예의 전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공예적 수업 설계의 내용적

전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공예 교육을 단순화하고 비중과 역할을 위축시키는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에게 질료의 속성을 익히는 것은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공예가 수습 수업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하자면 공예 자체의 본성이나 특징을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공예가의 그것을 따라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예 교육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공예 교육을 위한 변화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필자는 좀 더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공예론으로 본 공예의 가치와 본성

공예를 설명하는 방법은 필자가 보기에 다음 세 영역으로 나뉘는 것 같다. 우선 공예가 가진 고유한 범주, 기능, 개념을 중시하며 그 분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중시하고 발전시키려는 “본질주의”의 입장을 상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예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임무가 공예가들이 활동하는 상황이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해진다는 관점을 지닌 입장으로, 이들은 공예의 가치가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맥락주의”의 입장을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술가나 디자이너와 달리 공예가에게 찾을 수 있는 창작의 문제, 제작 방식과 노하우, 사고방식에 담긴 독자적인 가치를 탐구하고 밝히려는 “작가주의”의 입장이다.

이 세 관점은 미술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교육 목표의 세 가지 방향으로서 교과중심, 사회중심, 아동중심 미술교육의 틀을 차용하여 활용한 도식이다. 공예 이론은 현대미술, 미학, 예술론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디자인 이론의 확산에 비해 체계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공예 영역의 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결정하며, 스스로의 정당성과 필요에 대한 논리와 철학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연구의 부재는 본 연구에서 다소 무리하게 이러한 도식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 도식은 우리에게 공예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한 방식이다.

### 공예만의 고유한 원리와 본성

누군가 본질주의 공예론의 태도를 설명하는 명료한 방법은 비평가 그린버그(C. Greenberg, 1961)의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린버그(C. Greenberg, 1961)는 미술의 고유한 원리를 찾기 위해 칸트의 방법을 수용하였다. 그린버그의 잘 알려진 방법은 “원리 그 자체를 비판하기 위하여 원리의 특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칸트식 자기비판성을 미술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림이 그림이기 위해서는 2차원의 그림으로 판정

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원리를 찾아내고 나머지 요소나 성질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림만의 순수한 특질에 대하여 사고였다. 결과적으로 회화는 다른 어떤 장르와도 구별되는 회화만의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것이 회화 장르의 독자성과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라고 보았다(Greenberg, 1961). 그의 논리는 모더니즘식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바, 분업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근대주의의 이념은 분야(discipline)마다 전문화된 경계를 구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인 시기였다. 때문에 회화가 조각이나 건축, 혹은 문학과 같은 다른 영역의 예술과 구분되고 공유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린버그의 관점과 비슷한 사고가 공예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공예 분야의 지위나 성격, 역할을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공예 분야에는 다른 예술 장르에서 찾을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 찾을 수 없는 유니크하며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의 형식주의 미학은 추상미술의 탄생 이후 그린버그에 이르기까지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현대미술은 대중들로부터 난해하고 엘리트적이며, 예술 그 자체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회화나 조각이라는 장르의 근원적 속성이나 본질을 추출하고 그것만으로 다양한 시각예술의 장을 개척하여 온 점은 살펴볼 대목이다.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요즘 디자인 분야는 경영학적 기반과 광고, 마케팅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화된 양상으로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밀접한 생산품을 쏟아내고 있다. 일상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입되어 있는 디자인의 시대는 산업혁명의 정당한 귀결이자 미술의 확장된 외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예는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 하고, 외연을 넓히며 사회적 변화에 조용하며 스스로를 변신하여 왔는가? 성급하거나 단순화된 근거를 통해 살펴보는 한계는 있겠지만 공예 분야는 스스로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 설득하였던가? 공예는 산업화와 기계화, 첨단화와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쇄신하는 어떤 이론들을 생산하였는가? 이런 질문에 모두 답할 수는 없지만 몇몇의 편린을 통해 그 대강을 알아보려고 한다.

근대공예의 출발을 알리는 미술공예운동은 잘 알려진 것처럼 화가이자 사상가이기도 했던 윌리엄 모리스(W. Morris)의 주장과 예술적 실천에 큰 빛을 지고 있다. 모리스가 조어하고 처음 사용한 미술공예(arts and crafts)라는 용어는 순수미술(fine-art)로부터 평가 절하되고 있던 당시 공예의 가치와 의미를 환기시키고 공예를 둘러싼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를 담았다. 모리스는 새로이 조어한 미술공예라는 개념을 통해 공예품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작동할 수 있는 기계이거나 용도나 기능(function)을 갖는 도구에 머물지 않는 아름다운 “생활 조형물”이라는 생각을 전하려 하였다. 모리스는 기본적으로 산업화의 흔적이나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전근대 시대, 나아

가 중세사회를 이상적 아름다움의 생산 모형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이 중세의 결과물인 성당건축을 통해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일종의 미의 왕국, 이상시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모리스가 강조한 원칙이 네 가지가 있다. 재료를 중시하며 사용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구조를 중시하며 공구와 도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Pevsner, 2012). 모리스는 스스로 아르누보 스타일의 벽지 패턴 장식을 남기기도 했지만 물건의 형태가 디자인, 재료, 장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사물의 구조가 아름다움의 근원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하였다(Dormer, 1997). 재료나 장식을 중시하는 다른 한편에서 구조와 사용성에 대한 강조와 균형은 공예품의 본성에 대한 주요한 원리가 된다.

모리스의 이념을 수용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공예관은 공예에 대한 본질론주의 사고에 동양적 가치를 덧붙였다. 그는 공예문화를 통해 “공예에서는 쓰임에서 생겨난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의 올바른 성질을 갖는다.”, “보기 위한 공예는 일류가 아니다. 사용하는 공예가 본격적이다”는 말을 통해 기능성을 공예의 본성을 지적하며 그것이 견고함, 편리함,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柳宗悅, 1993, p. 76).

야나기의 주장도 모리스처럼 쓰임새를 중시하고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공예를 근본적인 속성으로 보았다. 나아가 공예의 구성 요소로 “용도, 재료, 수공과 도구, 기술, 노동, 전통”을 제안하기도 했다(柳宗悅, 1993). 그는 공예의 아름다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실용성을 가장 중시하였는데, 공예가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 전통과 관례의 원칙을 따르고 재료와 도구의 법칙성에 몸을 위탁하여 자연스럽고 소박한 공예가의 노동을 통해 구현되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물을 제작하는 행위로 공예의 본성을 주장하였다. 공예품은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그것을 필요에 의해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감성이나 효과가 발휘되는 영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모리스나 야나기 모두 공예의 본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본성을 구성하는 원리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본질주의적 사유를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실용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의 조화를 이룬, 공예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역사적 인물이 된 두 사람의 사고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론가가 리사티(H. Risatti)이다. 리사티(Risatti, 2011)는 공예란 무엇인가에서 공예품(craft object)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을 모색하면서 공예를 규정한다. 리사티는 공예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술, 디자인과 비교한다. 그는 공예품이 미술, 디자인 영역과 달리 인간 신체와 관계된 사물이며, 물리적 목적과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로 정의하였다(Risatti, 2011). 리사티에게 공예는 실용성을 가진 기능적인 오브제를 만드는 행위와 관련되는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계나 도구 같은 물건으로부터 기능보다 조형성이 강조된 사물로서 오브제와 같은 범주도 공예품의 범주와 미적 영토

안으로 포섭한다. 모리스와 야나기의 관점에서 실용성과 심미성, 기능과 전통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더 넓은 범주의 사물 영역을 공예로 수용하고 있다. 아무래도 현대 공예의 흐름에서 장신구 분야나 도자 조각, 섬유공예 영역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형성된 오브제 공예의 흐름을 수용하고 그것을 넓은 예술의 범주로 수용하고 그런 시각에서 공예의 탈 기능화, 탈 실용성 영역을 허용하는 논리를 펼친 것이라 볼 수 있다. 리사티의 아이디어는 모리스의 주장에 내재한 순수미술(대예술)과 응용미술(소예술)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공예나 소예술의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예론적 전통과 관련 있다. 여전히 현대미술의 변방에서 한편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가진 사물을 만들고 다른 한 편에서 조형성을 중심으로 오브제 공예품을 만들었던 이원적 양상에서 후자의 시도들도 충분히 예술적이라는, 모리스 식으로 보면 대예술에 비견할 가치가 있는 활동임을 말하는 것이다.

공예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근대 초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능, 실용성, 심미성의 조화를 이루는 사물을 공예의 속성으로 보던 견해로부터 기능을 초월한 오브제, 조형성과 장식성을 강조하는 사물의 제작 행위도 공예의 본성으로 보는 견해까지 포함한다. 쓰임새를 앞세울 것인가 조형미를 우선할 것인가의 주장을 포괄하는 것은 일상적 사물, 물건을 만드는 행위로서 공예가 아니라 특정한 오브제를 만드는 행위로서의 공예에 대한 열망이다. 본질주의적 사고는 이상화된 본질의 가치를 일원론적으로 설정하는 속성을 갖는다. 본질이 여러 가지 일수는 없으며, 정체성을 수반하고 보장할 수 있는 헤게모니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공예와 관련하여 이 헤게모니적 가치는 예술품으로서의 공예의 지위이다. 공예가의 수고는 기계생산, 대량생산의 결과물과 다른 아우라를 지녀야 한다는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

### 맥락주의 담론, 관계 속의 공예

본질주의의 공예 담론은 공예의 본성으로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특정한 사물의 제작과 관련짓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재료, 도구, 노동, 전통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그것이 공예만이 지니는 독특한 속성이라고 본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논의로 맥락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자. 맥락주의는 공예를 독자적 세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한다. 공예의 정체를 알기 위해 내재적이고 자기중심적 시선을 강조한 본질주의적 시각에 비해 공예의 정체는 주변과의 관계맺음의 방식이나 조건들을 천착함으로써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말하자면 공예품의 가치는 그 사물 안에 내재한다는 관점, 그래서 제작 과정에 수반되는 재료와 그 가공, 노동 등이 중시되는 것이 본질주의라면, 맥락주의는 공예품의 가치가 주문이나 사회적 요청, 스타일의 역사적 전통과 당대적 해석, 수용자나 사용자의 평가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본질주의가 하나의 지배적 가치, 헤게모니적 기준을 가지는 것에 비해 맥락주의는 상대주의적, 관계주

의적 다원적 기준을 갖는다.

맥락주의는 공예와 주변의 상황을 주목하므로 공예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필요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안인기, 2011). 예술작품의 의미의 기원을 작가의 의도나 형식주의 미학이 말하듯 작품 자체에 자율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모더니즘 예술이론의 틀과 달리 맥락주의는 공예의 가치를 특정한 대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의미나 가치의 귀속성은 다양성이나 차이를 부정하는 사유 체계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본질주의의 모더니즘적 이념을 보완하고 확장하며, 동시대적 시각으로 공예 현상을 바라보는 지침이 된다 하겠다(안인기, 2011).

1999년 이래 다양한 공예 분야의 실험과 이슈를 전시로 담아온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사례를 살펴보자.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소설가 알랭 드 보통(A. de Botton)이 전시감독으로 선임되어 기획한 2015년은 “Hands+확장과 공존”은 공예의 범주나 개념이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전시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전시관의 외벽을 감쌌던 30여만 개의 낡은 CD 설치였다. 세계 9개국의 삼십여 도시 시민 30여만 명이 자신의 소망을 기록한 낡은 CD를 기증하고 그것으로 전시관의 외벽을 뒤덮는 대규모 설치작품을 만들었다. 드 보통의 생각처럼 “아름다움과 행복”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공예가 처한 상황이 대중, 관람객, 사용자와 관계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주제전에는 현대미술가와 디자이너가 공예가들과 함께 다양한 매체의 오브제, 설치, 미디어 작품을 선보였다.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역대로 초기 수공성, 자연미, 실용성 등을 키워드로 삼았지만 “유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공예품의 생활문화적 매력을 드러내거나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전시가 있는가 하면 개념미술, 설치미술의 특성을 공예품에 적용하는 미술과의 융합이 강하게 시도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전시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공예관이나 범주, 양식을 상징하지 않고 매 행사마다 다시 배치하여 공예에 대한 견해를 만들어냈다.

마르게츠(Margetts, 2009)와 알폴디(Alfoldy, 2009)는 공예의 다양한 변화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마르게츠는 모더니즘 시기 공예는 미술과 디자인에서 소외되었지만 후기산업사회에 이르러 공예는 정체할 것인가 발전과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전진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고 본다(Margetts, 2009). 마게츠는 앞서 살펴본 본질주의 관점의 공예 개념에서 중시하였던 실용성과 아름다움의 조화, 공예가의 건강한 노동, 용도와 기능, 재료와 도구라는 전통적인 공예관 형성에 기준이 되었던 요소들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공예의 정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왜냐하면 나아가 그는 공예가 자본주의의 산물인 상품에 대해 질문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친화적 방법을 고안하는 작품들이 공예의 성격을 재정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Margetts, 2009). 알폴디는 한 국가에서도 통일되지 못하는 공예 용어의 규정 문제에 비추어 본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예 개념, 일

반화 가능한 용어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Alfoldy, 2009). 그의 생각 역시 하나의 규범으로 전체 공예 현상을 가름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성을 보여준다. 그는 역설적으로 공예의 다양성, 곧 나라마다 차별화된, 로컬리즘적 관점의 공예 현상과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예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의미의 귀속성을 전제로 규범이나 전통, 질료나 노동과 같은 범주를 통해 공예를 설명하려는 본질주의 견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다. 사회역사적 변화 속에서 변화되는 공예의 실제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맥락주의의 공통적인 원리이다(안인기, 2011).

맥락주의의 공예 담론은 결정주의나 정초주의적 견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어떤 사고와 판단에서 하나의 원리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차이의 사고를 공예 현상에 접목할 수 있다. 학문 간의 영역이 무너지거나 통합되고 초월하여 새로운 접지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술 분야에서의 정체성이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모든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를 전제로 재 사유될 필요가 있다. 이때 작용하는 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사이의 위계적 사고가 아니다. 사회적 문화적 삶과 관련하여 대중, 소비자, 향유자, 취미자라는 거대한 새로운 항목이 중요시된다. 공예는 스스로의 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생산된다. 그것이 맥락주의가 말하려는 공예의 방향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맥락주의 담론이 말하는 공예는 뚜렷한 정체를 표방하기 어렵다.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신할 수 있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말하자면 그것이 굳이 공예라는 범주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이데거의 유명한 경구처럼 언어가 존재의 집이듯 공예에 대한 규정은 공예가 존재하는 양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맥락주의 담론은 늘 본질주의의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다.

### 작가주의, 공예가의 솜씨

작가주의의 구분은 공예가를 공예적 규범, 전통, 사회적 문화적 상황보다 우위에 두는 관점이다. 공예의 독특한 가치가 그것을 창조하는 생산자인 작가에서 기원한다는 생각을 표방한다. 화가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통해 작품의 독창적인 아우라가 만들어지듯이 공예가의 솜씨와 숙련도는 물질의 특성을 변모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공예가의 수고로운 노동 속에 담긴 질적인 차이들과 함께 공예가 스스로 설정하고 의도한 관념들이 현실화되며, 공예품의 의미망을 만들어낸다. 현대 예술의 제 영역에서 신으로서 저자(author)의 지위를 설파하듯, 공예가 역시 모든 가치와 의미의 기원으로서 스스로를 앞장세우는 견해들을 만나게 된다.

공예를 옹호한 많은 이론가들은 손을 이용하는 공예는 좋은 것이며 기계화된 기술은 나쁜 것으로 보았다. 공예만이 아니라 미술, 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이론을 전



개한 도머(P. Dormer, 1997)는 공예가가 가진 솜씨나 만드는 기술(workmanship, 장인정신)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공예가의 제작 과정에 담긴 비밀을 추적한 그는 모든 제작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과 같은 사물은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 비해 실제 제작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따라야만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엄격한 기술공학적 사물에 비해 더욱 주관적이며 개인의 신체 조건과 심리, 재료의 상태와 도구, 숙련도와 미의식, 취향 등의 차이를 지닌 공예가 개인은 더욱이 결과물의 특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도머는 대량생산품의 경우 “제작 과정의 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생산라인의 기계처럼 일정한 훈련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성을 확보하려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에 비해 공예적 생산은 “제작 과정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로, 공예가 개인의 기량만이 아니라 적으로 상황이나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제작 과정의 위험”으로 보고 그것을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작 과정의 확신”을 갖기 위한 공예가 개인의 숙련도, 기량만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지(know-how)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으로서 묵시지(tacit knowledge), 미적 감수성과 판단력의 수준을 내포하는 감식안(connoisseurship) 개념으로 설명하였다(Dormer, 1997).

배움과 앎의 영역을 논하는 도머의 주장은 교육학 이론과 흡사한 면을 지닌다. 초보 수련공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기술지는 분야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장인에게서 나오는 일종의 경험지이다. 도머(Dormer, 1997)는 이러한 기술지는 “말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론화되기 어려우며 보편적인 원리로 요약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례와 비교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p.144)고 하였다. 묵시지 역시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기술지의 속성으로서, 실제적 작업과 노동,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 배우고 채득한다(Dormer, 1997).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 전적으로 신체적 경험과 감각의 고도화를 통해 판별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감식안은 감각과 사유의 지속적인 교환과 오랜 경험을 통해 구축한 심미적 완성도를 말한다.

감식안에 대해서는 영국의 도예가 버나드 리치(B. Leach)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 나라(영국, 필자 삽입)의 극히 일부 사람들은 그릇 만들기를 예술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들 중 대다수는 특출하게 훌륭한 것과 저속한 것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미적 가치 기준이 없다. 더욱 불행한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움과 적절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도 갖지 못하는 많은 도예가들은 뛰어난 명품은 고사하고 신선하거나 근사한 정도의 작품도 만들어내기 어렵다(Leach, 1940. p.1)”고 지적하였다. 리치의 관점은 공예가가 지닌 고유한 역량과 관련된다. 일찍이 야나기 무네요시와 교류하며 일본과 한국, 중국의 도예 전통을 접하기도 했던 리치는 일본식 다도의 감각과 공예가의 그것이 유사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리치에 따르면 다

도의 감각은 공예가의 작업 방식과 흡사하다. 공예가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작품을 만들 때 재료를 다루고 그것이 변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에서 대상과 교감이 이루어진다. 제작 과정이 고도의 영감을 통한 즉흥곡과 흡사하다는 것이다(Leach, 1940). 따라서 공예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비평적 기준에 맞느냐보다 어떻게 자신의 심리상태를 변화시키는가에 중시한다. 작품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참된 정서적 보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는 생각, 공예가 스스로 대상을 보고 느끼는 즉각적인 안목과 즐거움이 공예가의 주요한 특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머는 공예가는 학문을 정진하며 보편적 규칙과 객관화될 수 있는 공식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고 본다(Dormer, 1997). 언어로 기록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진술 가능한 지식으로서 명시지의 영역이 아닌 기술지, 묵시지, 감식안 같은 개념을 제안하면서 그는 시간 속에서의 변화무쌍한 경험, 질료의 변형을 위한 작용과 반작용 사이의 길항 관계를 제어하고 조절하며 특정한 미감과 의미를 실현하는 공예가의 제작 방식을 강조한다. 그의 입장은 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이며, 그것은 공예가의 수준과 공예품의 역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본다면 제작을 위한 공예가의 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이며 노동이 대상으로서 재료와 도구, 손의 관계, 그것들을 가늠하는 감식안이 공예가의 작가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도머의 관점은 세네트(R. Sennett)와 유사하다. 세네트는 개념적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이 작품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프래그머티즘의 철학적 전통 아래 제작의 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장인정신은 노동하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ennett, 2008).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는 프래그머티즘의 원칙아래 그는 연주, 발레, 글쓰기처럼 공예가도 신체의 움직임을 조직하고 관여하는 장인정신이 요구되며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장인정신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충동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그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한 모리스의 견해를 계승하면서도, 공예가의 노동이 다른 능숙한 숙련자들의 노동활동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입장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공예가의 장인정신이 신비화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 물론 공예가의 작가주의가 실상 숙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질과 유사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예에 대한 해명을 확장하면서도 일반화하고 있다. 이점은 본질주의의 담론이 유지하려던 공예의 특권적 관례, 예를 들어 실용성, 노동, 재료와 도구 등의 개념을 생활 보편적인 차원으로 개방함으로써 공예의 지위를 삶의 지평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다. 공예는 스스로의 경계와 정체를 구축할 것인가, 그것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지층에서 다른 방식의 지도 만들기를 할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 결론

필자는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사례와 미술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공예 분야의 사례들로부터 연구의 실마리를 삼았다. 두 영역은 사실 공예 수업의 차이를 통해 상호 보완과 서로의 고유성 구축이 이상적인 배치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보면 두 영역의 내용은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 전통미술의 연장선에서 공예 분야가 위치한다는 점, 교수 내용이 주로 재료 체험과 가공 방법에 치우친다는 점, 실제 학생들이 익히는 감각은 사물의 표면 장식에 치우친다는 점이 그것이다. 흔히 공예품은 실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작되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의 공예 교육이나 예술강사들에 의한 공예 교육 모두 기능과 쓰임새를 실현하는 형태와 구조에 대한 탐구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꾸미기 활동으로 편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예 관련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익힐 조형적 감각은 목적과 기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모양, 구조, 색채 등으로 실현하는 감각이다. 그것은 회화나 그래픽 디자인 수업에서의 장식적 묘사와 표현 능력과 차이가 있다. 재료의존적인 수업 성격도 찾을 수 있었다. 한지, 흙, 나무, 천 같은 재료들은 해당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예라는 이름아래 전개되는 수업이 이처럼 특정한 경향에 한정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예 이론의 담론 분석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예수업이 보여주는 경향은 공예 이론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예 담론은 공예만의 고유한 범주와 특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본질주의적 담론과, 공예의 본성이 사회문화적,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모되는 것이라는 맥락주의적 담론, 공예가의 속성과 역량이 곧 공예의 가치이자 본질이라는 작가주의 담론을 소개하였다. 사실 본질주의 경향과 작가주의 담론은 모두 공예의 고정된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모더니즘적인 사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맥락주의는 다원성과 차이를 수용하면서 공예 정체성의 변화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양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예는 늘 삶의 일부였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존속하였다. 산업화와 기계화가 전통적 공예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우리의 삶도 급속히 변화하였다. 필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러한 전제가 앞서 살펴본 예술강사나 교과서, 세 가지 공예이론의 담론에 서로 다르게 반영되면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공예가 우리의 생활 문화였다는 점이다. 공예품, 사물, 오브제들이 우리의 현재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우리의 현재적 삶을 영위하는 세심하고 미시적인 양상들이 사물들의 배치와 체계 속에서 구현된다. 그런데 우리의 공예 수업은 여

전히 전통, 재료, 도구, 노동, 장인정신 같은 관념의 우산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세네트의 주장처럼 장인정신이란 더 이상 공예가의 독점적 영역이 아님에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굳이 한지로 조명등을 만들어야 하는지, 시계의 표면을 장식하고, 특이한 재료를 가공하는 숙련성을 훈련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왜 조명등을 만들고, 시계를 만드는지, 어디에 쓸 것이고 누가 사용하며, 어떻게 쓸 때 더 나은 의미가 만들어지고, 사용자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공예는 문화적 산물이며 생활문화의 실체이며 나의 다른 모습이다. 이때 “나”는 우리 모두이다.

### 참고문헌

- 모인순, 우관호 (2012). 공예의 통합적 속성에 근거한 공예교육. *한국도자학연구*, 9(1), 23-42.
- 안인기 (2011). 공예에 대한 현대적 입장들: 개념과 가치에 대한 재고. *기초조형학 연구*, 12(5), 295-304.
- 한경원 (2015). 공예교육에 적용된 감성예술융합교육 사례 연구. *2015 학교 예술강사 공예분야 하반기 의무연수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5-25.
- 홍애령, 송미숙 (2015).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한국무용연구*, 33(1), 167-190.
- 柳宗悅 (1993). 工藝文化. (민병산 역). *공예문화*. 서울: 신구출판사. (원저출판 1941)
- Alfoldy, S. (2009). Toward a new craft theory. *미학·예술학 연구*, 30, 513-527.
- Dormer, P. (1997). *The culture of craft*.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reenberg, C. (1961). *Art and culture: Critical essays*. Boston: Beacon Press.
- Leach, B. (1940). *A potter's book*. London: Faber&Faber.
- Margetts, M. (2009). Redefining contemporary craft. *미학·예술학 연구*, 30, 495-504.
- Pevsner, N. (2012). *Pioneers of modern design*. (권재식, 김장훈, 안영진 역).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들: 윌리엄 모리스에서 발터 그로피우스까지*. 파주: 비즈앤비스. (원저출판 1936)
- Risatti, H. (2013).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허보윤 역). *공예란 무엇인가*. 서울: 미진사. (원저출판 2007)
- Sennett, R. (2008). *The Craftsma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 Study on Improving Craft in Elementary School with the Aspect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Kee Ah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im for improving craft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class. We can see the several cases for craft curriculum under the nam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with artist teacher. Last ten years Arts and Culture education is expanding the cultural right(the right fo enjoying culture) in school education with the motto “arts for all”. Artist teachers showed skilled talents and professionalism those lacked in the classroom. Among the artist teachers, craftsmans were selected for teaching their craftsmanship. With this study, I found that there are some conventions in crafts education including priority to tradition, function and apprenticeship. According the literature review of crafts theory, I can connect those conventions to the discourses of essentialism, contextualism and authorism to crafts. The history of craft matches to the story of human life. Crafts means function what we need and beauty what we use. We can see the life of ours through the objects that we made. Crafts can teach the ways of life for all, in that ways we can see the crafts education in class.

|                   |                   |                   |
|-------------------|-------------------|-------------------|
| 논문접수 2018. 10. 17 | 심사수정 2018. 11. 04 | 게재확정 2018. 11. 12 |
|-------------------|-------------------|-------------------|

## 한국화 감상을 통한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채영<sup>1)</sup>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신혜원<sup>2)</sup>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 요 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 및 우리나라 고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국화 작품을 선정하여 미술 작품 감상을 토대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총 12회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미술 감상 교육의 주요한 목적인 점, 선, 색 등의 미적요소를 탐색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미감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전문가의 동양화를 활용함으로써 유아의 자연친화적인 태도 전통 문화 대한 이해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화에서 주로 사용된 점, 선, 색을 탐색하고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미적 요소에 대한 이해 및 창의적 표현력을 발달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 미술 감상 교수 방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시함으로써 유아 교육 현장에서 전문가의 작품을 활용한 미술 감상 교육이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 주제어

유아 미술 감상 (young children's art appreciation), 한국화 감상(Korean art appreciation),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art education program), 전통 미술(traditional arts)

### 들어가며

유아는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아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초보적인 수준이므로 언어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 때문

---

1) 주저자: chaeyoung@skuniv.ac.kr

2) 교신저자: shinhye@skuniv.ac.kr

에 유아 발달에 있어서 미술 교육은 매우 의미 있으며 중요하다. 지각 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을 탐색하고 관찰하면서 시지각력을 발달시키므로(지성애, 박찬옥, 유구중, 조형숙, 2010) 미술 작품 감상을 교육에 활용한다면 지각 및 인지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적 요소인 선, 색, 형태, 질감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술 작품의 독특한 표현에 대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며 직관적 통찰력, 상상력, 미술적 기능도 발달시킨다(윤현숙, 2006). 유아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미적 요소인 선, 색, 형태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사물에 대한 정보 분석력을 키우게 되며 정보를 재구조화 하여 시각적 상상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교육적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오랫동안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미술 감상활동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해 왔다(Koster, 2001).

미술 작품을 활용한 감상교육은 실제 작품을 통해 작가의 느낌과 생각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한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조형언어를 인식하고 감상한 경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는 타인을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 작가와 감상자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예술 체험하기 때문이다(Dewey, 2013). 미술 작품을 통한 미적 경험은 감각적 훈련과 사물에 대한 지각과 분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서를 순환시키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허정임, 2007) 유아에게 더 적합하고 효과적이다. 유아는 발달 특성 상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사물은 탐색하며 인지적 발달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이므로 미술 작품 감상에 대한 경험은 유아의 상상력 및 창의력을 더 자극할 수 있다.

누리과정에 의하면 예술경험 영역은 유아가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이를 즐기고 감상하는 교육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교육부 2014. p. 110). 특히 예술경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미술작품 감상하기는 아름다움을 매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사회적인 활동이며 다른 사람의 예술적 표현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찾아보면서 나누는 경험에 중점을 둔다. 이는 누리과정의 목표 중 하나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빠른 변화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해야만 한다. 즉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국제사회의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져 온 우리의 문화이며 이는 곧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교육부, 2014. p 132).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시킴으로써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시기부터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에 걸맞게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도 전통 문화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통 문화의 한 부류인 한국화 감상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전통문화를 후대가 답습해야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고유의 전통 문화적 요소를 다른 요소들과 화합하는 장으로서의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 예술인 한국화 감상을 활용하되 현재 유아의 생활 및 경험들과 연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미술 교육은 일상생활이나 주변의 자연 환경에서 다양한 미적 요소들을 탐색하고 발견하면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선과 형, 색, 공간, 질감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우리나라 전통 미술 작품인 한국화를 감상하는 교육활동은 이에 매우 적합하다. 주로 자연을 소재한 한 우리나라 한국화는 사실적 표현에서부터 기하학적 표현까지 여러 가지 미술적 특징으로 자연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하늬, 김진아, 2013). 유아가 전통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은 조상의 슬기와 정신을 학습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지능력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필요한 미술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통 미술 작품인 한국화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미술 작품 감상을 활용한 미술 교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김진희, 2000; 지성애, 박찬옥, 유구중, 조형숙, 2010) 미술 표현 활동을 하기 전에 자연 및 사물이나 유아 자신의 작품, 또는 다른 유아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는 활동방법이 대부분이었다.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가 미술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유아 미술 작품 감상 활동에 대한 교사 연수 부족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활동 계획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 미술가의 작품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수 매체의 부족이나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전문 미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미술 감상 활동을 활발히 실행할 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실제 유아교육기관들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활동으로 미술활동을 많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미술활동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이기숙 외, 2001). 그러나 정규과정 이외의 특별활동으로 운영되는 미술활동은 주로 미술전공자들이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정에 기초하지 않은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즉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술 교수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교사 중심적이고 획일적이며 결과지향적인 교수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지성애, 2001; 2005). 따라서 유아교육과정에 기초한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을 활용



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몇몇 연구에서 전통 예술 작품을 활용한 유아 미술 교육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강시현, 2004; 곽한숙, 2003; 윤향미, 2005; 임양선, 2000; 한미숙, 2002) 대부분의 경우 토우, 십이지상 등의 조각 작품, 지승공예, 지호공예, 한복, 족두리, 풍경, 탈, 도자기 등의 공예작품, 염색, 단청문양, 탁본 등과 같은 디자인, 초상화, 사군자, 민화 등의 회화작품으로 분류하여 감상하도록 하였고 작품에 나타난 선, 형태, 색, 명암, 직감 등의 미적 요소들을 동시에 분석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유아 미술 감상 교육의 주요한 목적인 미적 요소인 선, 색, 형태, 질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각 작품의 독특한 표현에 대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직관적 통찰력, 상상력 등을 발달시키기에 부적합 접근이라 사료된다. 유아의 발달 특성상 효과적인 미술 감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적 요소인 선, 형태, 색,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반복하면서 유아 스스로 미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발달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기초한 전통 예술 분야 중 하나인 한국화 감상을 토대로 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미적 요소 별 유아의 인식과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선, 형태 등 각 요소별로 다양한 한국화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을 감상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술 감상 활동 교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미적 요소에 대한 유아의 통합적인 발달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의 한국화 감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술 감상 교육을 통해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도모하는 교사의 전문 역량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전통 미술 작품을 활용한 미술 감상 프로그램 개발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하위 내용 범주인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 미술 감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아의 발달 특성과 미술 교육의 목적에 적합하게 전통미술작품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작품을 활용한 교육 활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유아의 반응에 따른 적절한 교수 방법의 지침 등을 포함시켰다.

#### 전통 미술 작품 선정 기준

미적 요소는 미적 대상의 점, 선, 색, 질감, 명암, 패턴, 모양 또는 형태, 공간 등을 의미한다(Jalongo & Stamp, 1997; Schirmacher, 1998). 유아 미술교육 내용에는 시각 예술

의 기본 요소인, 선, 색, 형태, 질감, 공간 등의 시각 예술의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Kostelnik,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적인 요소인 점, 선, 색, 형태, 질감, 공간 중에서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점, 선, 색의 기본요소를 토대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Parsons의 미적 행동 발달 단계에 따르면(Parsons, 1978, 백희숙, 2006 재인용) 유아는 1단계에 해당되므로 점, 선, 색 등과 같은 눈에 띄는 미적 요소에 반응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각 미적 요소별로 3~4개의 작품을 선정하되, 각 요소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 하였다.

대체로 미적 요소는 미적 대상의 점, 색, 선, 질감, 명암, 패턴, 모양 또는 형태, 공간 등을 의미한다(Jalongo & Stamp, 1997; Schirmacher, 1998). 이러한 미적 요소들을 조직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균형, 강조, 비례, 운동감, 리듬감과 반복, 다양성과 통일성의 미적 원리를 경험하는 것은 전인발달에 매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유아 미술 교육 내용에는 기본 요소인 선, 색, 형태, 질감 등의 시각예술의 기본 요소를 익힐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정옥, 임수진, 2003).

## 점

점은 눈의 목표를 세우는 표시로 크기는 갖지 않고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다. 종이의 크기와 점의 관계, 점의 양, 위치관계 등에 따라 같은 점이라도 그 느낌이 달라진다. 점은 그 기능에 따라 점, 소수점, 표시점, 부점 등으로 불린다.

## 선

선은 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그리고 점과 선이 시작하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미술 작품 속의 선은 모두 시작점과 끝점, 길이, 방향(위/아래, 대각선, 평행선)을 가지고 있다. 점의 연속으로 나타나는 선은 물체를 표시할 때 윤곽을 나타내고 형태를 표시한다. 점의 이동에 따라 직선, 곡선이 생기며, 선이 높아지는 방향과 길이에 따라 방향성과 운동성을 나타낸다. 수직선, 수평선, 사선, 굵은 선, 짧은 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선들은 감정을 나타내는데, 사선은 긴장, 이동, 행동을 나타내고, 수직선은 힘, 안정, 위엄 등을 느끼게 하고, 곡선은 부드러움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동양화에서 전통적으로 선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사용되는 선들은 사물에 대한 정신적 작용이나 이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선은 표현의 도구, 종이 면의 특징, 사용하는 사람의 힘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작품에 리듬을 주거나 패턴을 만들기 위해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반복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 형

형은 어떤 물체의 윤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형은 윤곽선에 의해 혹은 색과 질감의 변화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형은 크거나 작은,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묘사될 수 있으며, 사각, 직사각형, 삼각형, 원이 될 때 기하학적인 것들로 설명될 수 있다.

형은 평면적인 경우와 입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진다. 즉, 평면상의 형은 2차원적 표면 위에 닫혀진 공간으로 명확한 외곽선과 색의 질감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입체적인 형태는 3차원적인 공간에 구성된 미술작품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작품을 ‘예술적 형태’라고 했을 때 형태란 바로 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서 색이나, 질감, 균형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총체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 색

모든 물체는 빛을 받으면 빛은 흡수하거나 반사하거나 투과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이 색이다. 빛은 소리처럼 일정한 파장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지각하는 색은 각각의 파장을 가진 빛들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것이다. 색은 미술 요소 중에서 가장 감각적인 것으로 사물의 실제 색을 나타내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장식적 방법을 위한 방법,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표현적인 방법과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정서적 방법으로 상징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

## 명암

명암은 작품 안에서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 명암은 매우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그림자까지 나누어질 수 있다. 즉 밝고 빛날 때는 가볍고 따뜻하고 명확하게 느껴지지만, 둔중하게 어두울 때는 무겁고 명확성이 흐리며 차갑게 느껴진다. 작품 안에서 명암의 정교한 변화들은 극적이고 표현적인 강조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림 속 인물들이나 화가의 삶의 상태, 감정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빛의 의한 명암은 물체에 입체감을 주고 주위공간에서 돋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주변 사물과의 명암을 대비시켜 준다. 동양화에서는 흰색과 회색, 검은 색을 사용하여 명암을 처리하는데 이를 농담이라고 한다.

## 질감

질감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질감과 재료 자체가 지닌 촉각적인 재질감이 있다. 실제적 질감은 자연물, 조각, 건축물, 조형물 등의 표현을 실제로 만지면서 느끼는 것으로 부드럽고 털이 있고,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것과 같이 촉각을 통해 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시각적 질감은 실제 만져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화가에 의해서 창조된 질감으로 명암이나 선의 움직임 등을 통해 표현된다. 시각과 촉각에 의한 서로 다른 질감을 느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주의를 깊게 관찰하면서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질감과 실제로 만졌을 때의 질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간

공간은 미술작품 내에서 형들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미술작품 내에서의 공간은 형이 차지하는 공간과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은 가득 차 있거나 드문드문 비워져 있거나 하면서 폐쇄되어 있는 느낌 또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안과 밖처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3차원 형상을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림의 색이나 선, 면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 넓이, 깊이 크기 등을 표현한다.

## 교수-학습 방법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별된 전통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각 미적 요소를 탐색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에 대한 유아의 사고력을 자극하고 확장시켜 스스로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도록 활동 방법을 계획하였다.

한 가지 미적 요소에 대한 작품을 순차적으로 감상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요소에 대한 유아의 미적 요소 인식 및 심미감 발달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들과 감상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미적요소와 미술원리를 이해하고 이와 연관된 질문을 통해 유아들과 미술작품을 분석하고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각 미적 요소에 대한 감상 활동을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미적 요소를 충분히 경험하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단, 유아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유아의 흥미를 고려하고 유아 주도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Dodge와 Colker(1996)은 미술 감상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는 서술단계로 미술작품을 자세히 살펴본 후 본 것을 열거하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분석과정으로 작품의 미적 요소(선, 색, 모양, 질감, 공간)들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는 작품이 주는 이야기나 느낌들을 서로 이야기 해보는 해석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유아들이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돕는 판단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4단계 중에서 미적요소분석에 중점을 두고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한국화 감상 작품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작품 중 한국화 전문가 1인,

유아미술 전문가 2인, 유아교사 2인과 실행 적합성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였다.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 (김민주, 2015; 나정숙, 2013; 정수아, 김현주, 2014; 함영숙, 2015)과 미술자료가 수록된 책인 박영아, 김영유(2006)의 “유아를 위한 미술 감상”, 안미정, 윤세미(2017) “아동미술감상-명화여행을 통해 창의력 키우기”를 토대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미술 활동프로그램은 5세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구성하였는데 이는 Lowenfeld의 조형발달단계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시기 유아의 그림은 경험한 사물에 대한 인식 기록인 동시에 사고의 반영이므로 유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총 12 개의 활동들은 각각 교사를 위한 감상지도 예시, 활동 목표, 도입활동, 연계활동, 감상자료,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각 활동들의 진행은 우선 교사가 유아에게 감상 자료인 미술작품을 제시하고 유아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평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작품 감상 후 연계된 미술활동들은 각 미적 요소인 점, 선, 색, 형, 공간의 요소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총 12회기로 진행되는 각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5세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용

| 회차 | 감상 작품            | 활동명                       | 활동 목표                                                                                                                                                           | 미적요소<br>연계요소 |
|----|------------------|---------------------------|-----------------------------------------------------------------------------------------------------------------------------------------------------------------|--------------|
| 1  | 황집중<br>“목포도도”    | 도장으로<br>그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의 다양한 크기들을 탐색해 본다.</li> <li>- 작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먹의 농담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본다.</li> <li>- 점들이 모여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본다.</li> </ul>      | 점            |
| 2  | 김기창<br>“점과 선”    | 여러 가지<br>재료로 그릴<br>수 있어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친 선과 점들이 표현된 작가의 작품을 분석해 보고 빠르게 그리기와 느리게 그리기의 차이점을 알아본다.</li> <li>-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점과 선을 표현해 보고 차이점들을 알아본다.</li> </ul> | 점, 선         |
| 3  | 김득신 외<br>“화성원행도” | 숨은 그림<br>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의 제작 의도에 대해서 알아본다.</li> <li>- 그림에 표현된 미술요소를 파악해 본다.</li> <li>- 조선시대의 공간을 구성,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본다.</li> </ul>            | 색, 형,<br>공간  |
| 4  | 작자미상<br>“단청”     | 전통문양<br>모빌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의도와 작품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작품의 존중감에 대해서 배워본다.</li> <li>- 문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품을 구성하는 오방색에 대해서 알아본다.</li> </ul>        | 색, 형         |

| 회차 | 감상 작품         | 활동명                         | 활동 목표                                                                                                                                                                                  | 미적요소<br>연계요소 |
|----|---------------|-----------------------------|----------------------------------------------------------------------------------------------------------------------------------------------------------------------------------------|--------------|
| 5  | 김정희<br>“세한도”  | 풍경화<br>-유치원<br>주변의<br>나무와 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표현한 나무에서 느껴지는 선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li> <li>- 풍경을 다양한 선으로만 표현하여 본다.</li> </ul>                                                         | 선            |
| 6  | 정선<br>“박연폭포”  | 우리 동네<br>- 공동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에서 느껴지는 힘에 대해서 탐색하여 본다.</li> <li>- 여러 가지 굵기의 선이 주는 느낌을 탐색하여 본다.</li> <li>- 선의 굵기와 진하고 흐리기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논하여 본다.</li> </ul>                     | 선            |
| 7  | 김홍도<br>“무동”   | 리본으로<br>그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춤을 출 때 보이는 선의 형태와 다양한 선 모양을 탐색해본다.</li> <li>- 친구들이 춤을 출 때 보이는 선의 느낌을 서로 비교해 본다.</li> </ul>                                                    | 선            |
| 8  | 이응로<br>“군상”   | 한 선으로<br>그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의 움직임을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색해 본다.</li> <li>-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굵기 차이를 경험해 본다.</li> </ul>                                                         | 선            |
| 9  | 김도량<br>“흑구도”  | 동물을<br>선으로<br>표현해 봐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들을 다양한 선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본다.</li> <li>- 색으로 표현할 때와 선으로만 표현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본다.</li> <li>- 해학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본다.</li> </ul>          | 선, 색         |
| 10 | 신사임당<br>“초충도” | 여름과일<br>표현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화와 서양화의 정물화 기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li> <li>- 한국화에서 정물화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본다.</li> <li>- ‘초충도’에 표현된 색에 대해서 살펴본다.</li> </ul>                         | 색            |
| 11 | 작자미상<br>“책가도” | 오방색<br>꾸미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화의 개념과 책가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li> <li>- 한국의 오방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상 자료에 사용된 색들을 찾아본다.</li> <li>- 오방색만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본다.</li> </ul>                     | 색, 공간        |
| 12 | 박래현<br>“지본채색” | 색으로<br>이야기해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서 느껴지는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li> <li>- 보이는 색이 아닌 감정에 의한 색으로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표현하여 본다.</li> <li>- 색 면에 의한 표현법과 형태를 단순화하는 법을 알아본다.</li> </ul> | 색, 형         |

5세 유아의 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활동계획안의 예시는 <표 2-1, 2-2, 2-3> 와 같다.

<표 2-1> 1차시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 활동 계획안- 점

|       |                                                                                                                                                                                                                                                                                                                                                                          |                                                                                     |
|-------|--------------------------------------------------------------------------------------------------------------------------------------------------------------------------------------------------------------------------------------------------------------------------------------------------------------------------------------------------------------------------|-------------------------------------------------------------------------------------|
| 작가    | 황집중                                                                                                                                                                                                                                                                                                                                                                      |  |
| 작품명   | 목포도도                                                                                                                                                                                                                                                                                                                                                                     |                                                                                     |
| 미적요소  | 점                                                                                                                                                                                                                                                                                                                                                                        |                                                                                     |
| 대상    | 5세                                                                                                                                                                                                                                                                                                                                                                       |                                                                                     |
| 활동목표  | ① 감상 작품을 통하여 포도알 표현에 사용한 점들과 그 표현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br>② 농담의 차이가 주는 다양한 점의 느낌을 탐색한다.                                                                                                                                                                                                                                                                                        |                                                                                     |
| 준비물   | 감상자료, 대형모니터, 흰색 화선지 여러 장, 먹, 접시, 다양한 크기의 동그란 모양의 찍기들, 붓                                                                                                                                                                                                                                                                                                                  |                                                                                     |
| 감상 활동 | 황집중 ‘목포도도’를 소개한다.<br>① 그림 속에서 보이는 것을 이야기 나눈다.<br>- 그림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모두 이야기 해 보세요.<br>② 표현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조형요소를 파악한다.<br>- 이 작품은 무엇으로 그렸을까?<br>- 이 작품에서 점들은 어떻게 표현되었니? 그 점의 느낌은 어떠니?<br>(교사는 점들의 농담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준다)<br>- 각 몇 개씩 있는지 세어보세요.<br>③ 작품의 제작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br>-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왜 이런 기법을 이용하여 그렸을까?<br>④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br>- 너라면 포도를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니? |                                                                                     |
| 연계 활동 |                                                                                                                                                                                                                                                                                                                                                                          |                                                                                     |
| 도입    | ① 실제 포도를 준비하여 감상 작품과 비교하여 본다.<br>② 주변에 점들을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는 과일들을 찾아보고 점들의 크기 들을 비교하여 본다.<br>③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과일을 선택하고 다양한 크기의 동그라미 모양의 스펀지 도장들을 준비한다.<br>④ 각 각의 접시에 먹을 풀어서 각 단계 농담별로 준비한다.                                                                                                                                                                                   |                                                                                     |
| 전개    | <부제: 도장 찍어 그리기><br>① 화선지를 여러 장 겹쳐서 놓는다.<br>② 여러 가지 크기의 동그란 스펀지에 다양한 농담의 먹을 적서 놓는다.<br>③ 동그라미를 겹쳐서 찍어가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과일들을 완성한다.<br>④ 겹쳐있던 화선지들을 펼쳐서 농담의 차이에 의한 표현느낌들을 비교해 본다.<br>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서 붓으로 줄기와 나머지 부분을 완성한다.                                                                                                                                                    |                                                                                     |

|              |                                                                                                                                                                               |
|--------------|-------------------------------------------------------------------------------------------------------------------------------------------------------------------------------|
| <b>마무리</b>   | ① 내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감상한다.<br>-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 다르게 표현된 점들을 찾아본다.<br>② 활동을 마무리 하고 오늘 한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br>-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다음번에도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더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본다. |
| <b>유의 사항</b> | ① 충분한 양의 화지를 준비하고 다양한 크기의 스폰지 막대를 준비한다.<br>② 실물과 일들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사진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br>③ 화선지 두께와 종류에 따라서 먹의 농담 차이가 달라진다. 여러 종류의 화지를 준비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

## &lt;표 2-2&gt; 8차시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 활동 계획안 - 선

|       |                                                                                                                                                                                                                                                                                                                                                                                                                                                                                                         |  |
|-------|---------------------------------------------------------------------------------------------------------------------------------------------------------------------------------------------------------------------------------------------------------------------------------------------------------------------------------------------------------------------------------------------------------------------------------------------------------------------------------------------------------|--|
| 작가    | 이응로                                                                                                                                                                                                                                                                                                                                                                                                                                                                                                     |  |
| 작품명   | 군상                                                                                                                                                                                                                                                                                                                                                                                                                                                                                                      |  |
| 미적요소  | 선                                                                                                                                                                                                                                                                                                                                                                                                                                                                                                       |  |
| 대상    | 5세                                                                                                                                                                                                                                                                                                                                                                                                                                                                                                      |  |
| 활동목표  | ① 사람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색해 본다.<br>②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굵기 차이를 경험해 본다.                                                                                                                                                                                                                                                                                                                                                                                                                                 |  |
| 준비물   | 감상자료, 대형모니터, 흰색화지, 먹, 크레파스, 수채물감, 아크릴물감, 접시, 붓, 싸인펜, 볼펜 등                                                                                                                                                                                                                                                                                                                                                                                                                                               |  |
| 감상 활동 | 이응로의 ‘군상’을 소개한다.<br>① 그림 속에서 보이는 것을 이야기 나눈다.<br>- 그림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모두 이야기 해 보세요.<br>-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br>② 표현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조형요소를 파악한다.<br>- 이 작품은 어떤 재료로 그렸을까?<br>- 이 작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니?<br>- 이 작품에서 선들은 어떻게 표현되었니? 그 선의 느낌은 어떠니?<br>③ 작품의 제작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br>- 이 작품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고 싶니?<br>-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어떤 기분에서 그렸을까 ?<br>- 이 작가는 왜 사람들을 선으로 표현하고자 했을까 ?<br>- 내가 작품속의 사람이라는 무얼 하고 싶니?<br>④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br>-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어디일까?<br>- 너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니? |  |
| 연계 활동 |                                                                                                                                                                                                                                                                                                                                                                                                                                                                                                         |  |
| 도입    | ① 조형 요소 중 선에 대해서 배워 본다.<br>② 사람의 움직임이 어떠한 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동작게임을 통해서 알아본다.                                                                                                                                                                                                                                                                                                                                                                                                                                 |  |



|       |                                                                                                                                                                                                                                                    |
|-------|----------------------------------------------------------------------------------------------------------------------------------------------------------------------------------------------------------------------------------------------------|
|       | ③ 동작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들을 준비한다.<br>④ 여러 동작들을 중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들을 선택한다.<br>⑤ 다양한 선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한다. 단, 흑색으로만 준비한다.                                                                                                                                       |
| 전개    | <부제: 한선으로 표현해요><br>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들의 사진들을 선택한다.<br>② 선택한 동작들의 사진들을 화지 한쪽에 붙인다.<br>③ 동작들을 다양한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한선으로 그리기를 한다. (먹, 싸인펜, 물감, 등 다양한 도구로 그려본다)<br>④ 그리는 도구의 종류에 따라 선의 굵기와 느낌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알고 표현하여 본다.<br>⑤ 여러 동작들을 연결하여 군상 그리기를 시도하여 본다. |
| 마무리   | ① 내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감상한다.<br>- 자신의 선 그림을 소개한다.<br>- 친구의 그림 소개들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br>② 활동을 마무리 하고 오늘 한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br>-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본다.<br>- 다음에 동작들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
| 유의 사항 | 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선긋기를 하도록 하여 단색이 주는 지루함을 피하도록 한다.<br>② 팔을 최대한 사용하여 선을 긋도록 하여 자신감 있는 선을 그리도록 지도한다.<br>③ 다양한 동작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사전 게임을 철저히 준비한다.                                                                                                           |

&lt;표 2-3&gt; 11차시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 활동 계획안- 색

|       |                                                                                                                                                  |                                                                                      |
|-------|--------------------------------------------------------------------------------------------------------------------------------------------------|--------------------------------------------------------------------------------------|
| 작가    | 미상                                                                                                                                               |  |
| 작품명   | 책가도                                                                                                                                              |                                                                                      |
| 미적요소  | 색, 공간                                                                                                                                            |                                                                                      |
| 대상    | 5세                                                                                                                                               |                                                                                      |
| 활동목표  | ① 우리 주변에 다양한 색이 있음을 안다.<br>② 오방색이 나타난 한국화를 감상하고 느낌을 표현해 본다.<br>③ 민화가 지니는 미술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다.                                                  |                                                                                      |
| 준비물   | 감상자료, 대형모니터, 흰색화지, 오방색의 색한지, 연필, 가위, 풀, 크레파스, 수채화 물감 등                                                                                           |                                                                                      |
| 감상 활동 | 전통 민화 중 다양한 ‘책가도’를 소개한다.<br>①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책가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br>- 이 작품은 책가도라고 하는데 높게 쌓아놓은 책더미와 서재의 여러 가지 일상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정물화풍의 그림으로, 전통 장식화 및 민 |                                                                                      |

|              |                                                                                                                                                                                                                                                                                                                                                                                                                                                                                                                                                                                                                                                                                                                                                                             |
|--------------|-----------------------------------------------------------------------------------------------------------------------------------------------------------------------------------------------------------------------------------------------------------------------------------------------------------------------------------------------------------------------------------------------------------------------------------------------------------------------------------------------------------------------------------------------------------------------------------------------------------------------------------------------------------------------------------------------------------------------------------------------------------------------------|
|              | <p>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 해 보세요.</li> <li>- 이와 비슷한 작품을 본 기억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li> </ul> <p>② 표현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형요소 중 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li> <li>- 각각의 사물들은 어떤 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지 살펴본다.</li> <li>-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어떠한 색인지 알아본다.</li> </ul> <p>③ 민화가 지니는 의미와 책가도의 탄생배경에 대해서 설명 해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작품의 제목을 붙인다면 너는 어떻게 붙이고 싶니?</li> <li>- 이 작품을 왜 만들었을까요?</li> <li>-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니?</li> </ul> <p>④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니?</li> <li>- 여기에 더 넣거나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니?</li> <li>- 나만의 책가도를 만든다면 어떤 것들을 넣고 싶으니?</li> </ul> |
| <b>연계 활동</b> |                                                                                                                                                                                                                                                                                                                                                                                                                                                                                                                                                                                                                                                                                                                                                                             |
| <b>도입</b>    | <p>① 한국의 오방색에 대해서 배워본다.</p> <p>② 다양한 민화들을 보충자료로 준비하여 비교 감상을 해본다.</p> <p>③ 본인만의 책가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책가도에 들어갈 내용들을 선정하고 자료들을 수집해 놓는다. 사진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용이하다.</p> <p>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구성하도록 한다.</p>                                                                                                                                                                                                                                                                                                                                                                                                                                                                                                                                                                                 |
| <b>전개</b>    | <p>&lt;부제: 오방색 꾸미기- 책가도&gt;</p> <p>① 흰색 화지를 반으로 접는다. 접은 한쪽 면에 본인이 꾸미고자 하는 책가도 사진들을 오려서 붙인다.</p> <p>② 나머지 반쪽 면에 색한지를 원하는 크기와 모양에 맞추어 자르고 붙여서 책가도를 완성한다.</p> <p>③ 필요하면 크레파스나 물감을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다.</p> <p>④ 양쪽 작품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율하면서 작업을 하고 완성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다.</p>                                                                                                                                                                                                                                                                                                                                                                                                                                                                                                      |
| <b>마무리</b>   | <p>① 내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감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 다르게 표현된 점들을 찾아본다.</li> </ul> <p>② 활동을 마무리 하고 오늘 한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다음번에도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본다.</li> </ul>                                                                                                                                                                                                                                                                                                                                                                                                                                                                                        |
| <b>유의 사항</b> | <p>① 유아들이 다양한 책가도를 꾸밀 수 있도록 사진자료들은 다양하게 준비한다. 또한, 오방색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들은 원색적인 것으로 준비한다.</p> <p>② 바탕화지는 폴라쥬 활동에 적합하도록 3절 정도로 두께감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여 화지가 작아서 금방 활동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p> <p>③ 작품에 사용될 색상지 조각은 유아의 소근육 발달을 위해 다양한 크기 별로 될 수 있도록 가위로 직접 자르도록 한다.</p>                                                                                                                                                                                                                                                                                                                                                                                                                                                                                                              |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기초한 전통 예술 중 하나인 한국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미적 요소 별 유아의 인식과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점, 선, 색 등 미적 요소별로 다양한 장르의 한국화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 다양한 한국화를 감상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활동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미적 요소에 대한 유아의 통합적인 발달을 심층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 탐색을 통해 문화 정체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한국화를 활용하기는 하였지만, 미술작품 감상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감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방법 개발 시 감상학습이 단계적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개발하였다.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교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첫째, 안정되고 정돈된 분위기에서 미술 감상활동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유아가 충분히 탐색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유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간을 확장시키도록 한다. 셋째, 유아의 미적 지각과 반응을 격려하되, 교사의 미적 반응이 유아에게 자극이 되거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교사가 자신의 내적인 미를 표현하고 미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모델링을 제시함으로써 유아도 자신만의 미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아의 반성적 사고와 언어적 반응을 활동에 포함하되 이를 강요하기 보다는 맥락 내에서 자연스럽게 유아가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이는 유아가 감상 활동 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고 미술요소와 미적 원리를 유아의 표현 활동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반교사도 체계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지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활동 계획서 안에 교사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양함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해외 명화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유아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진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발달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세계화시대에 다른 문화와 차별화된 전략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 미술교육현장에서도 창작활동과 전통 예술인 한국화 감상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유아의 아이디어 경쟁력과 창의력을 신장 시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 및 전통미술교육을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와 둘째, 좀

더 다양한 연령과 미적요소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한국화감상을 활용한 전통예술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예술에 있어서 회화장르 뿐 아니라 공예, 민속 문화, 조소 등 각 분야별 작품 감상을 토대로 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현장의 유아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감상 활동지 도서가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시현 (2004). *전통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한숙 (2003). *한국화 미술활동을 통한 유아의 미적 반응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아, 오연주 (2009). 전통 미술 작품 감상 및 관련 통합 활동이 유아의 미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2), 367-385.
- 김민주 (2015). *한국화 감상을 통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미술능력 및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00). *유치원 미술 감상교육의 현황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감하늬, 김진아 (2013).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미술관 교육 연구와 전통미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술과 교육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4(3), 97-115.
- 김희진 (2002). *국내외 어린이 대상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비교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정숙 (2013). 한국화와 서양화의 비교감상과 통합한 미술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미술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81, 1-24.
- 박영아, 김영유 (2001). *유아를 위한 미술 감상*. 서울: 창지사.
- 백희숙 (2006). *전통문화소재를 활용한 통합미술교육활동이 유아의 전통문화 인지와 선호도, 미적 반응,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교육부 (201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안미경, 윤세미 (2017). *아동미술 감상-명화여행을 통해 창의력 키우기*. 서울: 창지사.
- 윤향미 (2005). *한국화 감성을 통한 미술 표현활동이 유아의 미술능력이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숙 (2006). 유아를 위한 균형적 미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0(2), 25-39.
- 이정옥, 임수진 (2003). *탐색, 표현, 감사의 통합적 유아미술교육*. 서울: 정민사.
- 임양선 (2000). *DBAF에 기초한 유아전통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민화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아, 김현주 (2014). 명화감상을 통한 통합적 교육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학회지*, 32(1), 193-211.
- 지성애 (2001). 미술 교수방법이 유아의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1(1), 177-202.
- 지성애 (2005).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유아 미술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42, 181-207.
- 지성애, 박찬옥, 유구중, 조형숙 (2010). 우리나라 유아 미술교육 현황과 실태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4(6), 5-34
- 한미숙 (2002). *한지작업을 통한 유아 전통미술지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영숙 (2015). 전통미술과 자연의 미적요소에 기초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전통문화 인지와 자연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 연구*, 14(4), 231-251.
- 허정임 (2007). 예술교육에서의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미학적 탐구-듀이와 도이치의 미학적 탐구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1, 275-294.
- Dewey, J. (2013).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역). 서울: 책세상.
- Dodge, D. J., & Colker, L. J. (1996). *The Creativ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Teaching Strategies Inc. Washington. D. C.
- Jalongo, M. R., & Stamp, I. N. (1997). *The art in children's lives: Aesthetic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Boston: Allyn & Bacon.
- Kerlavage, M. S. (1995). A brunch of naked ladies and a tiger: Children's responses to adult works of art. In C. M. Thompson(Ed.), *The visual arts and early childhood learning*. VA: NAEA.
- Kostelnik, M. J. (1993).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ogra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Y: Macmillan Pubshining.
- Koster, J. B. (2001). *Growing artists: Teaching art to young children*. NY: Delmar.
- Parsons, M. J., Johnston, M & Durham.(1978). Developmental stages in children's aesthetic responses.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12(1), 83-104.
- Schirmacher, R. (1998). *Art and creativity development for young children*. NY: Delmar.

## Abstract

### Developing Art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rough Appreciation of Korean Painting

**Chae-Young Jung**

Seokyeong University

**Hye-Won Shin**

Seokyeong University

This study has developed a young children's art appreciation program in order to transmit the identity of our original culture as well as to promote the holistic human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based on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al art. For this, based on diverse literature research, artworks were selected and incorporated into a 12-session appreciation program suitable for the developmental stage of 5-year-old childre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not only survey the aesthetic factors such as dots, lines, and colors that serve as the main targets for child art appreciation education but also to develop an aesthetic sense for those targets. The study tries to establish an eco-friendly attitude, understanding and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by mainly utilizing oriental paintings of specialists based on nature. In addition, the study tries to develop understanding and creative expression concerning aesthetic factors by having children examine and appreciate dots, lines, and colors primarily used in Korean paintings. In addition, this study greatly enhances art appreciation in the young child education field by systematically presenting an art appreciation teaching method for young children that utilizes the artworks of specialists.

|                   |                   |                   |
|-------------------|-------------------|-------------------|
| 논문접수 2018. 10. 17 | 심사수정 2018. 11. 04 | 게재확정 2018. 11. 05 |
|-------------------|-------------------|-------------------|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반응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정애

한세대학교 박사과정(제 1저자)

정영인

한세대학교 조교수(교신 저자)

---

###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 여부에 따른 새둥지화(Bird's Nest Drawing, BND)의 반응특성을 통하여 비행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검사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행청소년 269명, 일반청소년 250명, 총 519명으로 검사도구로는 새둥지화를 사용하였다. 새둥지화 분석 지표는 그림 분석 지표와 이야기 구성 분석 지표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ver. 19.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둥지화의 그림 반응특성은 동지 바닥, 동지 지지 유무, 나무 유무, 아기 새 유무, 부모 새와의 거리, 양육 활동 유무, 위험 요소, 공간 사용, 선의 필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새둥지화의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은 이야기 내용의 감정 분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새둥지화가 청소년의 비행 여부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검사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 주제어

새둥지화(Bird's Nest Drawing: BND), 비행청소년(delinquent youths), 그림검사(drawing test), 반응특성(responsive characteristics)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쉽게 위기를 경험하는 취약하면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적인 시기이다(김석준, 2018). Erikson(1956)은 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발달단계

로 위기를 겪는 시기로 보았다.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12, 13세경에 부적응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7세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부적응 행동이 성인이 되기까지 유지된다고 한다(Allen et al., 1997). 이러한 경우 청소년들은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등으로 비행에 이른다(강은주, 2017; 박지언, 이은희, 2008).

최근 청소년 비행 문제는 과거에 심각했던 음주나 흡연은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미비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성 관련 비행, 폭행, 마약, 가출, 절도 및 강도가 주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주리애, 김현진, 2016).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은 충동적, 공격적이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부족과 가치관의 혼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떨어진다고(김성기 외, 2015; 박혜경, 최외선, 2006). 이들의 행동은 개인의 정서와 신체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이순래, 2005). 따라서 우리 사회는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혼란이나 가치관 등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환경에 적응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 상태와 비행 정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정도에 따라서는 상담이나 치료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육 현장이나 상담·치료 현장에서 비행청소년을 선별하는 검사도구로는 이미경(1995)이 개발한 “청소년 비행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검사인 자기보고식 질문지 검사로 피험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응답하거나, 검사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방어할 가능성이 있다(정영인, 2009; 2016a; 주리애, 김현진, 2016; Paulhus, 1981).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것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읽지 않고 한 번으로 일괄 체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어적인 자세로 검사에 임할 경우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아져 검사도구로서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검사도구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자기보고식 질문지 검사도구이다. 이는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고 즉각적인 검사결과와 해석이 가능하나, 결과에 대한 수치화로 학교나 사회에서 낙인찍는 문제가 물의를 빚고 있다(옥금자, 2013). 따라서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시기의 발달단계에 놓인 청소년들의 심리 진단을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검사의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고, 질적인 평가와 방어가 어려운 투사적 검사도구를 상호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사검사도구의 일종인 그림검사는 피험자에게 검사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



어주고, 스스로 그림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리기 어렵기에 방어가 쉽지 않아 미술치료와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김태희, 김갑숙, 2014; 옥금자, 2013; 정영인, 2015; 정영인, 2016b; 주리애, 2015; 주리애, 김태은, 2011). 그림이라는 매개체는 청소년들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언어 이상의 역할을 하고, 내면의 표현, 심리 상태 파악 등에 유용하다(최외선 외, 2014). 또한, 내면의 표상을 그림으로 드러내기에 무의식적 동기, 갈등 등을 상징과 이미지로 외현화하여 바라볼 수 있다(김갑숙 외, 2010; 김철성, 2014; 김희경, 2016). 이를 통한 심리진단은 투사적 기법의 다양한 표현과 특성을 나타내는 해석과 평가의 개별성을 요구하고, 단편적인 결과만을 제공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심리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정영인, 2016a). 따라서 자기보고식 질문지검사와 함께 그림검사를 이용한다면 객관적 검사의 단점을 줄일 수 있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문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민동, 2002; 김지연, 2008; 서지현, 2005; 이정남, 2003; 이정애, 정영인, 2018; 정혜미, 2008). 김민동(2002)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높은 불안정 애착특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이정남(2003)은 부모 관련 스트레스가 비행 청소년에게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정애, 정영인(2018)의 연구에서는 낮은 부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환경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청소년에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게 하고(Kenny, 1987), 특히 비행청소년에게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평가하고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새둥지화(Bird's Nest Drawing, BND)” 검사를 통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새둥지화는 1996년 Kaiser가 개발한 그림검사로 가족의 역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한 애착체계를 평가하는 검사도구로 정신적 애착 경험과 안전, 보호의 은유적인 인식, 양육의 경험과 돌봄 등을 파악할 수 있다(김갑숙, 김순환, 2008; Kaiser, 1993; 1996). 또한, 애착 행동의 형성과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관계성을 인지할 수 있어 피험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불안정 애착작용 모형을 재구조화하여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치료적 접근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김희경, 2016). 또한, 새둥지 그림은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등장하는데,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초기 작품에 주요 소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흐는 대부분 빈 둥지나 알만 있는 새둥지를 주로 그렸는데, 정영인(2018)에 의하면 이는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가 없었던 고흐의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새둥지라는 같은 주제의 그림을 동일한 양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린 것으로 볼 때 부모와의 낮은 애착과 고립되고 지지하는 환경이 없었던 고흐의 심리가 새둥지 그림에 투사되었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이 높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볼 수 있는 새둥지화 검사를 통하여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둥지화의 “그림 반응특성”뿐만 아니라 피험자가 직접 자신의 그림에 관해 이야기 한 것을 분석하는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림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림의 형식적 부분만 해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직접 그림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는지 그림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새둥지화를 개발한 Kaiser(1996) 역시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의 이야기를 2~5문장으로 기술하게 하여 새둥지화에 대한 정보를 확장시켰다. Francis et al.,(2003)도 새둥지화의 이야기 구성을 토대로 애착에 있어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의 의식·무의식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새둥지화의 이야기 구성은 그린 사람의 정보와 애착의 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피험자의 심리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새둥지화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그림의 반응특성만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성을 통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새둥지화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김갑숙, 김순환, 2008; 김보애, 2013; 김현지, 2009; 박민선, 2011; 신유림, 2011; 안인아, 이미옥, 2010; 유세진, 2015; 이소연, 2009; 정지영, 전순영, 2012)과 청소년(김갑숙, 전영숙, 2008; 김현진, 김갑숙, 2018; 박정아, 2013; 이해란, 2015)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달단계인 아동과 청소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김현진, 김갑숙(2018)은 쉼터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둥지화 수행경험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비행청소년과 유사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김현진, 김갑숙(2018)의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로 수행하였고,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인 통계적 자료 분석으로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새둥지화 관련 선행 연구 중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반응특성뿐만 아닌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둥지화가 청소년의 비행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향후 미술교육 현장이나 미술치료 현장에서 청소년의 비행 수준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적절한 상담·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동지화 반응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동지화 그림 반응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동지화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 중 비행청소년은 경기도 A시에 범죄로 인해 위탁 수용시설에 있는 269명(51.8%)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청소년은 경기도 B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250명(48.2%)이다. 남녀 비율은 남학생 265명(51.1%), 여학생 254명(48.9%)이며, 중학생(14-16세) 241명(46.4%), 고등학생(17-19세) 278명(53.6%)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59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새동지화와 질문지 중 그림이 없거나 응답의 누락 등 불성실하게 응답 한 76명을 제외하고, 총 51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검사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 시행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본 연구자와 위탁시설 자원봉사 상담사에 의해 약 10명~30명 단위로 15회에 걸쳐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청소년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통하여 학급당 30명 내외의 9개 학급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검사 시행 위탁 시에는 검사 담당자에게 검사 방법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 실시하게 하였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대상에게 자료는 익명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의할 경우에만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집단으로 검사가 실시된 만큼 옆 사람 그림을 따라 그리지 않도록 하고, 지시어에 따라 이미지가 떠오르는 대로 그릴 것을 당부하였다. 준비물은 검사자가 직접 A4용지, 연필, 지우개, 12색 색연필을 제공하고, 책상 위에는 검사에 필요한 도구만 준비시켰다. 검사 순서는 새동지화를 먼저 그리게 하고,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2~5문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한 집단 당 평균 15~25분이 소요되었다.

## 연구 도구

### 새둥지화(Bird's Nest Drawing: BND)

새둥지화는 Kaiser(1996)가 애착과 관련된 가족의 역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그림검사이다. 준비물은 Kaiser(1996)의 연구에서는 8.5"×11"의 흰 종이, 연필, 지우개, 8색 가는 마커펜을 사용하였으며, Francis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9"×12"크기의 흰 용지, 24색 색연필, 24색 크레파스, 10색 마커펜, 연필을 제시하였다. 지시어로는 “새둥지화를 그리세요.” 또는 “새둥지가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고, 피험자의 질문에 특정한 답을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세요.”라고 대답하여 그림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 Kaiser(1996)는 새둥지 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2~5문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새둥지화 분석 지표에서 그림 지표는 Kaiser(1996)가 제공한 애착 지표(Attachment Rating Scale: ARS)를 바탕으로 김희경(2016), 박주원, 김선희(2011) 등의 분석지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새둥지화의 그림 지표는 총 17개의 분석 지표로 구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야기 구성 분석 지표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많이 나온 답변들을 토대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새둥지화의 이야기 구성 분석 지표는 4개의 분석 지표로 구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그림 분석은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미술심리치료를 전공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이 함께 분석하였다. 전체 그림에서 50명의 그림을 무선 표집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새둥지화의 채점자 간 일치도는 A-B는  $r=.86\sim 1.00$ , B-C는  $r=.86\sim 1.00$ , C-A는  $r=.93\sim 1.00$ 으로 나타났다.

&lt;표 1&gt; 새둥지화 그림 분석 지표

| 지표        | 구분                                   |
|-----------|--------------------------------------|
| 둥지 개수     | ① 1개 ② 2개 이상                         |
| 둥지 내용     | ① 빈 둥지 ② 알만 있음 ③ 새만 있음 ④ 알과 새가 함께 있음 |
| 둥지 크기     | ① 작음 ② 보통 ③ 큼                        |
| 둥지 위치     | ① 중심 ② 가장자리                          |
| 둥지 바닥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둥지의 견고함   | ① 약함 ② 보통 ③ 강함                       |
| 둥지 지지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나무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나는 새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아기 새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알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부모 새와의 거리 | ① 한 둥지 ② 떨어져 있음 ③ 부모 새 없음            |
| 양육 활동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새 가족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위협 요소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공간 사용     | ① 1/3 미만 ② 1/3~2/3 미만 ③ 2/3 이상       |
| 선의 필압     | ① 약함 ② 보통 ③ 강함                       |

&lt;표 2&gt; 새둥지화 이야기 구성 분석 지표

| 지 표        | 구 분                                  |
|------------|--------------------------------------|
| 이야기 구성의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이야기 문장 수   | ① 1문장 ② 2~3문장 ③ 4~5문장 ④ 문장 없음        |
| 이야기 내용의 주제 | ① 양육, 가족 ② 버림받음 ③ 자연환경 ④ 기타 ⑤ 이야기 없음 |
| 이야기 내용의 감정 | ① 긍정적 ② 중립, 양가감정 ③ 부정적 ④ 이야기 없음      |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의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ver. 19.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비행의 여부, 성별, 학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채점자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전체 그림에서 50명의 그림을 무선 표집 하여 채점한 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둥지화의 그림 분석 지표와 이야기 구성 분석 지표를 토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그림 반응특성 차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그림 반응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둥지 바닥( $\chi^2=14.670$ ,  $p<.001$ ), 둥지 지지 유무( $\chi^2=36.908$ ,  $p<.001$ ), 나무 유무( $\chi^2=11.673$ ,  $p<.01$ ), 아기 새 유무( $\chi^2=8.468$ ,  $p<.01$ ), 부모 새와의 거리( $\chi^2=15.448$ ,  $p<.001$ ), 양육 활동 유무( $\chi^2=5.194$ ,  $p<.05$ ), 위협 요소 유무( $\chi^2=10.229$ ,  $p<.01$ ), 공간 사용( $\chi^2=28.967$ ,  $p<.001$ ), 선의 필압( $\chi^2=45.399$ ,  $p<.001$ )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lt;표 3&gt;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그림 반응특성 교차분석 결과

| 지표       | 구분     | 비행청소년<br>(N=269) | 일반청소년<br>(N=250) | $\chi^2$  |
|----------|--------|------------------|------------------|-----------|
|          |        | N(%)             | N(%)             |           |
| 둥지 개수    | 1개     | 249(92.9)        | 225 (90.0)       | 1.077     |
|          | 2개 이상  | 20(7.4)          | 25 (10.0)        |           |
| 둥지 내용    | 빈 둥지   | 40(14.9)         | 23 (9.2)         | 7.071     |
|          | 알만 있음  | 60(22.3)         | 74 (29.6)        |           |
|          | 새만 있음  | 86(32.0)         | 86 (34.4)        |           |
|          | 알과 새있음 | 83(30.9)         | 67 (26.8)        |           |
| 둥지 크기    | 작음     | 174(64.7)        | 180 (72.0)       | 3.205     |
|          | 보통     | 63(23.4)         | 46(18.4)         |           |
|          | 큼      | 32(11.9)         | 24(9.6)          |           |
| 둥지 위치    | 중심     | 129(48.0)        | 119(47.6)        | .007      |
|          | 가장자리   | 140(52.0)        | 131(52.4)        |           |
| 둥지 바닥 유무 | 있음     | 185(68.8)        | 208(83.2)        | 14.670*** |
|          | 없음     | 84(31.2)         | 42(16.8)         |           |
| 둥지의 견고함  | 약함     | 179(66.5)        | 152(60.8)        | 1.862     |
|          | 보통     | 59(21.9)         | 65(26.0)         |           |
|          | 강함     | 31(11.5)         | 33(13.2)         |           |
| 둥지 지지 유무 | 있음     | 149(55.4)        | 201(80.4)        | 36.908*** |
|          | 없음     | 120(44.6)        | 49(19.6)         |           |
| 나무 유무    | 있음     | 161(59.9)        | 185(74.0)        | 11.673**  |
|          | 없음     | 108(40.1)        | 65(26.0)         |           |
| 나는 새 유무  | 있음     | 58(21.6)         | 62(24.8)         | .765      |
|          | 없음     | 211(78.4)        | 188(75.2)        |           |
| 아기 새 유무  | 있음     | 126(46.8)        | 149(59.6)        | 8.468**   |
|          | 없음     | 143(53.2)        | 101(40.4)        |           |
| 알 유무     | 있음     | 145(53.9)        | 140(56.0)        | .230      |
|          | 없음     | 124(46.1)        | 110(44.0)        |           |

| 지표           | 구분         | 비행청소년<br>(N=269) | 일반청소년<br>(N=250) | $\chi^2$  |
|--------------|------------|------------------|------------------|-----------|
|              |            | N(%)             | N(%)             |           |
| 부모 새와의<br>거리 | 한 등지       | 70(26.0)         | 33(13.2)         | 15.448*** |
|              | 떨어져 있음     | 61(22.7)         | 81(32.4)         |           |
|              | 부모 새 없음    | 138(51.3)        | 136(54.4)        |           |
| 양육 활동 유무     | 있음         | 44(16.4)         | 61(24.4)         | 5.194*    |
|              | 없음         | 225(83.6)        | 189(75.6)        |           |
| 새 가족 유무      | 있음         | 48(17.8)         | 44(17.6)         | .005      |
|              | 없음         | 221(82.2)        | 206(82.4)        |           |
| 위험 요소 유무     | 있음         | 2(.7)            | 14(5.6)          | 10.229**  |
|              | 없음         | 267(99.3)        | 236(94.4)        |           |
| 공간 사용        | 1/3 미만     | 56(20.8)         | 27(10.8)         | 28.967*** |
|              | 1/3~2/3 미만 | 84(34.9)         | 54(21.6)         |           |
|              | 2/3 이상     | 119(44.2)        | 169(67.6)        |           |
| 선의 필압        | 약함         | 35(13.0)         | 48(19.2)         | 45.399*** |
|              | 보통         | 128(47.6)        | 169(67.6)        |           |
|              | 강함         | 106(39.4)        | 33(13.2)         |           |

\*  $p<.05$ , \*\*  $p<.01$ ,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지 바닥을 그린 경우 비행청소년은 68.8%, 일반청소년은 83.2%로 나타났으며, 바닥을 그리지 않은 경우는 비행청소년 31.2%, 일반청소년 16.8%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등지의 바닥을 그리지 않는 경향을,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등지의 바닥을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

등지 지지 유무에서는 지지의 표현이 있는 경우 비행청소년은 55.4%, 일반청소년은 80.4%로 나타난 반면, 지지의 표현이 없는 경우는 비행청소년 44.6%, 일반청소년 19.6%로 차이를 보였다. 즉,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등지의 지지가 없었고,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등지의 지지를 그리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나무 유무에서는 나무를 그린 경우 비행집단은 59.9%, 일반집단은 74.0%로 나타났고, 나무를 그리지 않은 경우는 비행집단 40.1%, 일반집단 26.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행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나무를 그리지 않는 경향을, 일반집단은 비행집단보다 나무를 그리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아기 새 유무에 있어서는 아기 새를 그린 경우 비행청소년은 46.8%, 일반청소년은 59.6%를 나타낸 반면, 그리지 않은 경우는 비행청소년 53.2%, 일반청소년 40.4%로 차이를 보였다. 즉,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아기 새를 그리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아기 새를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새와의 거리에서 부모 새와 아기 새가 한 등지에 함께 있는 것을 그린 경우는 비행집단에서 26.0%, 일반집단은 13.2%로 나타났고, 부모 새와 떨어져 있는 것을 그린 경우는 비행집단 22.7%, 일반집단 32.4%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한 등지에 부모 새와 아기 새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경향을 보였고,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부모 새와 떨어져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 활동 유무에서는 양육 활동이 있는 그림을 그린 경우 비행청소년은 16.4%, 일반청소년은 24.4%로 나타났고, 양육 활동이 없는 그림을 그린 경우는 비행청소년 83.6%, 일반청소년 75.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양육 활동을 그리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양육활동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위협 요소 유무에서는 위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비행청소년은 0.7%, 일반청소년 5.6%로 나타난 반면, 위협 요소가 없는 경우는 비행청소년 99.3%, 일반청소년 94.4%로 나타났다. 빈도수로 볼 때는 두 집단 모두 위협 요소를 그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두 집단 간 차이로 볼 때는 비행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위협 요소가 있는 그림을 더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간 사용에서는 용지의 1/3 미만을 사용한 경우 비행청소년은 20.8%, 일반청소년은 10.8%로 나타났고, 2/3 이상을 그린 경우는 비행청소년 44.2%, 일반청소년 67.6%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 보다 공간 사용을 적게 하는 경향을,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선의 필압에 있어서는 보통 필압으로 사용한 경우 비행청소년은 47.6%, 일반청소년은 67.6%로 나타났으며, 강한 필압을 사용한 경우는 비행청소년에서 39.4%, 일반청소년 13.2%로 차이를 보였다. 즉,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강한 필압을 사용하고,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보통 필압을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그림 반응특성 차이에 관한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그림 반응특성 차이 예시

| 변 인            | 비행청소년                                                                               | 일반청소년                                                                                |
|----------------|-------------------------------------------------------------------------------------|--------------------------------------------------------------------------------------|
| 둥지<br>바닥<br>유무 |  |  |
|                | 없음                                                                                  | 있음                                                                                   |



| 변 인             | 비행청소년                                                                             | 일반청소년                                                                              |
|-----------------|-----------------------------------------------------------------------------------|------------------------------------------------------------------------------------|
| 둥지<br>지지<br>유무  |  |  |
|                 | 없음                                                                                | 있음                                                                                 |
| 나무<br>유무        |  |                                                                                    |
|                 | 없음                                                                                | 있음                                                                                 |
| 아기 새<br>유무      |                                                                                   |                                                                                    |
|                 | 없음                                                                                | 있음                                                                                 |
| 부모<br>새와의<br>거리 |                                                                                   |                                                                                    |
|                 | 한 둥지                                                                              | 떨어져 있음                                                                             |

| 변 인            | 비행청소년                                                                              | 일반청소년                                                                              |
|----------------|------------------------------------------------------------------------------------|------------------------------------------------------------------------------------|
| 양육<br>활동<br>유무 |   |  |
|                | 없음                                                                                 | 있음                                                                                 |
| 위협<br>요소<br>유무 |   |                                                                                    |
|                | 없음                                                                                 | 있음                                                                                 |
| 공간<br>사용       |  |                                                                                    |
|                | 1/3 미만                                                                             | 2/3 이상                                                                             |
| 선의<br>필압       |                                                                                    |                                                                                    |
|                | 강함                                                                                 | 보통                                                                                 |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동지화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 차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동지화의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야기 내용의 감정( $\chi^2= 8.637$ ,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동지화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 교차분석 결과

| 지표            | 구분       | 비행청소년<br>(N=269) | 일반청소년<br>(N=250) | $\chi^2$ |
|---------------|----------|------------------|------------------|----------|
|               |          | N(%)             | N(%)             |          |
| 이야기 구성<br>유무  | 있음       | 246(91.4)        | 222(88.8)        | 1.027    |
|               | 없음       | 23(8.6)          | 28(11.2)         |          |
| 이야기 문장 수      | 1문장      | 83(30.9)         | 72(28.8)         | 6.713    |
|               | 2-3문장    | 134(49.8)        | 137(54.8)        |          |
|               | 4-5문장    | 29(10.8)         | 13(5.2)          |          |
|               | 문장 없음    | 23(8.6)          | 28(11.2)         |          |
| 이야기 내용의<br>주제 | 가족, 양육   | 131(48.7)        | 116(46.4)        | 4.499    |
|               | 버림받음     | 12(4.5)          | 19(7.6)          |          |
|               | 자연환경     | 37(13.8)         | 37(14.8)         |          |
|               | 기타       | 66(24.5)         | 50(20.0)         |          |
|               | 이야기 없음   | 23(8.6)          | 28(11.2)         |          |
| 이야기 내용의<br>감정 | 긍정적      | 153(56.9)        | 110(44.0)        | 8.637*   |
|               | 중립, 양가감정 | 72(26.8)         | 88(35.2)         |          |
|               | 부정적      | 21(7.8)          | 24(9.6)          |          |
|               | 이야기 없음   | 23(8.6)          | 28(11.2)         |          |

\*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 내용의 감정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구성한 경우는 비행청소년 56.9%, 일반청소년 44.0%로 나타났으며, 중립, 양가감정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경우는 비행청소년 26.8%, 일반청소년 35.2%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새동지화에 긍정적인 이야기 감정을 담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중립적이거나 양가적인 이야기 감정을 나타내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둥지화에 나타난 반응특성 차이를 통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비행을 알아보는 검사도구로서 새둥지화가 활용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269명, 일반청소년 250명, 총 519명을 대상으로 새둥지화를 실시하여 그림 분석 지표와 이야기 구성 분석 지표를 토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그림 반응특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등지 바닥 유무, 등지 지지 유무, 나무 유무, 아기 새 유무, 부모 새와의 거리, 양육 활동 유무, 위협 요소 유무, 공간 사용, 선의 필압에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등지 바닥 유무에 있어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바닥을 그리지 않는 경향을,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바닥을 그리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새둥지화에서 등지 바닥은 안정적인 가정을 상징한다(김현지, 2009; 이소연, 2009). 이를 토대로 본다면 비행청소년에게서 등지의 바닥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일반청소년보다 안정적인 가정에서의 애착 경험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수용 시설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에게 모성 상실이라는 심리적 배경이 있다고 밝힌 Bowlby(1969)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환경 안에서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경험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등지 지지 유무에서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보다 등지의 지지를 그리지 않는 경향을,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지지를 그리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Kaiser(1996)는 등지가 나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표현은 어머니와의 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성기 외(2015)와 박혜경, 최외선(2006)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충동적이며 가치관의 혼란, 장기적인 안목 부족, 스트레스 대처 능력부족 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결여된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와의 낮은 애착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혼란이나 스트레스 대처, 문제 해결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무 유무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나무를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나무를 표현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새둥지화에서 나무를 그리는 것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양육적인 모성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한다(Kaiser, 1996; Matthews, 1986). 이는 나무를 그리는 집단의 애착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김갑숙, 김순환(2008)과 안인아, 이미옥(2010)의 연

구결과와 같은 흐름이다. 그러나 박주원, 김선희(2011)의 연구에서는 나무를 표현하는 경향이 부 애착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다른 맥락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비행집단의 새둥지화에서 나무를 그리지 않는 표현은 부모 애착과 관련이 있고, 비행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애착 경험이 없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아기 새 유무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아기 새를 그리지 않는 경향을, 일반청소년은 그리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 새와 아기 새가 포함되어 있는 그림일 경우 애착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Kaiser(1996)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고, 적절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 아기 새가 생략되어 나타난다는 Sheller(2007)의 보고와도 같은 흐름이다. 또한, 서지현(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반사회성 비행행동이 적었으며, 공감 능력이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낮은 애착 수준을 경험하고, 반사회성 행동과 공감 능력이 낮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 새와의 거리에서 비행청소년은 한 등지에 부모 새와 아기 새가 함께 있는 그림을, 일반청소년은 부모 새와 떨어져 있는 그림을 표현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모 새와 거리를 둔 표현을 보고한 안인아, 이미옥(2010) 연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영인(2009)의 PSCD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일 경우 인물 간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희경(2016)의 연구 역시 불안정 애착일 경우 부모 새와의 거리를 비교적 가까이 그리는 경향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반면,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용환, 이근매(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 새를 그리지 않거나 떨어져 있는 형태로 표현된 경우는 불안정 애착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맥락을 보였다. Josselson(1987)은 부모와 안정애착이 형성된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새와 아기 새가 한 등지에 있는 비행청소년의 새둥지화는 불안정 애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건강한 분화가 되지 않은 의존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육 활동 유무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양육 활동이 없는 경향을,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양육 활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 애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먹이 관련 양육 활동이 많다고 한 박주원, 김선희(2011)의 연구와 친사회적인 성향의 집단에서 양육 활동이 많은 그림을 그렸다고 본 김갑숙, 김순환(200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Francis et al.,(2003)에 의하면 알을 보호하는 새가 없을 경우 현재의 관계나 어린 시절 보호자의 정서적인 분리 경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의 부 애착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성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김선주, 김영희, 2012).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부모와의 낮은 애착 관계로 인하여 고립된 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일반청소년은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 관계 형성으로 인하여 친사회적 성향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위협 요소 유무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위협 요소가 없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위협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숙(2013)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특성과 과잉 보상의 경향으로 회피적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김갑숙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은 대학입시, 진로 선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 긴장, 걱정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정남(2003)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부모 관련 스트레스가, 일반청소년은 학교 성적 및 시험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위협 요소가 없는 그림을 그린 비행청소년은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과 회피의 성향을, 위협 요소가 있는 그림을 그린 일반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걱정, 긴장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 사용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용지의 1/3 미만을 사용하고,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용지의 2/3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승진, 류정미(2014)에 의하면 공간 활용은 현재 삶의 에너지, 우울, 위축 등을 나타내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낮은 안정 애착 수준으로 넓은 여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신민섭 외(2002) 역시 작은 그림은 내면의 열등감, 자신감 저하, 부적절감, 자기효능감의 부족, 수줍음,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감, 지나친 억제, 어떤 압박감, 위축 등의 약한 자아구조와 낮은 자아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 2/3 이상의 공간 사용은 자신에 대해 적절감이나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Amos(1982) 역시 성격 조직이 매우 불안하면 공간 구성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내면의 열등감이나 불안, 압박, 위축 등의 낮은 자아 강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일반청소년은 적절한 자아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선의 필압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강한 필압을,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보통의 필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의 필압은 애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주로 표현되고(김갑숙, 전영숙, 2008), 강한 필압은 불안과 공격성이 있는 집단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오승진, 류정미, 2014). 신민섭 외(2002) 역시 강한 필압은 상당한 긴장감, 불안감, 스트레스 상황, 단호하고 자기주장적인 경우, 편집증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현재 상황에서 긴장감, 공격성, 충동성 등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이야기 내용의 감정에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야기 내용의 감정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이야기 감정을 표현한 반면,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중립적이거나 양가적인 이야기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Francis et al.,(2003)은 새둥지화의 이야기 구성을 통하여 물질남용 환자 집단과 정상집단 간 이야기 구성 활용의 가능성을 밝히면서 이야기 구성은 그린 사람의 가족 역동과 애착의 질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회피적 성향이 있다는 김미숙(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반청소년은 학업에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긴장, 걱정, 심리적 어려움을 밝힌 김갑숙 외(2010)의 연구와도 같은 흐름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이야기 감정을 드러낸 것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과잉 보상하려는 회피의 경향을 의미하고,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중립적이거나 양가적인 이야기 감정을 더 나타낸 것은 학업과 가정환경 속에서의 스트레스와 정체감 혼란 등을 경험하는 발달단계 상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새둥지화 그림 반응특성과 이야기 구성 반응특성 차이를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관계 안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혼란이나 부적절한 가치관, 불안감, 공격성, 충동성 등의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사회성 비행행동과 고립된 사회적 성향, 과잉보상과 회피 등의 행동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반면, 일반청소년은 부모와의 안정 애착이 비행청소년보다 높다할 수 있으며, 가정환경에 대한 안정성과 적절한 양육 경험으로 인하여 적절한 자아구조를 지니고 있고, 친사회적인 성향과 높은 공감 능력 등으로 비교적 건강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업의 스트레스, 불안, 긴장 등의 심리적 특성도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상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새둥지화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둥지화는 미술교육현장에서 간단한 그림으로 청소년의 부모 애착 관계 및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비행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 발달단계 상 심리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검사라는 부담감을 주지 않기에 더욱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 A시와 B시에 소재한 비행청소년 269명과 일반청소년 25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범죄로 인해 위탁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들이 비행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절도, 성 범죄, 폭행 등 범죄 유형별 심리적 특성이 다르기에 비행의 종류를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심도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청소년의 경우에

는 학교에서 실시하였기에 위탁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과 구분은 되지만, 일반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비행척도를 통한 검증 절차를 밟았다더라면 더욱 타당성 높은 연구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의 비행 검증과 비행 종류에 따른 구분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심리적 특성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은주 (2017).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입소한 비행청소년의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애착관계와 우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 김갑숙, 전영숙 (2008). 새동지화를 통한 청소년의 부모애착수준 타당화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65-1077.
- 김갑숙, 기정희, 전영숙 (2010). 청소년의 불안과 풍경구성기법(LMT) 반응특성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17(6), 1397-1409.
- 김미숙 (2013). *미술치료가 비행(非行) 청소년의 소년원 수용생활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민동 (2002).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일반청소년 집단과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보애 (2013). *시설거주아동의 새동지화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석준 (2018). *청소년 문제행동 보호·위험요인 측정도구 개발: 음주, 흡연, 스마트폰 과다사용, 도박행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선주, 김영희 (2012). 부모와 또래애착, 신체상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연구*, 20, 37-58.
- 김성기, 유천성, 김형석 (2015). 원예치료프로그램이 소년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논집*, 14, 61-108.
- 김용환, 이근매 (2011). 학령 전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새동지화 반응차이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3), 113-136.
- 김지연 (2008). *청소년의 일상 활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철성 (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지양식에 따른 미술표상의 특징과 차이*.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태희, 김갑숙 (2014).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 반응 특성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0(2), 25-43.



- 김현지 (2009).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의 새둥지화 반응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현진, 김갑숙 (2018). 컴퓨터청소년의 새둥지화(BND) 수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4(1), 97-125.
- 김희경 (2016). *애착 유형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새둥지화의 반응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박민선 (201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새둥지화 반응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박정아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공격성에 따른 새둥지화(BND) 반응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박주원, 김선희 (2011). 부모 애착수준에 따른 새둥지화(BND) 반응특성 연구. *심리치료연구*, 11(1), 147-168.
- 박지연, 이은희 (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69-389.
- 박혜경, 최외선 (2006).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3(3), 553-575.
- 서지현 (2005).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부모애착과 반사회성 및 공감능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민섭, 김수경, 김용희, 김주현, 김향숙, 김진영, 류명은, 박혜근, 서승연, 이순희, 이혜란, 전선영, 한수정 (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신유림 (2011). *초등학교의 모 애착 수준과 새둥지화 반응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 안인아, 이미옥 (2010). 초등학교의 부·모·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새둥지화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17(4), 861-878.
- 유세진 (2015).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애착관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현실치료기법 적용*.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 오승진, 류정미 (2014). *미술심리진단평가*. 서울: 동문사.
- 옥금자 (2013). *학교미술치료 지침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미경 (1995).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64, 269-300.
- 이소연 (2009). *아동의 발달 및 정신병리에 대한 그림검사도구로서 새둥지화(BND) 연구: 한국아동인성검사(KPI-C)를 사용하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남 (200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정애, 정영인 (2018). 청소년의 부(父)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

- 과. *교정연구*, 28(1), 81-110.
- 이혜란 (2015).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관계중독 및 새둥지화의 연관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 정영인 (2009). 초등학생의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 반응특성과 부모-자녀 애착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3(2), 219-240.
- 정영인 (2015). LMT와 S-HTP에 표현된 집, 나무, 사람 그림에 관한 비교 연구. *미술교육논총*, 29(2), 135-158.
- 정영인 (2016a). 중학생의 '빛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에 나타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33(3), 35-66.
- 정영인 (2016b). 한 부모 가정 아동과 양부모 가정 아동의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 비교 연구.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7(3), 97-128.
- 정영인 (2018). 고흐의 작품에 표현된 "밤"의 심리적 의미. *미술과 교육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9(2), 43-71.
- 정지영, 전순영 (2012). 초등학생의 새둥지화 반응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19(1), 207-229.
- 정혜미 (2008).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리에 (2015). *미술심리진단 및 평가*. 서울: 학지사.
- 주리에, 김태은 (2011). 빛속의 사람 그림검사(PITR)에 나타난 여고생의 비행 및 분노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5(3), 217-240.
- 주리에, 김현진 (2016). 소년원에 수감된 여자 청소년의 이야기 그림검사 반응 특성 연구. *미술교육논총*, 30(1), 89-106.
- 최외선, 김갑숙, 정은주, 정광석 (2014). *미술치료기법II*. 서울: 학지사.
- Allen, J. P., Moore, C. M., & Kuperminc, G. P. (1997). Development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dolescent deviance.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 (pp. 548-56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os, S. (1982). The diagnostic, prognostic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of schizophrenia art. *The Arts in Psychotherapy*, 9, 131-14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NY: Basic Books.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 Francis, D., Kaiser, D., & Deaver, S. P. (2003).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 Security in the Bird's Nest Drawings of Clients with Substance Abuse Disorders. *Art Therapy: Journal of Art Therapy Association*, 20(3), 125-137.
- Kaiser, D. H. (1993). *Attachment organization as manifested in a drawing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Norfolk, VA: Eastern Virginia Medical School.
- Kaiser, D. H. (1996). Indications of attachment security in a drawing task. *The Arts in Psychotherapy*, 23(4), 333-340.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tthews, B. (1986). *The Herder symbol dictionary: Symbols from Art, Archaeology, Mythology, Literature, and Religion*. Wilmette, IL: Chiron Publications.
- Paulhus, D. L. (1981). Control of social desirability in personality inventories: Principal -Factor Dele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383-388.
- Sheller, S. (2007). Understanding Insecure Attachment: A study Using children's bird nest imagery. *Art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4(3), 119-127.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Bird’s Nest Drawing” between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Jung-Ae Lee**

Hansei University

**Young-In Chung**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whether Bird’s Nest Drawing(BND) could be used as a tool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through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BND depending on whether an adolescent is normal or delinquent. The research subjects were a total of 519 adolescents, composed of 269 delinquent adolescents and 250 normal adolescents, and BND was used as the test tool. Analytical indices were set into two categories of picture analytical indices and composition analytical indices, and data analyzed through the crossover analysis using SPSS 19.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ictur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BN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est floor, whether to have the support to the nest, whether to have a tree, whether to have baby birds, the distance between parent and baby birds, whether there are parenting activities, threatening elements, the use of space and pen pressure of lines. Second, composition response characteristics of BND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classification of the sto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BND can be used as a test tool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an adolescent is normal or delinquent.

|                   |                   |                   |
|-------------------|-------------------|-------------------|
| 논문접수 2018. 10. 20 | 심사수정 2018. 11. 07 | 게재확정 2018. 11. 12 |
|-------------------|-------------------|-------------------|